

기본연구 2009-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2009. 7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게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성장위주의 사회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문화가 점차 약해짐에 따라 가족 기능 역시 빠르게 해체되고,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가족의 분화 등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주가족의 돌봄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면서 한부모 가족,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기본 조사가 선결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구성원에 대한 접근에서 가족통합접근으로 바뀌는 추세 역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관과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 연계 역시 고려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가족의 오늘과 미래를 조망하는 기초자료의 성격으로 연구조사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를 시작으로 더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2009. 7.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유 덕 상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기대효과	3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정의	5
1)가족의 개념	5
2)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	6
2. 가족정책의 개념과 전개	8
1)가족정책의 정의	8
2)가족정책의 전개	10
3. 부처별 가족정책 방향	11
1)가족정책의 주관 부처의 변화	13
2)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비교	16

III. 가족의 변화와 지자체의 가족정책

1. 한국가족의 변화	19
1)가족의 변화	19

2)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20
3)기존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21
4)가족정책의 방향	22
5)지자체별 가족정책	23
2.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변화	37
3.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	43

IV.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1. 조사개요	46
1)조사설계 배경	46
2)조사설계 및 조사	49
3)조사내용	49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결과	52
1)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52
2)가족형성	56
3)부부관계	60
4)결혼에 대한 가치관	70
5)가족 가치관	75
6)노후생활	79
7)자녀 양육	85
8)일·가정 양립	96
9)건강과 여가	100
10)가족정책	104
11)지자체의 역할	111

12)평생교육	114
13)사회참여	116

V.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결과와 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실태 조사 결과 요약과 함의	119
1)조사응답자 특성	119
2)가족형성	120
3)부부관계	120
4)결혼에 대한 가치관	123
5)가족 가치관	124
6)노후생활	125
7)자녀 양육	127
8)일·가정 양립	129
9)건강과 여가	130
10)가족정책	131
11)지자체의 역할	134
12)평생교육	135
13)사회참여	135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	136
참고문헌	140
설문지	142

표 목 차

<표 1>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관련 업무부서(2009. 6.현재)	51
<표 2> 여성부의 가족친화제도 주요 내용	6
<표 3> 합계출산율(2001~2008)	02
<표 4> 서울특별시 - 여행프로젝트	3
<표 5> 서울특별시 - 보육시책	4
<표 6> 서울특별시 - 출산장려 및 지원 시책	4
<표 7> 서울특별시 -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4
<표 8> 서울특별시 - 한부모가족 지원 시책	5
<표 9> 부산광역시 - 가족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시책	5
<표 10> 부산광역시 -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시책	6
<표 11> 부산광역시 - 출산장려 시책	6
<표 12> 부산광역시 -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시책	26
<표 13> 부산광역시 -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시책	7
<표 14> 대구광역시 - 가족정책	7
<표 15> 인천광역시 - 가족정책	8
<표 16> 광주광역시 - 가족정책	9
<표 17> 대전광역시 - 가족정책	9
<표 18> 울산광역시 - 가족정책	9
<표 19> 경기도 - 가족정책	13
<표 20> 강원도 - 가족정책	2
<표 21> 충청북도 - 가족정책	3
<표 22> 충청남도 - 가족정책	3
<표 23> 전라북도 - 가족정책	4

<표 24> 전라남도 - 가족정책	5
<표 25> 경상북도 - 가족정책	5
<표 26> 경상남도 - 가족정책	6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가구원수	8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가구형태별 인구수	9
<표 29> 제주와 전국 가족(가구) 형태 변화 비교	9
<표 30> 제주특별자치도 혼인 추이	4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이혼 추이	2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 가족정책	4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현황(2006~2008.12.31현재)	84
<표 34> 조사설계	9
<표 35> 설문항목	6
<표 36> 응답자 기본특성	4
<표 37>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	5
<표 38> 결혼 당시 배우자의 집안 수준	8
<표 39> 결혼 당시 배우자 선택 조건	8
<표 40> 결혼 당시 결혼 비용	9
<표 41> 결혼 후 처음 거주지	6
<표 42> 부부관계 만족도(1)	16
<표 43> 부부관계 만족도(2)	26
<표 44> 부부간의 의사결정	6
<표 45> 재산 명의	6
<표 46> 재산 명의 종류	6
<표 47> 대화의 우선 순위	6
<표 48> 부부싸움의 빈도	7
<표 49> 유형에 따른 부부 갈등 경험	6

<표 50> 성별에 따른 혼인관계 지속에 대한 의견	0
<표 51> 부부관계 유지 이유	17
<표 52> 이혼 고려 정도	2
<표 53> 성별에 따른 결혼 의사	4
<표 54> 성별에 따른 결혼 기피 사유	4
<표 55> 가족에 대한 정의	5
<표 56> 가족 관련 가치관(1)	77
<표 57> 가족 관련 가치관(2)	8
<표 58> 가족 관련 가치관(3)	97
<표 59> 노후 희망 가구원(성별)	08
<표 60> 노후 희망 여가생활(성별)	18
<표 61> 독거노인 정책(성별)	28
<표 62> 경로당 개선사항(성별)	38
<표 63> 상속방법(성별)	48
<표 64> 부모님 지원	58
<표 65> 미취학 자녀 돌봄 형태	68
<표 66> 자녀가 없는 이유(성별)	78
<표 67> 향후 출산 희망 자녀수(성별)	78
<표 68> 향후 출산지원시 자녀 출산 여부(소득별)	88
<표 69> 향후 출산지원시 자녀 출산 여부(성별)	88
<표 70> 자녀에 따른 보육 시설 수 만족도	90
<표 71>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이 희망하는 정책(성별)	09
<표 72>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이 희망하는 정책(소득별)	19
<표 73> 취학 자녀의 방과후 활동	9
<표 74>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치	9
<표 75> 자녀 돌봄 정도	9

<표 76> 자녀 양육비 부담 정도	9
<표 77> 20세 이상 자녀 양육 비용	9
<표 78> 학력에 따른 자녀 양육 정도	9
<표 79> 결혼에서 자녀 양육시기까지 경제활동 상태	9
<표 80> 가사분담	9
<표 81> 여성이 체감하는 가사노동 시간	9
<표 82> 남성이 체감하는 가사노동 시간	9
<표 83> 직장생활이 가족 생활에 미치는 영향	9
<표 84> 직장생활이 가족 생활에 미치는 영향(성별)	10
<표 85> 성별·연령별 건강상태	102
<표 86> 여가활동 정도	108
<표 87> 여가활동 정도(성별)	108
<표 88> 인지하고 있는 가족정책(성별)	111
<표 89> 가족정책 추진에 따른 만족도(성별)	111
<표 90> 가족정책 인지 경로(성별)	111
<표 91> 가족정책을 위하여 시급한 부분(성별)	111
<표 92> 가족상담 여부(성별)	111
<표 93>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성별)	111
<표 94> 일·가정 양립정책	108
<표 95>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여부(성별)	108
<표 96> 긴급/폭력예방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여성)	109
<표 97> 긴급/폭력예방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남성)	109
<표 98> 가족해체 방지 대책(성별)	1
<표 9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역할(성별)	1
<표100>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자체 관심분야(성별)	2
<표101>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지자체 관심분야(성별)	2

<표102> 여성정책으로 우선 고려할 분야(성별)	3
<표103> 출산장려에 필요한 시책(성별)	4
<표104> 교육 신청에서 가장 고려하는 부분(성별)	5
<표105> 평생교육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성별)	5
<표106> 희망하는 사회활동 분야(성별)	6
<표107>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성별)	7
<표108> 여론의 여성정책 관심정도(성별)	8

그림 목 차

<그림 1> 가족정책 영역의 확장	9
<그림 2> 캐머만의 가족정책	0
<그림 3> 가족정책 비전과 목표	3
<그림 4> 가족의 형태별 변화	9
<그림 5> GDP 대비 가족분야 재정 지출율	2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가구수	3
<그림 7> 전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가구원수 비교	8
<그림 8>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	0
<그림 9> 제주특별자치도 혼인과 이혼 추이	2
<그림 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의 흐름	3
<그림 1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흐름	4
<그림 1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조직도	3
<그림 13> 제주시 가구 분포	6
<그림 14> 서귀포시 가구 분포	7
<그림 15> 제주특별자치도 가구변화 추이(2001~2008)	74
<그림 16>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가정 증가 추이(2006~2008)	84
<그림 17> 응답자의 성별과 거주지	3
<그림 18>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	3
<그림 19> 성별과 학력	4
<그림 20> 성별과 혼인상태	5
<그림 21> 결혼 후 처음 거주지	6
<그림 22> 배우자와의 의견 조율	4
<그림 23> 가족의 화목함과 대화정도	5

<그림 24> 부부싸움의 정도	6
<그림 25> 부부싸움에 있어 폭력 유무와 빈도	8
<그림 26> 상담시설 이용 유무	9
<그림 27> 혼인관계 지속여부	9
<그림 28> 이혼 고려 여부	2
<그림 29> 결혼 의사와 기피 이유	3
<그림 30> 향후 부양 방법	6
<그림 31>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8
<그림 32>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8
<그림 33> 보육 시설의 적정성	9
<그림 34> 건강상태와 검진 받지 않는 이유	11
<그림 35> 가족정책 인지(성별)	11
<그림 36>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여부	10
<그림 37> 여성단체 인지 여부	1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가족은 단기간에 걸친 산업화와 도시화 등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해체, 가족가치관 변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가족이 우월적인 가족중심주의에서의 부계혈연성을 강조하여오던 것이 산업화, 민주화의 영향과 특히 정보사회로의 변화 가족 형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3세대가구 감소와 1인 단독 가구 급증, 1세대가구 증가, 육아문제, 이혼율 증가로 빈곤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정의 증가와 함께 최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 단독가구까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제사회불황은 가족의 가치관과 함께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활동의 활발한 참여로 인한 결혼 적령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이와 함께 고령산모의 증가와 사교육 등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지연 혹은 출산조절과 포기는 물론 나아가 결혼 기피와 동거부부의 증가로 새로운 가족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돌봄 기능 약화와 상실에 따라 노인 및 아동방임과 학대·유기, 경제위기로 인한 갈등 심화로 가족 내 학대와 폭력,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에 의한 친족 살해 등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개별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대부분 개별가족의 문제는 개별가족이 해결하도록 소극적인 입장을 가져왔으나 통합적·포괄적·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정책으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광의의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2005년 1월 시행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 1)은 당초 가족문제를 사후적 해결하던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기능을 강화 시키면서 가족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가 매5년마다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가족관련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와 관련 「건강가정법시행규칙」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가족갈등 관한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 중심의 가족정책발굴과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들의 요구를 수요하도록 가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지역 내 정책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이 처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족 중심의 욕구와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위한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족실태조사가 전체 가족욕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나 조사를 통해 가족의 현실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변화를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 「건강가정기본법」(법률 제8852호)은 5개의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36개 조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20조 가족실태 조사 관련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 가족실태 조사는 매5년에 한 번씩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장기적인 연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가족관련 지표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변화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실태 조사를 위하여 첫 번째,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족변화와 제주가족의 서로 같거나 다른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제주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세 번째, 조사설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구성과정에서부터 가족의 문제와 돌봄,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가족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는 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족욕구 기본조사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가족실태 조사와 달리 가족으로써 생산적활동과 재생산활동, 지역 사회관리, 정치참여, 다중역할 등 성별에 따른 성별분업의 실태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가족들의 개별육구 조사는 물론 개별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비교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의 정의

1) 가족의 개념

① 전통적 가족 개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하여 머독(Murdock, 1949)은 핵가족의 보편성을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형태로 주거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가족은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남녀와 한명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효재는 가족을 자녀 재생산 및 공동가계를 이루는 경제적 협력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이효재, 1990), 김두헌은 가족을 “친애의 정으로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혈통관계자의 집단으로서, 한집에 거주하며 의식과 기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재석(1978)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의 초시간적인 제도체”로 정의를 하면서 구성원의 출생이나 사망 또는 결혼 등에 의하여 변동이 있더라도 부계의 혈통의 동일성이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라우스는 가족을 “결혼에 의해 형성되고, 부부와 그들의 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로 구성되지만 다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종교적 그리고 그 외 다른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 다양한 심리적 감정으로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통계청은 가구(Household)의 개념으로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고 있다.

결국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학자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결혼과 혈연,

입양에 관련된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생물학적이고 구조적인 관계로서의 협의의 개념에서 정의되고 있다.

② 현대적 가족 개념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사회급변에 의한 비전통적 가족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를 수용하면서 가족의 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효재는 가족을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들의 친척,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집단”이라고 하여 비혈연적인 관계라도 연대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을 가족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을 전개하였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가족에 대하여 “자신들이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 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가족을 규정하자 Eichler는 “가족은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도 않을 수 있으며(무자녀 부부), 자녀가 혼인관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입양아동 혹은 배우자가 이미 낳은 자녀) 있다. 성인들은 성적으로 동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들의 관계가 애정, 매력, 경건성, 경외감 같은 사회적 패턴화 된 감정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하였다.

2)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

앞서 전통적 가족과 현대적 가족의 개념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존에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여겨졌던,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더 이상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 한국사회에 있어 가족(가구)은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단독가구, 한부모가족, 조부모가족, 기러기가족, 국제결혼가

족, 재혼커플끼리의 결합, 동거가구, 동성애가구, 독거노인, 노인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가족의 구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은 혈연과 혼인, 이성애를 특성으로 하는 ‘정상가족’만을 지향함에 따라 오히려 일부 가족은 가족이데올로기로써의 ‘정상가족’을 위한 ‘요새가족(fortress family)²⁾’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가족을 옹고 여기고 그 외의 가족을 상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상과 비정상 가족을 위계화 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즉, 가족의 다양한 형태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의 가족 형태만을 기준으로 다른 가족형태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위계화 구조는 2005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 개념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핵가족 개념과 차이가 없고, 가정은 ‘가족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거가구나 독신가구를 결과적으로 배제하고, 가구(household) 개념보다 협소한 범위로 제한³⁾하고 있다. 결국 건강가정기본법은 가

2) 요새가족(fortress family)은 가족의 위기나 갈등, 별거, 균열 등 가족 내 심각한 문제를 정상가족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장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정상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다양한 가족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아동 없이 동성커플과 헌신하는 관계(commitment)도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동성에 커플을 합법적인 결합으로 인정하고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결속시민규약)(변화순 외, 2000), 벨기에의 경우 2003년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였으며, 네덜란드는 결혼 허용은 물론 2000년 자녀 입양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1996년부터 기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기존 동성애자의 경우 최고 7년 형, 전기고문 등 실시)을 철폐하고 2003년 동성에 관계를 금지한 법률을 위헌으로 규정 결혼과 입양 등에 대한 권리 보장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003년 7개 주(온타리오주, 오타와주, 퀘벡주, 프리티시 콜롬비아주, 매티토바주, 노바스코샤주)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주(하와이,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도 동성부부 합법화가 이루어졌으며, 스페인 역시

족의 다양성이나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모순되게 특정 가족형태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즉, 기존의 가족을 정상과 결손 또는 비정상으로 이분화 하고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기보다 오히려 회귀·유지함으로써 ‘가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⁴⁾.

결국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족을 둘러싼 담론의 핵심은 다양한 가족의 출현이 오히려 가족의 ‘위기’가 아닌 ‘변화’와 ‘다양성’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이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인식을 경계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우선 인정하는 것은 ‘문제중심적·사후적보호’가 필요한 가족의 소극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사전적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적·법적·제도적 마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정책의 개념과 전개

1) 가족정책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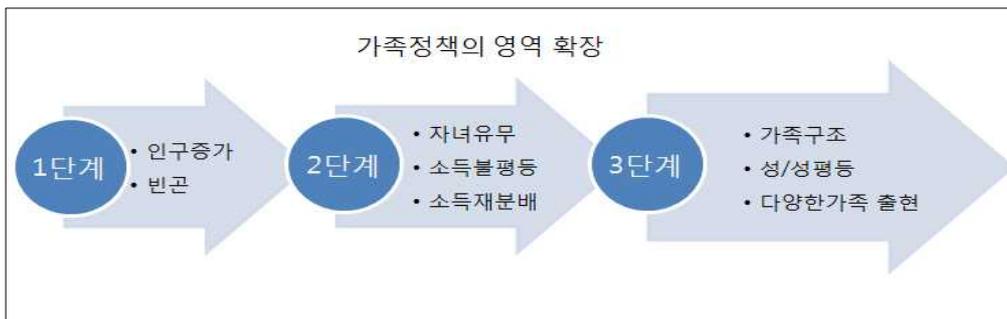
가족정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인구학적·경제적문제로 낮은 출산율과 저임금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국가가 가족과 아동수당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문제로부터 기인하는 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녀를 가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전후 베이비붐으로 낮은 출산율에 대한 사회문제가 일부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60년대 일부 국가가 빈곤문제가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저소득가족의 소득문제, 건강보호, 교육, 주거,

2005년 동성결혼법 제정으로 동성부부의 상속권과 연금수급권, 자녀입양권 등 이성부부들과 동등한 지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는 “평생 동반자법”, “사회연대협약(PACS), ”시민결합(Civil Union)” 등으로 세금, 연금, 가족수당, 병원 면회권, 상속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동등하게 받고 있다.

4) 이재경.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필요한가?”. ‘일. 가족 함께’ 양성평등 가족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토론회1. 한국여성단체연합. p. 8-9.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보호체계가 확대되어 등장하였다. 1970년대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노인문제를 가족정책에 다루면서 가족정책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었다.

<그림1> 가족정책 영역의 확장



가족정책에 대하여 캐머만과 칸은 “정부가 아동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안된 공공정책이며, 이들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나 뚜렷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이라고 하였다(Kamerman & Kahn, 1978). 그들은 명시적 정책과 묵시적 정책으로 전자의 경우 가족원, 개인, 개인의 가족 역할 또는 전체로서의 가족 단위를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즉 인구정책,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 일하는 부모를 위한 고용관련 급여, 모자보건정책, 아동보호정책, 주택정책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지 않으나 다른 정책영역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정책, 연금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만약 소득세를 높일 경우 저소득 맞벌이가족에 있어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정책을 정책분야, 정책도구, 정책의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정책분야로서는 법과 다양한 소득지원제도와 보호서비스 등의 제도로써 접근을 시도

하고, 정책도구로써는 다른 사회정책의 목표를 의미하였으며, 정책의 관점은 사회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으로 이민정책이나 산업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Kammerman, 1995).

<그림2> 캐머만의 가족정책

<p>명시적 목시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가족정책 - 소득보장/전이정책(사회보장, 조세, 사회보험, 공공수당, 자산조사, 가족수당), 가족 관련 법(결혼, 부양, 이혼, 별거, 입양, 위탁, 양성평등, 학대바는 아동과 성인 치료 등), 아동보호서비스(의무교육, 데이케어, 유치원, 유아원 등), 고용 관련(급여, 수당), 개인적 서비스(위탁 프로그램 등), 모자 보건, 정책 등 • 묵시적가족정책 - 다른 정책으로 부터 영향파생 가족정책이 교육, 무역, 문화, 군사, 소비자 업무 등에 영향을 끼침
<p>정책분야 정책도구 정책기준/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야 - 가족법, 소득이전(아동/가족수당, 출산급여 등), 아동보호서비스 부양가족소득세 감면 등 • 정책도구 - 가족정책을 통한 출산을 제고, 가족정책을 통한 돌봄서비스 공공화 • 정책관점 - 사회 정책에 있어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고려 하는 입장

2) 가족정책의 전개

가족정책의 범주는 앞서 살펴본 <그림1>에서 이미 인구감소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유럽에서부터 대가족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재분배(가족수당, 소득조세정책 등)와 인구계획과 관련하여 시작하였다. 아울러 전쟁으로 인한 고아, 빈민, 장애, 노인, 무의탁자 등 요부양가족에 대한 지지와 대리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공공 정책으로 수용하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가족 정책이 문제중심, 요보호가족에서 국한되었으나 최근 정책대상의 관점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되고 복지 영역의 확장으로 특정 가족 지원에서 벗어나 법적, 생물학적그 사회적 관계에 토대를 두고 생활현실로 존재하는 모

든 가족을 하나의 정책단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부터 취업모나 가정주부를 위한 사회보험, 아동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급여, 취업모를 위한 지지 서비스, 일반 여성의 사회보장대우와 소득 조세내의 변화, 고용에 있어 파트타임과 탄력적인 근무제 등 여성정책을 위한 정책이 가족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3. 부처별 가족정책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기존의 요보호 대상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정책 방향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통합적이고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와 요구에 따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이 있었는가?’ 그리고 ‘가족정책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수행되어 온 관행이 있다(장혜경 외, 2002). 가족을 집단으로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개별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며, 거시적 방법이나 미시적 방법 역시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매우 미미(변화순 외, 2004)하였기 때문이다.

가족관련 정책의 역사는 무엇을 가족정책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연구함에 있어 가족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시점을 2000년대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책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1950-60년대 부녀복지차원으로써 전쟁직후 과부, 고아중심사업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의 가족계획사업, 1980년대 가족법개정과 출산억제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으로써의 가족정책,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모자가정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체계 구축에 반하여 국가의 개인을 위한 복지 제공을 위한 미미한 역할(장혜경) 등으로

정책의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수를 조절하고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 청소년 성상담 등과 같은 문제 등을 다루는 소극적인 접근을 위주로 가족 그 자체를 중심 주제로 삼은 정책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았다(문현아, 2005).

앞서 논의하였듯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에 대하여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1990년대 후반이며, 저출산의 위기의식 속에서 가족정책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논의 없이 급조된 법안들 속에서 당, 정간, 부처 간 매우 상이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가족정책은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에서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별주의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선가정·후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 스스로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요보호자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요구가 발생할 때 가정을 우선 보호하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을 한다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변화는 가족의 변화 동시에 가져왔으며,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부터 가족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통합적인 가족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가족관련 업무를 담당할 주무 부서가 신설되었다.

가족정책의 정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어떠한 국가도 가족정책을 단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정책의 대상자를 가족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 수단, 급여 등의 군집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캐머만과 칸등의 군집집머만의 가족정책의 분류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군집집머만의 가족정책의 범위 분류에 있어서 명시적, 묵시적 의미의 분류와 더불어 보편주의의 입장을 보이는 광의의 가족정책, 잔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협의의 가족정책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변화순외, 2004).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보편적·예방적 가족정책, 국가·가족·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강화, 통합적 접근으로 가족정책의 체감도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목표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림3> 가족정책 비전과 목표



1) 가족정책업무 주관 부처의 변화

2001년 1월 여성 정책 기획·종합, 남녀차별금지·규제 등을 주요 업무로 1실 3국 11과로 여성부가 출범 하였다. 2004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보육업무가 이관되고 2005년 3월 가족업무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되면서 같은 해 6월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업무 이관에 따른 가족정책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업무와 함께 보

육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신장과 함께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족공동체를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2005. 3. 24)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007년 11월 가족통합팀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가족정책 수립·조정·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가족 및 비보육정책 기능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1실 2국 13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초기 1948년 보건, 후생, 노동, 주택 및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부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후 1949년 국민보건, 위생, 위정, 방역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부가 신설되고 1995년 다시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구호, 원호, 후생, 주택,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보건사회부가 설립되었다. 1994년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영유아보육 제외),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개편하였다. 그 후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유아 보육 포함)·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체제에서 직제 개정을 통해 가족정책관을 신설하고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 정책과 등 3개 과를 신설 가족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별 가족으로는 한부모가족, 취약가족,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가족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표1>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관련 부서 업무(2009.6.현재)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정책과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3. 가족 관련 법령의 관라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6.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7.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및 가족 백서의 발간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9. 가족 관련 단체의 지도 및 감독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11.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12.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13.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 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4.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가족서비스 지원 15.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관한 인식 개선 16.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 다.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조성 지원 라.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 및 관리 17. 보건복지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18. 가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 19.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20.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1.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1. 가족 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2.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시책의 추진 3.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4.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 5. 취약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6.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비 지원 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마.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바.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7.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 아동의 지원 및 관리 8.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0.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수립 나.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분석 및 대책 수립 다. 다문화가족지원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라. 중앙정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 마. 외국인정책위원회 결혼이민자지원 실무분과위원회의 총괄·운영 바. 다문화가족지원 민간 협력사업 추진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4.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5.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8.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9.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나.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원 다. 결혼중개업 등록·신고의 관리 10.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비교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족친화제도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크게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항 ‘가족친화적 환경조성’⁵⁾에 근거하고 있다.⁶⁾

<표2> 여성부의 가족친화제도 주요 내용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관련 영상물 제작 등 가족문화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공모(2005/10-12) - 아버지 출산휴가제 관련 토론회 등 5개 사업 예산지원 · 가족친화 교육 영상물 제작 · 가족친화 기업 관련 홍보(TV, 일간지, 라디오 등) · 가족친화 기업모델 및 우수사례 연구 및 발표 · 가족 친화 교육 강사풀 운영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가칭)제정 추진 연구 · 가족친화 기업 사례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간담회 (2005. 12. 8/11. 30) · 가족친화 마을환경 개념에 관한 연구 (2006. 7월) · 가족형 모델 개발 (2006. 11월)

가족친화제도는 2005년 8월 정책고객대상 가족친화 직장문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05년 가족문화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98,4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실시 계획은

- 5)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 여성가족부 투명정보공개 참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조성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추진성과가 낮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가족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기능강화 지원사업은 가족정책 전달체계(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 전국 확대, 취약 계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 사업, 위기가족역량 강화지원(미혼모부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제결혼중개 과정의 체계적 관리,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민간 위탁 사업)은 가족친화경영 도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가족친화제도 수준 측정,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지속 추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부처의 성격에 따라 가족정책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직장과 마을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였다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크게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의 경우 2가지 사업은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으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 위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2006년 개발된 가족친화지수(FFI : Family Friendliness Index)⁷⁾를 활용하고 있으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사회문화조성, 가족여가문화촉진제도,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등 지표를 설정하여 친화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 대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인식제고와 직장환경 조성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결국

7) 가족친화지수는 2006년 여성가족부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여성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정책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여전히 보편적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정책적 수요가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은 고민과 논의 속에서 출발하였음에도 결국 현장에서 추진되는 정책 역시 요보호가정 혹은 취약가정 등 개별가정을 대상으로 단편적이고 일회성 중심의 가족정책과 얼마나 많은 차별성을 띠고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가족정책 변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

1. 한국가족의 변화⁸⁾

1) 가족의 변화

① 가족 규모의 변화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로 가족규모의 축소와 세대구성의 단순화로 다양한 가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 평균가구원수 변화 : 5.0명('75) → 2.9명('05)
- * 1세대 가구 급증 : 8.3%('80) → 16.2%('05), 3세대 가구 : 16.5% → 6.9%
- * 가족형태의 다양화 :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 * 한부모가구 증가 : 889천 가구('90) → 1,042천 가구('05)
- * 국제결혼 건수 증가 : 4,710건('90) → 43,121건('05)

<그림4> 가족 형태별 변화



출처 : e-나라지표

8) 한국가족의 변화와 정책은 2006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가족정책이 처음 대두됨에 따라 2006년 초기 정책 자료를 우선 제공하면서

② 가족 기능의 변화

고용불안정, 양육·교육비 부담, 개인중심의 가치관 확대 등과 함께 만혼화, 결혼 기피, 출산 기피 등 재생산 기능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와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 합계출산율 : 4.53명('70) → 1.08명('05) → 1.19명('08)
- * 평균초혼연령 : (남) 26.4세('85) → 30.6세('04), (여) 23.4세 → 27.5세
- * 자녀양육 및 교육기능의 약화 : 자녀 양육·교육 관심 ↑, 자녀양육·교육기능 ↓
(원인:사회의 다원화·전문화, 가족시간의 부족)
- * 가족복지기능의 약화 : 여성의 취업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 돌봄 공백

<표3> 합계출산율(2001~200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생아 수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합계 출산율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③ 가족 가치관의 변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으로 결혼관·자녀관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또한 외형상의 부부중심, 소가족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가부장적 가치관의 변화 지체에 따라 세대간 부양의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가족정책의 새로운 요구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인 재생산과 인적자원 개발 및 가족복지 수행이 가족해체로 인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 사회활동

증가와 소가족화로 만성적인 ‘기능적 과부하’에 직면함에 따라 여성에게 전담되어왔던 돌봄기능을 공공의 역할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여성과 젊은층의 가족형성 기피에 따른 혼인율감소, 저출산 등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해체 증후군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홀벌이모델에서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됨에 따라 남성가장에게 단독부양의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기업 등 사회 환경의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역시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제8781호)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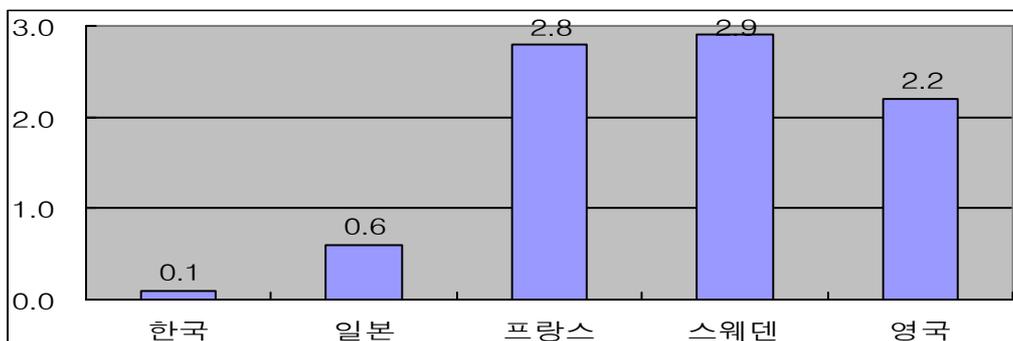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시정책의 조건을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가족정책의 미흡으로 빠르게 돌봄기능이 약화되고 가족지원망의 해체가 보편적 가족의 문제로 등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5> GDP 대비 가족분야 재정지출율

(단위:%)



또한 사회참여 및 돌봄 경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동양육 및 노인부양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개선 및 공급 확충을 요구 하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와 달리 성인지적 가족정책 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미성숙한 실정으로 호주제 폐지, 모성보호법 정비 등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어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의 생활문화로의 확산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직장·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다양한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로 남성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이용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⁹⁾.

4) 가족정책의 방향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가 존중, 보장되는 가족문화 조성을 통해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간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가족의 다양성 인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9) 2009년 1.9%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육아휴직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직자의 80%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9.6%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전히 양육과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한국일보. 2009. 6. 2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6/e2009062317391393760.htm>)

마지막으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조정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하는 것으로 우선 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 간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과 가족정책과 개별 사회정책과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가족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가족 및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5) 지자체별 가족정책¹⁰⁾

① 서울특별시 - 여행프로젝트

서울특별시는 여행(女幸)프로젝트, 보육프로그램, 출산장려 및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4>서울특별시 - 여행프로젝트

사업명	세부사업
돌보는 서울 (13개)	영유아 플라자 설치, 보육시설 배상보험 지원, 동청사 등을 활용한 공공 보육시설 확충, 공공시설내 양육지원시설 설치,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강화, 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운영, 소외된 한부모가족“문화체험”기회제공 장애인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시행, 학교급식도우미 지원, 보육도우미 운영
일 있는 서울 (5개)	맘프러너 창업스쿨 등 여성창업 지원, 모자가정을 위한 세제개선 추진 여성직업 훈련생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공무원 탄력근무제 전면 실시
넉넉한 서울 (3개)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음악회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실시
안전한 서울 (1개)	육아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정보 SMS 문자서비스 제공
편리한 서울 (2개)	유모차 개찰구 이용편의 증진, 가족과 함께하는 탐방코스 프로그램 확충 및 홍보

10) 지자체별 가족정책은 지자체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사 작성하였다.

<표5> 서울특별시 - 보육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보육 기반 강화(4개)	공공보육시설 확충, 서울키즈센터 건립 아토피 아동을 위한 친환경어린이집 설치·운영 재가아동을 위한 영유아플라자 설치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충 (3개)	학부모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선택권 강화 장애아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육평등권 실현 보육중인 아동 배상보험 단체가입으로 안심보육 실현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투명성 강화 (3개)	보육료 지원확대로 학부모 부담경감, 보육시설 지도점검 체계 강화 보육사이버플라자 구축·운영

<표6> 서울특별시 - 출산장려 및 지원 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임신지원 (5개)	철분제 지급,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직장인 임신부 토요일료 임산부 산전·후 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지원 (3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양육비용경감 (3개)	보육료 지원, 양육지원 수당,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교통비지원 (4개)	시내버스 요금할인, 지하철 요금할인, 임산부/유아 동승차량요일제 적용제외,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주택지원 (2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육아인프라구축 (3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프라자 설치, 아이돌보미 사업

<표7> 서울특별시 - 다문화가족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안정적인체류지원 (2개)	멘토링사업 실시(시센터), 다문화 가족 관련 포럼 실시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e-배움」 사이버교육 실시 소식지 「우린 한가족, 행복배달부」 발행, 통역인력풀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실시
자녀의 교육 및 생활 적응지원 (1개)	아동양육지원사업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4개)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추진 민간단체 지원 구별 특성에 맞는 생활정보지 발행, 이주여성쉼터 운영 다문화가족 문화공연 지원사업(시센터)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개)	가족교육 확대 실시, 다양한 가족 한마당
탈법적인 국제결혼방지 및 당사자 보호(2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표8> 서울특별시 - 한부모가족지원 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2개)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양육모 지원
저소득가정 지원 (16개)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자녀학용품비지원 자녀교통비 지원, 보육료 지원, 유치원 교육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존 다가구주택 임대 및 전세자금 대출, 임대료 보조지원 임대보증금 융자, 모자보호시설운영,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미혼모시설운영, 직업전문학교 우선입학, 여성발전센터 일반직업교육과정 우선이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5개)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②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가족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 출산장려시책 적극 개발 추진,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보육의 공공성장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5개 영역으로 업무를 분장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9> 부산광역시 - 가족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건강한 가정 구현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부부의 날」 기념축제(5월), 부산 가족놀이축제(10월) 개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방문 교육(월1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지원 (3개)	시설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 시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거점 기관 시범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개)	고교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운용 재가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사업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표10> 부산광역시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명	세부사업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 (3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관리
조화로운 정착 지원 및 생활 공감시책 추진 (4개)	맞춤형 다문화 가족 교육 실시, 사회적 편견 해소 시민교육 강화 방문교육 및 아동 양육 서비스 확대,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
경제·사회적 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 (4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전문 직종 양성 및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고국 방문 지원

<표11> 부산광역시 - 출산장려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다자녀가정 우대제 발전적 운영 (3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카드 유효기간 및 참여업체 협약(3년) 만료에 따른 일제갱신(7~10월)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지속 발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개)	출산축하 지원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날(11월 1일) 기념행사 출산장려 라디오 캠페인 전개 「미혼남녀 만남행사」 2회, 출산장려 홍보대사 위촉·활용
구·군 및 기업체 출산장려 정책 참여 활성화 (2개)	구·군 저출산대책 워크숍 개최, 구·군 출산장려정책 경진대회 개최 기업체 출산장려정책 참여 확대
출산장려 시민운동 전개 (3개)	“출산장려 및 가족가치관 확립” 캠페인 전개 “출산장려 홍보단” 운영, “손주애”운동 전개

<표12> 부산광역시 -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개)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시설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 (4개)	가정위탁지원센터·저소득층아동 결연기관 지원, 가정위탁그룹홈아동양육비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 (5개)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요보호아동 자산형성,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확대, 아동복지교사 파견
아동보호·학대 예방사업 추진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쉼터 운영, 심리치료 실시 등 아동학대 신고·접수, 처리, 예방교육, 캠페인 개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1개)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에 중식제공(연간 90일, 1식 3천원)

<표13> 부산광역시 -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시책

사업명	세부사업
공보육 기반 조성 (3개)	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시설 공보육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부모 육아부담 경감 (4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둘째자녀부터 특별보육료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 강화 (3개)	야간보육 230개소, 24시간 보육 15개소, 영아시설 전문보육도우미 확대 취약보육시설(영아·장애아 등) 환경개선
시설 종사자 능력향상 및 운영 지원(4개)	민간·가정시설 보육교사 복지수당,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 지원, 차량운영 및 교재교구 지원
보육지원센터 건립 (1개)	보육관련 종합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 수행(2월 착공)

③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출산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 지원, 정서함양프로그램·자립지원 기금운용, 보호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14> 대구광역시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출산지원 (19개)	출산축하금 지원, 365양육 특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교육비 지원,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만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10%, 산모·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시험관야기 시술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및 상담 출산·양육정보 및 상담서비스, 입양아 양육수당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장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 지원 (7개)	자녀 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모·부자 가정 가계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 세대주 건강진단 실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 복지자금 대여
모·부자가정 정서함양 프로그램운영 (3개)	모자가정 가족사랑 캠프(엄마와 함께 행복 만들기) 함께 걷어가는 부자가족, 한부모가족의 행복프로젝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기금운용 (2개)	대학생 입학금, 긴급생활안정 지원
보호시설 운영 (4개)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심리적상담 및 신체적 치료) 미혼모시설(미혼여성이 임신, 출산한 경우 → 안전 분만과 심신 회복)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보호 (1개)	소년소녀가정 생계비 지원 및 상담, 아동급식지원

④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출산·양육, 모·부자 복지, 모·부자선도사업, 아동의 건전육성 등을 가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15> 인천광역시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출산·양육 (12개)	인천광역시 출산·양육 후원 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저출산 극복 시민 및 공무원 교육,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조성 캠페인 전개 임산부 산전관리 및 출산준비물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무료분만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임산부 배려 10계명’ 다중이용시설 광고 다자녀가정 우대제 ‘아이모아카드’시행 및 지원혜택 확대 추진
모·부자복지 (7개)	자녀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중·고생 학습비 및 교통비 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건강검진비 및 질병치료비 지원, 기술교육생(3개월 이상 교육) 지원금 지급
모자보건선도 사업 (3개)	중년기 여성관리, 미숙아 건강관리, 영유아 성장관리
아동의 건전육성 (10개)	아이돌보미 지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및 아동학대·안전예방 사업 실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추진,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보육정보센터 운영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저소득층, 장애아, 두자녀 이상, 입양아 등) 보육교수 처우개선, 보육교수 교육 내실화,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시설확충

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정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아동양육지원, 출산장려정책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16> 광주광역시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6개)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지역적 특수성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홍보사업 추진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 구축 등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가정지원 (7개)	고교생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수당 지원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모자보호, 모자자립, 미혼모시설, 양육모그룹홈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7개)	한국어·가족·문화이해·정보화 등 교육 가족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가족 자녀보호 결혼이민자 자조 집단 육성 및 지도자 양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사업,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아동양육지원 (16개)	아이사랑카드 발급, 장기질환 및 극빈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 사회적응훈련 및 자녀캠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영유아(0~6세) 예방접종, 출산용품 지원, 모유수유실 운영 셋째아 재가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유아교육비 감면
출산장려정책 (12개)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비 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보충영양사업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교실 운영 출산축하 SMS 발송, 쌍둥이 출산축하금,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만6세 이하 대중교통 무료, 공공시설이용 감면서비스 확대 전기요금 감면

⑥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임신·출산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자녀양육 및 보육인프라 구축,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한부모가족지원 등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17> 대전광역시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임신·출산 지원 (8개)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임산부 영양제 공급,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산산프로그램 운영
다자녀가정 지원 (7개)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후 「자녀 양육도우미」 지원 「꿈나무 사랑카드」 카드 발급,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지원금, 셋째아 보육료 지원, 공공시설 등 이용시 할인
자녀양육 및 보육인프라 구축 (6개)	저소득가정 영유아(0세~4세)보육료 차등 지원, 만 5세아 무상 보육,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실시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5개)	대중교통시설 내 「임산부 좌석제」 설치, 대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임산부 당직제외 및 승용차 요일제 면제,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배우자 출산 간호휴가제 도입
한부모가족 지원 (4개)	고교생 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⑦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출산지원, 보육지원, 여성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립지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18> 울산광역시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출산지원	셋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울산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불임부부 시술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장애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급(울주군) 둘째아 이상 출산용품 지원(남구, 울주군), 풍진·기형아검사 산모용품 및 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프로농구 관람 할인 임신 및 출산기구 현대자동차 구입시 할인
보육지원 (6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울주군)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출산농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
여성사회안전망 확충 및 자립지원 (4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지원 미혼모 발생예방 및 사후 자립지원, 미혼모 시설, 양육모그룹홈, 상담·교육 등

⑧ 경기도

경기도는 위기가정·취약계층지원,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표19> 경기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위기가정·취약 계층지원 (9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위기가정 돌봄 119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저소득층 자녀(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보육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 재가 만성질환자 방문 가정간호사업 건강 취약가구를 방문 질병별, 특성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15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0세아 전용시설 운영,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 취업여성자녀 보육 지원 장애아·영아·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경기보육주간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교재·교구비 및 농어촌지역 등 차량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참여 지속추진,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원활한 교사수급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 보육시설 우수프로그램 발굴·보급, 실기발표회 보육행정의 수요자 참여기회 제공
다양한 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모의 야근·출장 등 긴급·일시적 아이 돌봄 서비스 필요가정에 돌보미 파견,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강화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8개)	저출산·고령화 대비 종합계획 수립·추진 결혼문화 네트워크 구축(적령기 결혼트렌드 유도) 다자녀 가정 우대 “경기 i PLUS카드”사업 실시 『경기 아이플러스 페스티벌』 개최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토론, 연찬회, 홍보물 제작 배부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사업

⑨ 강원도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건전가정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 보호 아동 권리 증진 및 건전육성 지원, 보육지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20> 강원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7개)	출산양육지원조례 시행, 「반비다복카드」 참여기업 확대 산모·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가정 보육료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건전가정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증진 (7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운영, 결혼이민자 가족 육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지원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건전육성 지원 (9개)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보호수준 향상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보호·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 사업 활성화 어려운 아동에 대한 후원자 결연사업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강화 보호아동 정서안정과 조기 자립정책 지원 아동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 제공 급식기관 기능보강, 위(드림)스타트사업
보육지원 (6개)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및 공보육 기반조성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수준 높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⑩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행복한 가정 실현, 아동복지 실현 및 보 육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21> 충청북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4개)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 모집 확대, 둘째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일수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활동 강화
행복한 가정 실현 (12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캠프 개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복지자금 대여 공공기관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부부의 날 기념식(5. 21일) 및 부부주간(5월 4째주) 설정 운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회문화적응 및 사회통합시책 지속실시 가정방문,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추진
아동복지 실현 및 보육환경 조성 (11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정보제공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①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성평등문화확산,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 한부모가족지원, 가족돌봄지원, 보육으로 업무를 분장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22> 충청남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4개 중 1개)	가정과 경제활동을 양립할 수 있는 재택 프로그램
성평등문화확산 (2개)	가족구성원이 평등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기반조성,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프로그램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 (4개)	부부교실, 고부교실, 예비신부교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위기가족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 주기별·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사업명	세부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4개)	한부모가족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족 가장의 직업능력개발 등 경제활동 프로그램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사업(문화체험, 자조 및 집단 프로그램) 모자교실 등 한부모가족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 (4개)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상담, 교육정보 제공 여성결혼이민자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 및 체험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생활 및 한국사회적응 프로그램
가족돌봄 지원 (3개)	위기가정 상담도우미, 육아 및 출산도우미 지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간병 도우미 파견
보육 (3개)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사 인성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초임 보육교사 오리엔테이션 등 소양교육

⑫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다문화가정 지원, 한부모가정지원,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가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23> 전라북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 (6개)	저소득가정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가정 자활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정 중·고생 수학여행비 지원, 저소득가정 고교 새내기 교복 구입 지원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저소득가정 자녀의 대학학자금 및 글로벌 해외 연수 기회 우선 부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3개)	저소득층의 노후·개량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확대 다가구주택매입임대 및 전세 임대 지원,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3개)	다문화지원센터 확대,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기능 강화 국립 농업생명 청소년 수련원 건립
한부모가정 지원 (13개)	자녀회비 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지원, 복지자금대여 자립금 지원, 월동비 지원, 피복비지원, 자녀대학입학금 지원 자녀참고서대 지원, 자녀교통비 지원, 자녀학용품비 지원 자녀 교복비 지원, 모자시설 운영 관리, 건강가정지원 센터운영지원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 (5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인프라구축, 보육기능보강사업 저소득층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보육시설 지도점검

⑬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의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24> 전라남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출산 및 양육 지원 (7개)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시설 지도점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7개)	자녀교육비 고등학교 재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아동양육비 10세미만 자녀 지원, 생활안정금 한부모가족 전세대 지원 대입자녀 학자금 대학입학생 지원, 아동양육비(도비) 10세미만 자녀 지원 중고생교통비(240일) 중고생재학자녀 지원, 장애인 한부모가정 생활용품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기가정긴급지원 (6개)	생계지원, 주거지원,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연료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복지시설 운영 (4개)	모자 보호시설 운영,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⑭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 가족지원, 보육지원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25> 경상북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일자리 창출 (4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결혼이민자 원어민 교사 양성과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교육, 지역 맞춤형 사회적일자리 확대 여성결혼이민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및 방문교육 지원
가족 지원 (5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

사업명	세부사업
보육 지원 (33개)	보육돌봄서비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장애조기진단 사업비 지원 다문화가정자녀보육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부모교육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순회교육 지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정보센터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양육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주간기념행사 지원, 입양기관 운영 해외입양아동 고국방문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⑮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출산·보육지원, 건강가정구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결혼 이민자가정 지원, 복지시설 운영을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26> 경상남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출산·보육 지원 (4개)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산전후휴가 부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모유수유 캠페인
건강가정 구현 지원 (10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정의 날 기념 행사 부부교육·각종 캠페인 전개 등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 이혼 줄이기 평등부부 교육, 이혼예방 및 한부모가정 교육 가족사랑 캠프지원,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 지원 아이 및 장애아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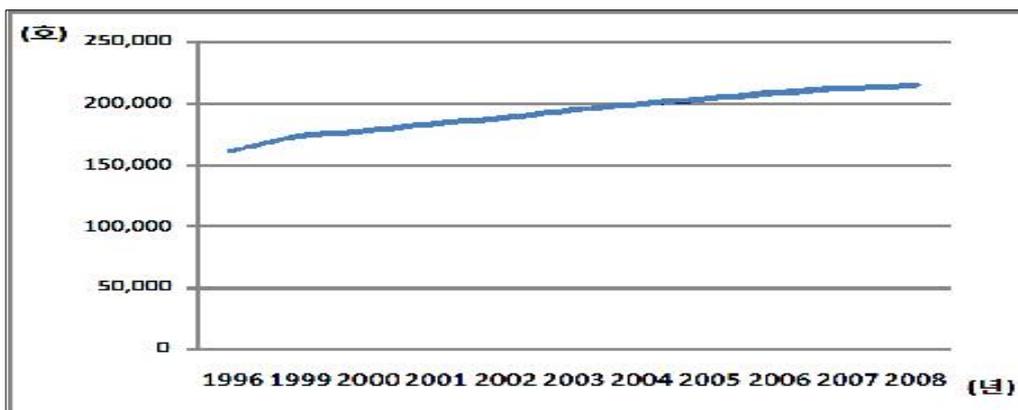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7개)	고등학생 학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자립 지원비 지원 가족 기능 취득직업훈련비 지원, 월동 연료비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비 지원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6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임신·출산 지도 서비스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학습지원, 다문화가족 대축제
복지시설 운영 (4개)	모자 보호 시설, 모자 일시 보호 시설,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변화

우리사회가 6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이래 핵가족화 되는 경향을 겪으면서 90년대 접어들면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으로 오히려 핵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 역시 유사한 가족구조의 변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6> 제주특별자치도 가구수

(단위 : 호)



통계청 : 주민등록인구통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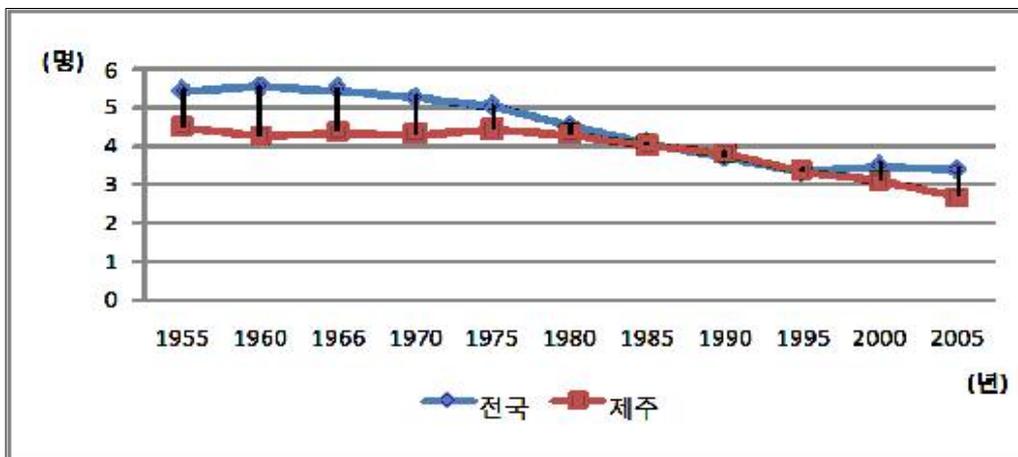
<표27>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가구원수

(단위 : 명)

년 구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전국	5.45	5.56	5.49	5.27	5.04	4.55	4.09	3.71	3.34	3.5	3.4
제주	4.50	4.27	4.38	4.32	4.44	4.32	4.04	3.82	3.36	3.1	2.7

자료: 1955~1995. 이창기,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각년도

<그림7> 전국과 제주의 평균 가구원수 비교



한국사회의 가족이 직계가족의 전통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를 하였다면 제주지역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핵가족의 성격이 우선 강하였다는 점이다. 즉,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가족은 ‘밖거리, 안거리’로 불리며 한 울타리 안에 조부모세대와 부부 자녀세대가 각기 서로 따로 집을 두어 생활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핵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직계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취사와 경제생활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핵가족 성격이 훨씬 강하였으므로 다른 지역과 다른 분가주의와 강한 독립생활을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제주지역의 가족이 전국과 비교하여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과도 중요한 연계가 된다는 점이다.

<표28> 제주특별자치도 가구형태별 인구수

(단위 : 가구)

구분	일반가구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미상
1995	12,647	657	2,700	7,676	1,614	0
2000	13,481	801	2,997	6,661	3,022	0
2005	16,489	1,008	3,682	6,559	5,240	-

<표29> 제주와 전국 가족(가구)형태 변화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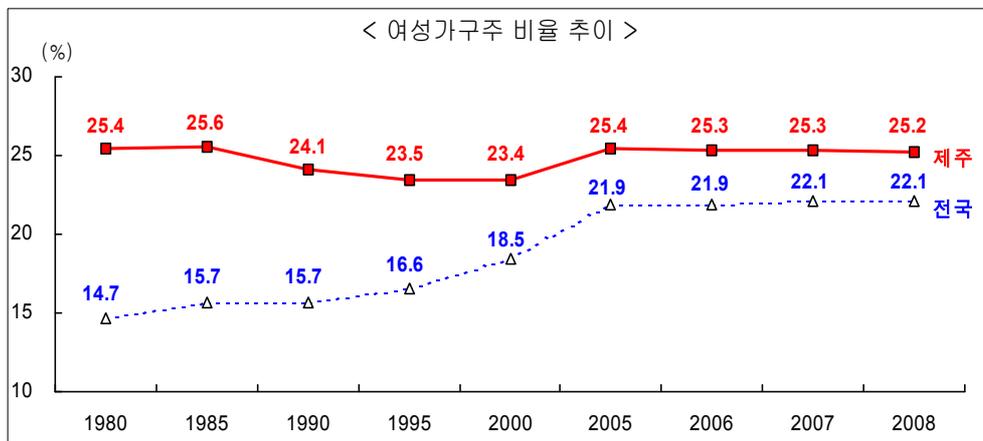
가족(가구)형태		1990		1995		2000		2005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세대	부부	5.7	8.3	9.1	10.8	11.7	7.9	14.1	14.2
	기타	2.5	2.4	2.1	1.8	2.2	2.1	2.2	2.0
2세대	부부+자녀	49.3	51.9	48.2	50.4	45.7	58.9	40.4	42.2
	한부모	10.0	7.8	7.1	6.1	6.8	5.3	7.0	6.8
				1.6	1.3	1.8	1.3	2.2	1.8
	부부+양친	0.1	0.2	0.1	0.2	0.2	0.2	0.1	0.1
	부부+한부모	0.4	0.6	0.6	0.7	0.7	0.8	0.7	0.8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1.1	1.7	0.8	1.0	0.8	1.0	0.5	0.5
	조부모+손자녀	5.0	4.0	0.3	0.3	0.5	0.3	0.5	0.4
	기타			3.6	3.3	3.4	3.2	2.8	2.8
3세대	부부+자녀+양친	0.9	1.7	0.8	1.3	0.9	2.2	0.7	0.9
	부부+자녀+한부모	5.6	6.7	4.5	5.5	3.8	7.1	2.7	3.5
	기타	4.5	3.8	3.5	3.0	3.6	4.1	3.0	2.4
4세대 이상		0.3	0.3	0.2	0.2	0.2	0.3	0.1	0.1
1인 가구		12.7	9.0	15.8	12.7	16.5	5.0	21.4	19.9
비혈연가구		1.8	1.4	1.6	1.4	1.4	0.9	1.5	1.4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지역의 세대별 가족변화를 살펴보면, 1세대 가족의

경우 8.2% → 11% → 13.9% → 16.3%, 2세대 가족은 65.9% → 62.3% → 59.9% → 54.2%, 3세대 가족은 11.0% → 8.8% → 8.3% → 6.4%로 변화함으로써 2세대와 3세대 가족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가구의 경우 14.8% → 17.6% → 18.1% → 23.0%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의 가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이성애 핵가족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족과 1인 가구, 비혈연가구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 형태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8>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



자료 : 제주통계사무소, 『2008 통계로 본 제주여성의 삶』

전국과 제주도가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가 전국과 상이한 경향과 함께 복잡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역사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특유의 인구과정이 투영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정리하면 제주도의 가구구조는 전국의 가족구조와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특히 편부가정), 부부단독가족, 조부모가족, 1인가구의 증가.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감소가 눈에 띄며 3세대 가족도 감소 경향보이고 있

다. 특이점을 찾는다면 전국과 비교하여 한부모, 조손가정,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3세대 가족의 비율이 낮은 편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제주지역의 가족이 갖는 장남 분가 풍속과 여성노인가구의 증가 등이 역사적 사건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특성 역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주 전통의 가족 특성이 사라지고 전국적인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혼인 추이는 1991년 전년대비 10.1% 증가 이후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96년 전년대비 10.5% 증가 이후 다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혼인이 차츰 감소하다 2005년과 “쌍춘년”인 2006년 일부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2007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30> 제주특별자치도 혼인 추이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332,090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제주	4,022	3,708	3,574	3,379	3,325	3,382	3,576	3,495	3,445
전년 대비	-9.1	-7.8	-3.6	-5.5	-1.6	1.7	5.7	-2.3	-1.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사무소. 『2008 통계로 본 제주여성의 삶』

이혼 추이는 ‘60년대 “베이비 붐”세대가 80년대 혼인을 하고 90년대 이혼을 경험하면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96년 939건에서 ‘97년 IMF를 겪으면서 경제 문제로 전년대비 18.8%인 1,116건으로 빠르게 급증하였다.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다 2003년 2,177건을 정점으로 다소 하향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감소와 연결해 볼 수 있다.

<표31> 제주특별자치도 이혼 추이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119,982	135,014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제주	1,763	1,721	1,962	2,177	1,777	1,663	1,613	1,561
전년대비	19.7	-2.4	14.0	11.0	-18.4	-6.4	-3.0	-3.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사무소. 『2008 통계로 본 제주여성의 삶』

<그림9> 제주특별자치도 혼인과 이혼추이(2000~2008)



2000년 이후 혼인과 이혼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혼인시기가 지나고 그들의 자녀가 혼인 당사자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결혼관이 일부 변화하였다. 즉,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고학력화, 결혼보다 일 중심의 가치관 확대로 결혼 기피 혹은 연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성의식의 개방에 따른 혼전성관계 증가, 비혼 증가, 미혼 모·부의 증가, 기존 혼인관계의 초혼남과 초혼녀 혹은 재혼남과 초혼녀에서 오히려 재혼여과 초혼남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혼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5년 수립된 「저출산·고령화대책 강화」, 2007년 「이혼숙려제 도입」 등 가족 형성과 해체를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 역시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으나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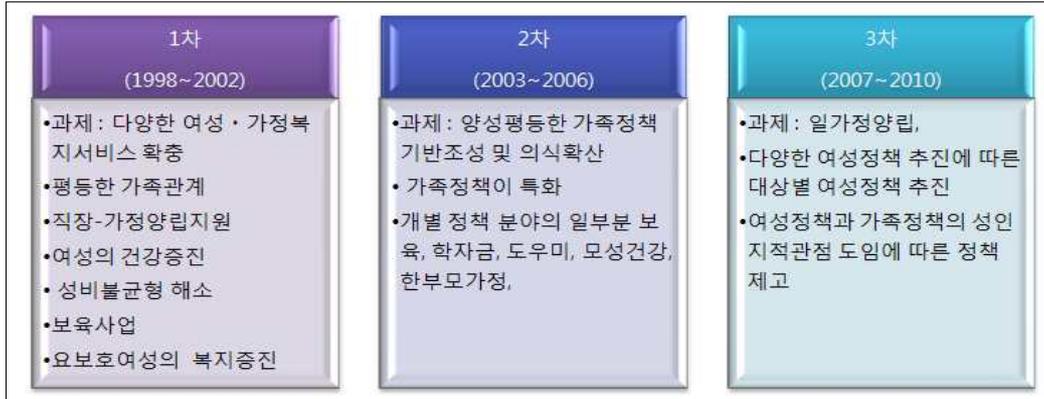
제주도의 여성정책은 크게 3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다. 1998~2002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6 제2차 제주도여성정책,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으로 시기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개별 과제를 등 3차례에 걸쳐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림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흐름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별도의 가족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여성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제2차 제주여성정책은 별도의 독자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여 일부 추진하였다. 제3차 여성정책은 저출산·고령화계획과 맞물려 일·가정 양립의 입장에서 가족정책을 연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1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 흐름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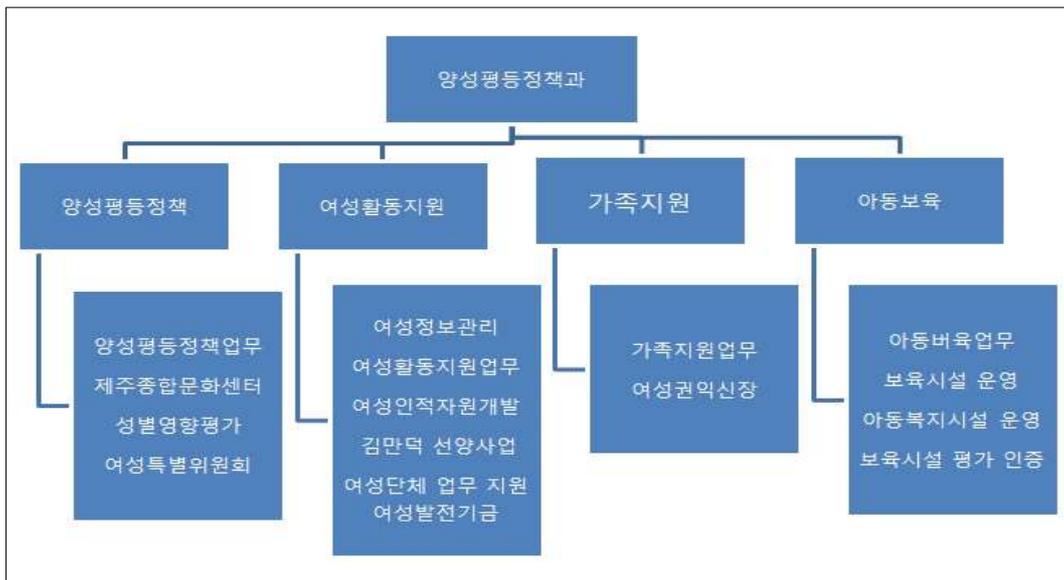
<표32> 제주특별자치도 - 가족정책

사업명	세부사업
여성의 사회경제적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6개)	여성 사회적기업 창설 지원 여성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우수 여성기업 홍보 사업장 내 근로자를 위한 탁아·수유시설 운영 지원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운영
출산친화적 사회 조성 (6개)	다자녀가정 우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자동차 구입시 지방세 감면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료 출산전 진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시행 민간의료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실시
아동보육 (10개)	무상보육 확대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확대 지원, 아이돌보미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시행 i - 사랑카드 제도 실시, 아동급식 지원 확대

사업명	세부사업
건강가족 육성 지원 (3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피해여성 보호, 여성폭력 예방 강화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10개)	고교생학비 지원,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학습비 지원,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학생 자녀입학금 지원, 월동준비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복지시설 운영 (4개)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기구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양성평등정책과의 가족지원계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로 제주시는 민간위탁, 서귀포시 직영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림1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 조직도



IV.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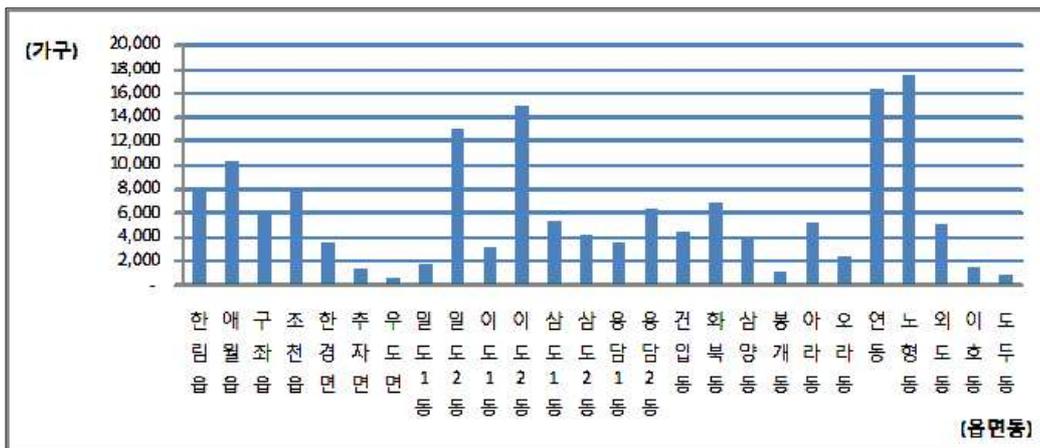
1.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의 2007년 인구는 281,576명으로 여성 281,812명, 남성 281,576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주민등록 가족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43개 읍면동으로, 2008년 현재 211,850세대¹¹⁾가 등록되어 있다. 제주시는 전체가구의 72%인 153,042세대, 서귀포시 58,80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10,000세대 이상은 노형동 17,435세대(11.2%), 연동 16,248세대(10.5%), 이도2동 14,862세대(9.6%), 일도2동 13,027세대(8.4%), 애월읍 10,264세대(6.6%)로 제주시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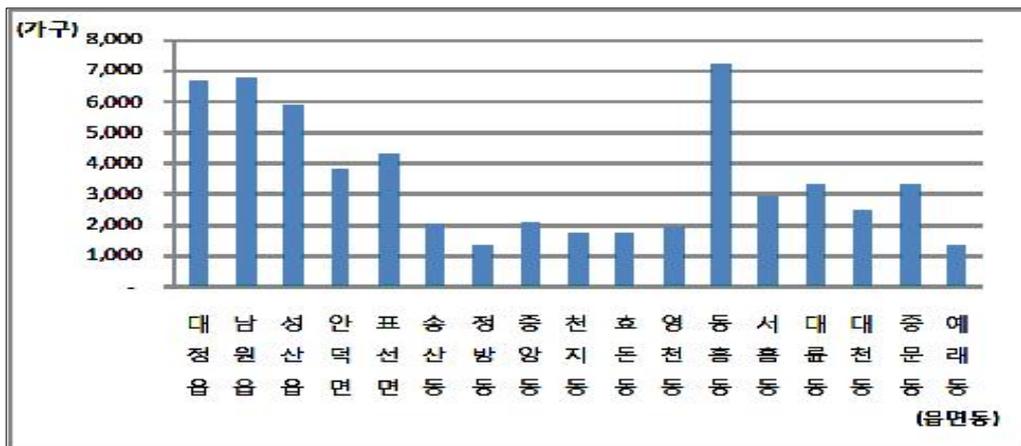
<그림13> 제주시 가구 분포



11) 2008년 제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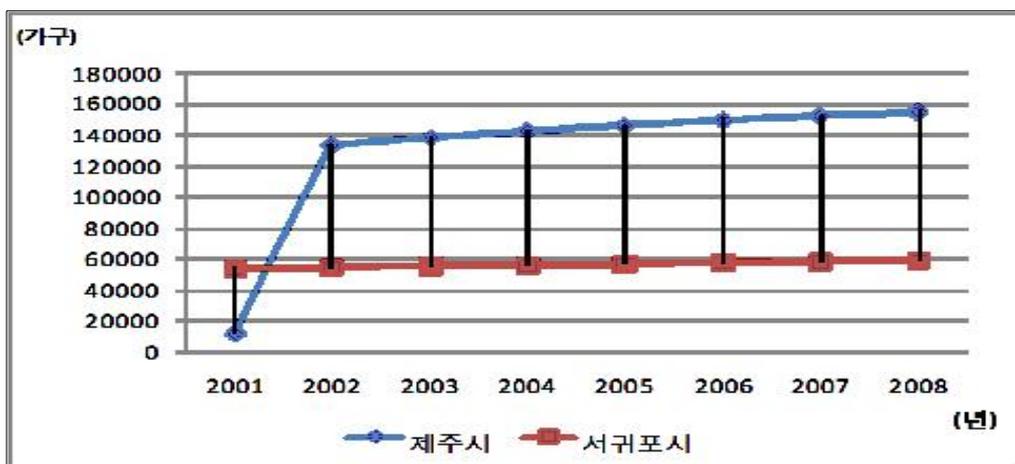
서귀포시의 경우 5,000세대 이상은 동홍동 7,192세대(12.1%), 남원읍 6,792세대(11.5%), 대정읍 6,697세대(11.3%), 성산읍 5,885세대(9.9%)로 서귀포시 전체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4> 서귀포시 가구 분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대변화는 서귀포시의 경우 가구증가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15> 제주특별자치도 가구변화 추이(200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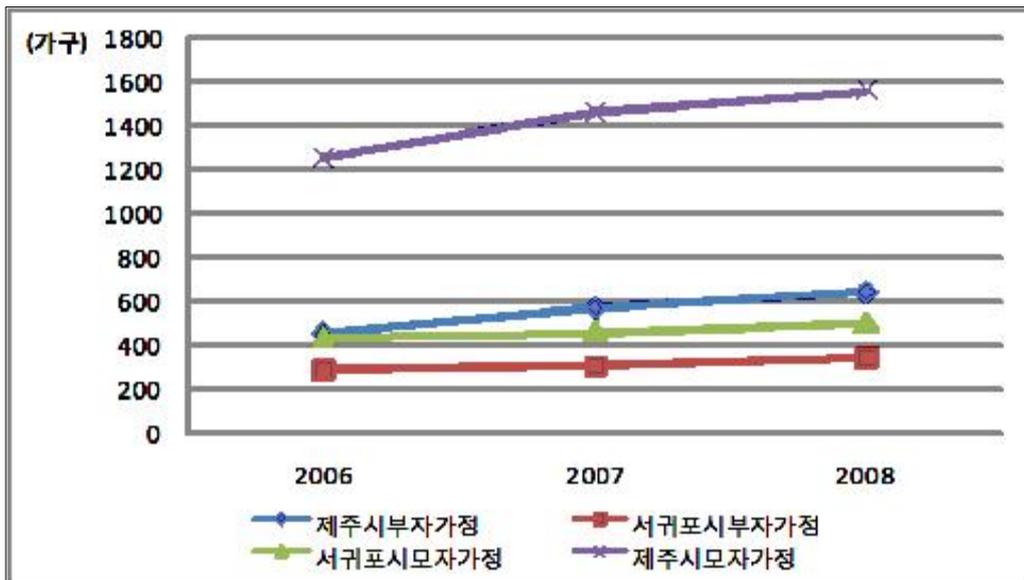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구 특성에 있어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33>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현황(2006~2008.12.31.현재)

(단위 : 가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
모자가정 (자녀수)	제주시	1,255(3,430)	1,464(3,909)	1,560(4,120)
	서귀포시	442(1,188)	463(1,241)	505(1,391)
	계	1,697(4,618)	1,927(5,150)	2,065(5,511)
	전년대비	-	13.6(11.5)	7.2(7.0)
부자가정 (자녀수)	제주시	452(1,293)	570(1,622)	643(1,728)
	서귀포시	292(806)	311(842)	343(940)
	계	744(2,099)	881(2,464)	986(2,668)
	전년대비	-	18.4(17.4)	11.9(8.3)

<그림16>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가정 증가 추이(2006~2008)



2) 조사설계 및 조사

조사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내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사의 경우 대부분 도시형 주거 지역을 조사함에 따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조사자가 직접 방문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성별의 인식의 차이 역시 비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34>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가구의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표본	500명
표집방법	가족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자료로 20대에서 40대로 연구자가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함
분석대상	응답이 부실한 41부를 제외한 459부를 최종 분석
예비조사	2009년 4월 27일~ 5월 1일
조사기간	2009년 5월 11일~ 5월 29일
분석방법	SPSS를 이용.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등 통계기법 사용

3) 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가구 일반, 부부관계, 가족에 대한 가치관, 노후생활, 자녀, 일과 가정, 건강과 여가, 가족정책 등으로 227개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35> 설문항목

분야	문제	조사항목
일반항목	거주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자녀, 가족형태, 경제활동형태	
부부관계	상태	유배우, 별거, 이혼, 사별, 기타
	시기	년, 월
	경로	배우자 만난 경로
	배경	집안 수준, 배우자 집안 특성,
	조건	배우자 선택 조건
	자금	결혼 비용 부담
	주거지	거주지 선택
	관계	부부관계 만족도(6개 문항)
	의사결정	자녀교육, 직장, 거주지, 생활비, 투자 및 재산관리, 여가결정, 시댁/외가방문, 용돈
	재산	재산 명의여부, 본인 소유 재산
	소통	의견 충돌시 해결 방법, 화목
	대화	대화정도, 대화내용
	싸움	싸움 정도, 싸움 당시 행위,
	갈등	부양, 제사, 형제자매관계, 배우자 형제자매관계, 생활방식,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분담, 소비활동, 습관
	상담	상담 경험 여부
	관계 유지	부부관계 유지 여부, 유지 이유
이혼	이혼 고려	
향후 결혼 의사	결혼 의향 결혼 하지 않는 이유	

분야	문제	조사항목
가족에 대한 가치관	가족 가치관	가족의 의미, 부양문제, 한부모가족, 비혼, 재혼, 입양, 양육, 가족부양, 홀벌이와 맞벌이, 친정과 시댁, 노후 대책, 출산, 대리만족, 육아에 따른 직장포기, 부모자녀관계 우선순위, 친지관계, 동거, 비혼모
노후생활	동반자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은 사람
	준비	노후 준비 여부, 노후 준비 내용
	생활	희망하는 노후 생활
	정책	희망하는 노후 정책
	경로당	경로당 이용 여부, 프로그램
	유산	상속방식
	부모와의 만남	부모와의 전화, 만남, 만나는 날
	지원	경제, 문제해결, 집안일, 병원, 여가
자녀관계	미취학자녀	미취학 자녀 연령, 무자녀 이유, 출산여건주간보육, 24개월 미만 보육, 보육방법
	취학자녀	취학자녀연령, 방과후 활동, 방과후 지도, 방과후 교육기관, 방과후 교육필요여부, 선호프로그램, 자녀에게 희망하는 가치관,
	돌봄	식사, 여가활동, 간병, 학습, 등하교, 의생활, 위생, 교육계획
	자녀지원	대학교육비, 대학원교육비, 용돈, 결혼비용, 결혼시 집마련 비용, 결혼한 자녀 생활비
일·가정양립	M형	결혼에서 자녀출산 시기 경제활동상태
	가사분담	가사분담정도, 일·가정양립
건강과 여가	건강	건강 정도, 정기검진유무
	여가	여가활동, 여가활동만족

분야	문제	조사항목
정책	가족정책	가족정책인지여부, 가족정책 종류, 정책 체감 여부, 정책 습득 경로, 정책기반,
	프로그램	자녀관계 상담 희망, 상담 여부
	정책과 직장 연계	보육시설, 보육비지원, 출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가족간호제도, 주5일제도, 가족관련제도 이용 여부,
	여성관련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인지, 노인학대 예방센터인지, 아동학대예방센터 인지, 주간보호인지 저소득 가정 보육 및 가사도우미 제도 인지 저소득 가정 직업훈련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 이용여부
	가족해체	예방정책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여성건강증진	건강증진을 위한 희망프로그램
	필요한 정책	시급한 정책, 희망 저출산 극복 정책
	사회활동	희망활동, 평생교육기관 이용 시 고려 평생교육 시 희망프로그램 여성단체 인지여부, 여성단체 희망사항
대중매체	대중매체	여성정책 보도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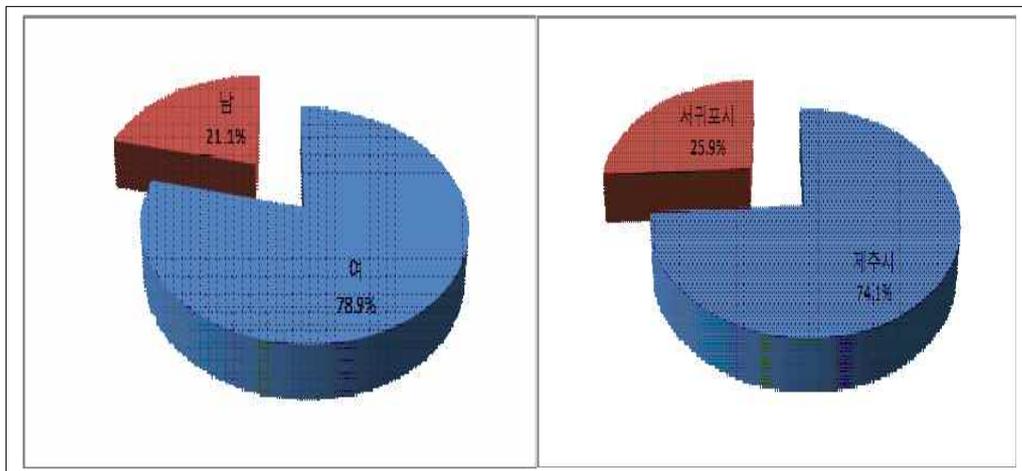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실태 조사 결과

1) 응답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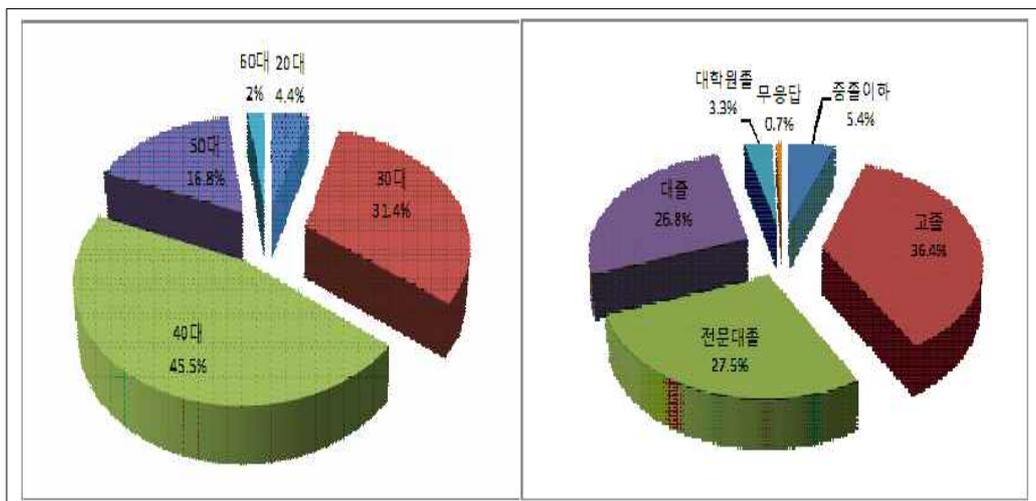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시를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

귀포시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주시 74.1%, 서귀포시 25.9%를 조사하였다. 성별은 여성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8.9%, 남성은 21.1%가 조사에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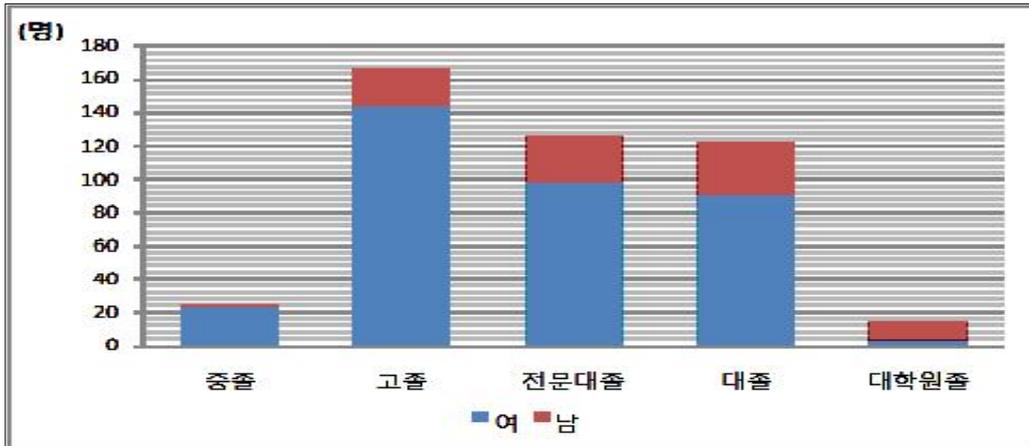
<그림17> 응답자의 성별과 거주지



<그림18>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



<그림19> 성별과 학력 분석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학력은 여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대졸이 34.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36>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범주형 특성		응답자수(명/가구)	백분율(%)
항목	구분		
거주시	제주시	340	74.1
	서귀포시	119	25.9
성별	여	362	78.9
	남	97	21.1
연령	20대	20	4.4
	30대	144	31.4
	40대	209	45.5
	50대	77	16.8
	60대	9	2.0
학력	중졸이하	25	5.4
	고졸이하	167	36.4
	전문대졸	126	27.5
	대졸	123	26.8
	대학원졸	15	3.3
	무응답	3	0.7

범주형 특성		응답자수(명/가구)	백분율(%)
항목	구분		
직업	전업주부	85	18.5
	사무직	75	16.3
	생산직	7	1.5
	서비스직	95	20.7
	판매직	18	3.9
	관리직	13	2.8
	자영·상공업	35	7.6
	전문직	70	15.3
	농업	20	4.4
	기타	12	2.6
	직업 없음	19	4.1
	무응답	10	2.2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98	21.4
	100~200만원미만	164	35.7
	200~300만원미만	72	15.7
	300~400만원미만	37	8.1
	400~500만원미만	25	5.4
	소득 없음	38	8.3
	무응답	25	5.4
자녀수	없음	40	8.7
	1명	74	16.1
	2명	243	52.9
	3명	87	19.0
	4명이상	10	2.2
	무응답	5	1.1
가족형태	혼자 거주(단독가구)	35	7.6
	부부 거주(부부가구)	57	12.4
	부부+미혼자녀(핵가족)	305	66.4
	조부모+부부+미혼자녀(확대가족)	44	9.6
	조부모+한부모+미혼자녀(확대가족)	1	0.2
	한부모+미혼자녀(핵가족)	17	3.7
경제활동상태	홀벌이	212	46.2
	맞벌이	247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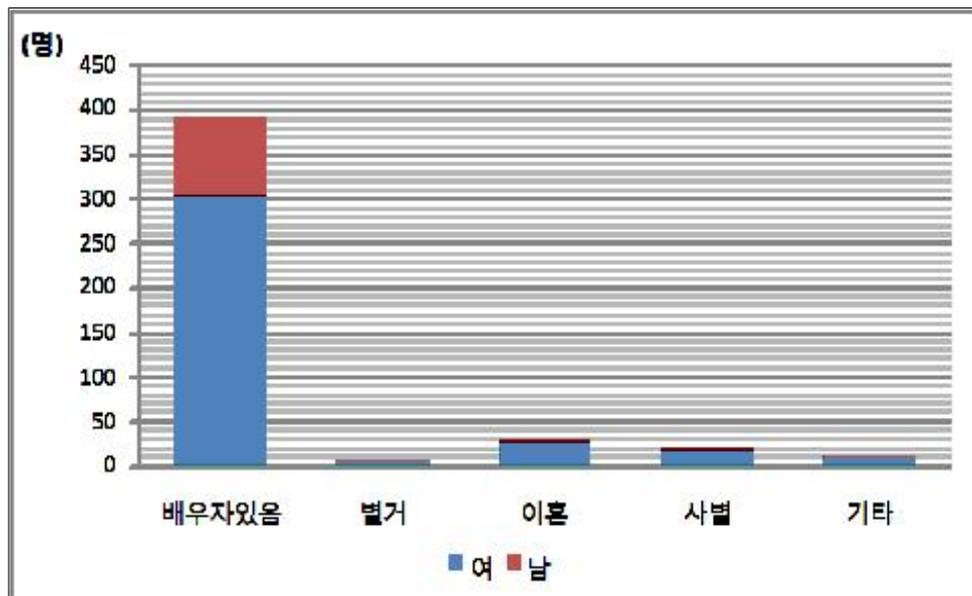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으로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전체 응답자의 3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응답자의 78.9%가 여성이며, 이번 조사에 있어 저소득 및 취약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수혜도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가족형성

① 혼인

부부관계에 있어 현재의 혼인상태에 대하여 응답자의 85.4%가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혼 6.5%, 사별 4.4%, 별거 1.3%, 기타 2.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교차분석을 해보면 여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3.9%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90.7%로 응답자 대부분이 현재 유배우자 상태이다.

<그림20> 성별과 혼인상태



②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에 대하여 응답자의 46.6%가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기타 30.5%, 친척소개 13.5% 등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친구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37>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

구분	전체		여		남	
	N	(%)	N	(%)	N	(%)
부모님 소개	8	1.7	7	1.9	1	1.0
형제자매 소개	16	3.5	12	3.3	4	4.1
친척 소개	62	13.5	48	13.3	14	14.4
친구(미팅/소개팅 등) 소개	214	46.6	162	44.8	52	53.6
전문 중매인 소개	5	1.1	5	1.4	0	0
기타	140	30.5	116	32.0	24	24.7
무응답	14	3.1	12	3.3	2	2.2
계	445	100	362	100	97	100

③ 결혼 당시 배우자 선택 조건

결혼 당시 배우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집안, 능력, 가풍 등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집안 수준의 경우는 서로 비슷한 경우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 가문의 특성으로는 집안의 분위기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혼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비슷한 수준과 분위기가 좋은 집안에 성장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배우의 집안 수준과 가운데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결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8> 결혼당시 배우자의 집안 수준

구분	N			(%)
	계	여	남	
배우자의 집안이 훨씬 높았다	22	16	6	4.8
배우자의 집안이 약간 높았다	46	38	8	10.0
서로 비슷했다	278	215	63	60.6
나의 집안수준이 약간 높았다	72	60	12	15.7
나의 집안 수준이 훨씬 높았다	27	22	5	5.9
무응답	14	11	3	3.0
계	459	362	97	100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사랑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경제력, 직업 등 남성의 커리어에 중점을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조건에서 경제력 다음으로 외모를 선호함에 따라 여성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9> 결혼 당시 배우자 선택 조건

구분	전체		여		남	
	N	(%)	N	(%)	N	(%)
장남여부	13	2.8	13	3.6	0	0
경제력	89	19.4	81	22.4	8	8.2
직업	85	18.5	72	19.9	13	13.4
나이	15	3.3	8	2.2	7	7.2
학력	11	2.4	10	2.8	1	1.0
종교	19	4.1	14	3.9	5	5.2
외모	18	3.9	9	2.5	9	9.3
출신지역	9	2.0	6	1.7	3	3.1
사랑	132	28.8	92	25.4	40	41.1
건강	10	2.2	7	1.9	3	3.1
기타	58	12.6	50	13.7	8	8.4
계	459	100	362	100	97	100

④ 결혼비용

결혼 당시 결혼 비용에 있어 본인의 저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가가 비슷하기 비용 부담 25.7%, 둘의 저축 13.1% 등으로 비교적 결혼 당시 결혼 비용에 대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결혼 당시 비용 증대에 있어 남성의 경우 본인의 저축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양가 공동 부담으로 결혼비용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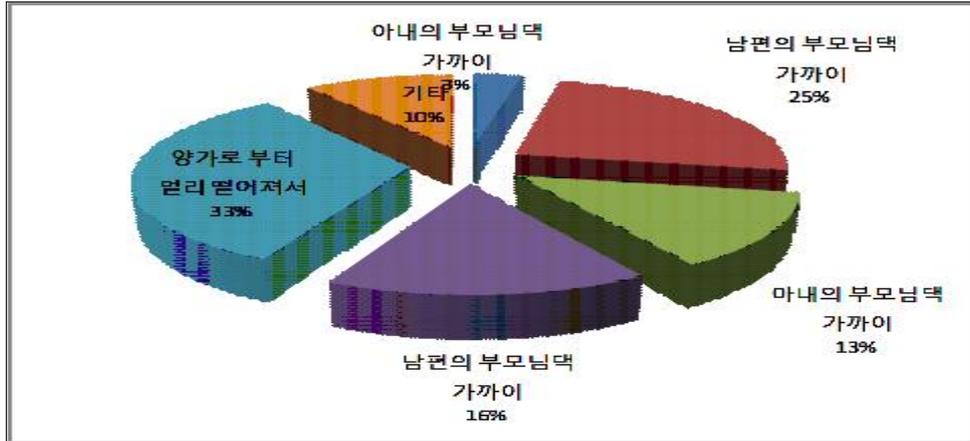
<표40> 결혼 당시 결혼비용

구분	전체		여		남	
	N	(%)	N	(%)	N	(%)
본인의 저축	121	26.4	88	24.3	33	34.0
배우자 저축	25	5.4	22	6.1	3	3.1
서로 저축	60	13.1	43	11.9	17	17.5
본인의 빚/대출	10	2.1	9	2.5	1	1.0
배우자의 빚/대출	13	2.8	12	3.3	1	1.0
시집/본가 의존	54	11.8	42	11.6	12	12.4
친정/처가 의존	33	7.2	30	8.3	3	3.1
양가 공동 부담	118	25.7	97	26.8	21	21.7
기타	11	2.4	8	2.2	3	3.1
무응답	14	3.1	11	3.0	3	3.1
계	445	96.9	362	100	97	100

⑤ 결혼 후 처음 거주지

결혼을 하고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양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구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부모님 댁, 남편의 부모님 댁 가까이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기 결혼 당시 분가를 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집에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운 곳을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1> 결혼 후 처음 거주지



<표41> 결혼 후 처음 거주지

구분	여		남	
	N	(%)	N	(%)
아내의 부모님 댁	11	3.0	4	4.1
남편의 부모님 댁	86	23.8	23	23.7
아내의 부모님 댁 가까이	47	13.0	12	12.4
남편의 부모님 댁 가까이	59	16.3	12	12.4
양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112	30.9	33	34.0
기타	47	13.0	13	13.4
계	362	100	97	100

3) 부부관계

① 부부관계

현재 부부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33.2%로 나타났다으며, 매우 만족스럽다 24.6%, 약간 만족스럽다 22.9%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0.4%가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41.1%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만족도 역시 부부간의 서로 잘 배려하고 챙겨주는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31.1%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다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4.8%, 여성은 50.6%가 상대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남성은 47.2%, 여성은 40.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부부관계 만족도(1)

(단위 : %)

구분	전반적인 관계			서로 배려 여부			성생활 만족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스럽다)	24.6	19.8	41.8	26.5	24.4	34.1	18.4	14.9	30.7
그렇다 (만족스럽다)	22.9	21.3	28.6	27.2	26.2	30.7	23.4	25.4	16.5
보통이다	33.2	37.5	17.6	31.1	32.4	26.4	44.7	46.7	37.4
그렇지 않다 (불만족이다)	12.4	13.8	7.7	10.1	11.4	5.5	7.0	7.4	5.5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불만족이다)	6.9	7.6	4.4	5.1	5.6	3.3	6.5	5.6	9.9
계	100	100	100.1	100	100	100	100	100	100

배우자를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 54.4%가 긍정적인 응답을 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68.9%가 긍정적인 응답을 답하였으며, 특히 남성에게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성 응답자의 40%를 차지함에 따라 남성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남성의 경우 여성의 능력을 68.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대하여 51.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남성의 능력에 대하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대치를 일부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반자관계에 대하여 여성은 55.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72.5%가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표43> 부부관계 만족도(2)

(단위 : %)

구분	서로 신뢰여부			상대방의 능력 평가			동반자적 관계 여부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전체	여	남
매우 그렇다 (매우 만족스럽다)	30.8	28.3	40.0	27.2	23.8	39.6	32.8	30.2	41.8
그렇다 (만족스럽다)	26.7	26.1	28.9	27.7	27.4	28.5	26.7	25.7	30.7
보통이다	30.6	33.2	21.1	31.6	34.3	22.0	26.8	29.0	18.7
그렇지 않다 (불만족이다)	8.0	8.4	6.7	9.9	11.1	5.5	9.4	9.9	7.7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불만족이다)	3.9	4.0	3.3	3.6	3.4	4.4	4.3	5.2	1.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② 부부간의 의사결정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녀교육문제, 생활비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는 주로 아내가 비교적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영역은 부부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부부간의 의사결정

(단위 : %)

구분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거주지 결정	생활비 관리	투자 재산관리	여가/여행	시댁/외가방문	부모님 용돈
아내가 주로	45.4	10.5	17.6	58.9	38.9	25.5	27.2	36.4
남편이 주로	6.9	27.4	13.8	8.6	17.8	11.3	7.5	5.6
부부공동	43.2	50.1	62.7	29.2	35.8	56.0	58.8	47.3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0.5	1.5	2.3	0.9	0.7	3.6	2.9	1.0
비해당	4.0	10.5	3.6	2.4	6.8	3.6	3.6	9.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③ 재산 명의

본인 명의의 재산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62.3%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응답자의 58.0%가 본인의 명의로 재산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78.4%가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재산 명의(성별)

(단위 :명, %)

구분	계	본인명의로의 재산		
		있다(N)	없다(N)	무응답(N)
여성	362	210	138	14
비율	100	58.0	38.1	3.9
남성	97	76	20	1
비율	100	78.4	20.6	1

이를 다시 분석하면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적금/저축, 자동차, 주택(전세포함), 땅 등 기타 부동산 등의 순이며, 남자의 경우 적금/저축, 자동차, 주택, 부동산, 주식/채권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재산 명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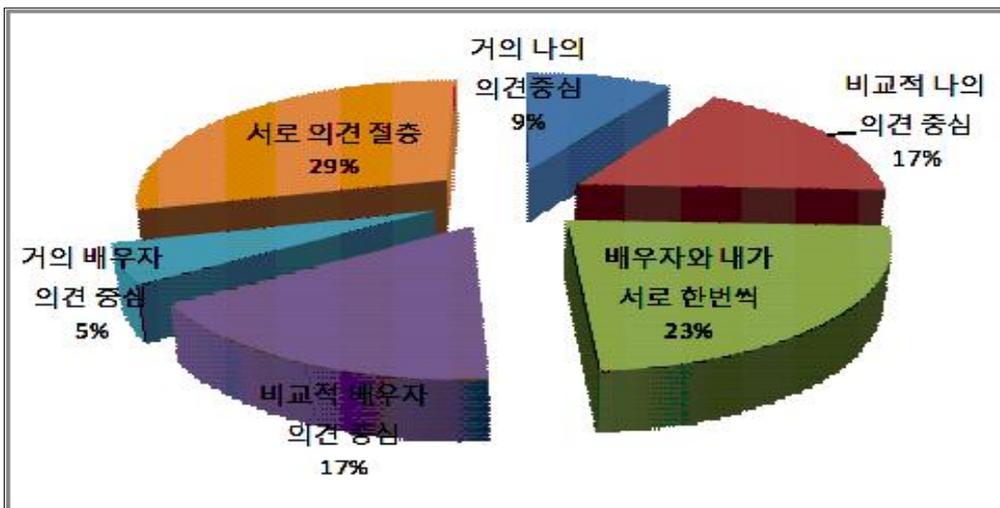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주택 (전세포함)		땅 등 기타부동산		적금/ 저축		자동차		주식 /채권 등		골프 등 회원권		기타		합 계	
	여성	82	34.6	56	23.6	172	72.6	89	37.6	25	10.5	3	1.3	9	3.8	237
남성	47	61.0	27	35.1	52	67.5	56	72.7	7	9.1	1	1.3	3	3.9	77	24.5
계	129	41.1	83	26.4	224	71.3	145	46.2	32	10.2	4	1.3	12	3.8	314	100

④ 배우자와의 의견 조율

배우자와의 의견 조율에 있어 의견 충돌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29%가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화목 정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9.6%로 비교적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그림 22> 배우자와 의견 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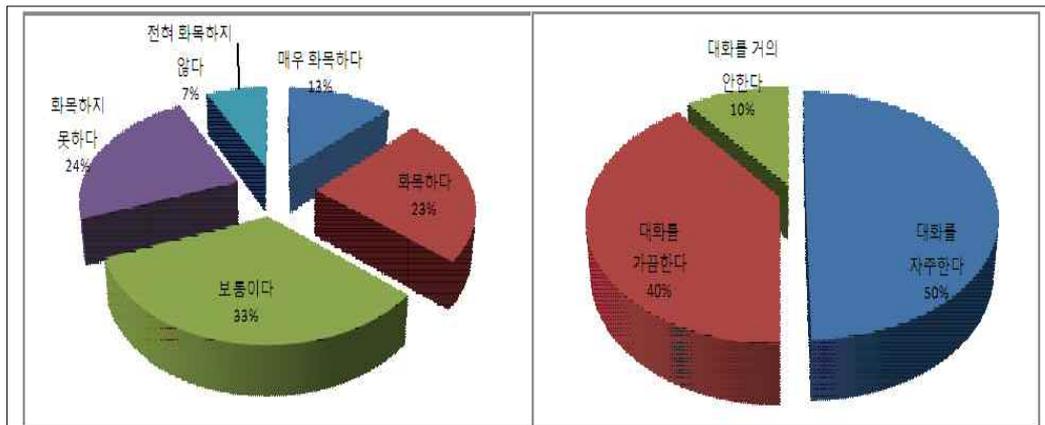
그러나 이를 성별로 다시 세분화 하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우 ‘의견 충돌시 절충’ < ‘나와 배우자의 의견 통할 때 반반’ < ‘비교적 나의 의견을 따른다’ 순이지만, 남성의 경우 ‘의견 충돌시 절충’ < ‘비교적 배우자의 의견을 따른다’ < ‘나와 배우자의 의견이 통할 때 반반’으로 남성의 경우 본인의 의견보다 배우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부부 대화

배우자와의 평소 대화정도에 대하여 자주 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49.8%를 차지

하고 있으며, 가끔 한다 39.7% 거의 하지 않는다 10.5%로 응답자의 10쌍 가운데 1쌍은 부부간의 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가족의 화목함과 대화 정도



대화정도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대화에 대하여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로 자녀문제가 전체 응답자의 64.7% 다음 순으로 돈/경제와 관련된 응답이 26.1%를 차지함에 따라 가족대화의 중요 주제는 자녀교육과 경제활동 이외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대화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녀문제, 하루 일과, 직장문제, 돈/가계경제, 시댁 등 시댁 등 시댁, 남성의 경우 자녀문제, 직장문제, 하루일과 순으로 등남에 따라 성별에 따라 자녀문제를 제외하면 상이하게 대화의 주제가 등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7> 대화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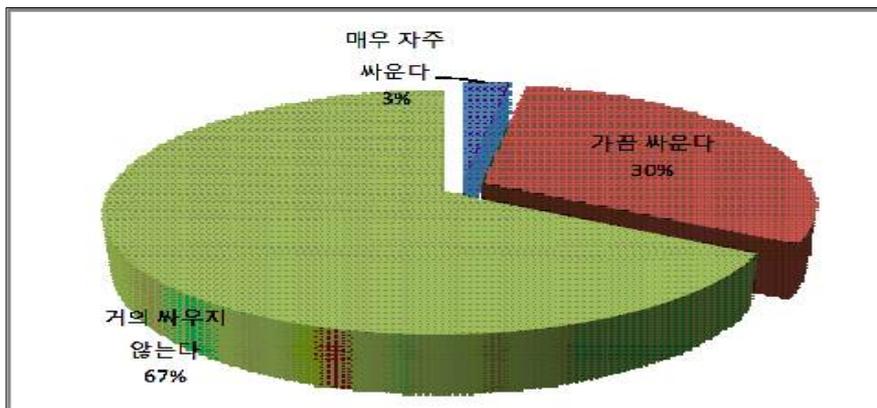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여		남	
	N	%	N	%	N	%	N	%
자녀문제	297	64.7	23	5.0	237	65.4	60	61.8
시집/친가문제	10	2.2	35	7.6	9	2.5	1	1.0
친정/처가문제	1	0.2	5	1.1	0	0	1	1.0
직장문제	25	5.4	51	11.1	16	4.4	9	9.3
하루 일과	33	7.2	78	17.0	25	6.9	8	8.3
돈	17	3.7	122	26.6	14	3.8	3	3.1
취미활동	3	0.7	8	1.7	2	0.6	1	1.0
친구문제	1	0.2	5	1.1	1	0.3	0	0
사회정치문제	3	0.7	12	2.6	3	0.8	0	0
종교	4	0.9	10	2.2	2	0.6	2	2.1
부부관계	1	0.2	17	3.7	1	0.3	0	0
기타	2	0.4	3	0.7	2	0.6	0	0
무응답	62	13.5	90	19.6	50	13.8	12	12.4
계	459	100	459	100	362	100	97	100

⑥ 부부 갈등

평소 배우자와의 부부싸움에 대하여 싸움의 정도에 대하여 67%가 거의 싸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4> 부부싸움의 정도



이를 바탕으로 부부싸움의 정도에 대하여 자주 싸우는 부부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4회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며, 가끔 싸우는 경우는 일주일에 3회, 거의 싸우지 않는 경우는 한 달에 1회 정도로 나타났다.

<표48> 부부싸움의 빈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자주 싸운다			자주 싸운다			거의 싸우지 않는다		
	전체 %	여 N	남 N	전체 %	여 N	남 N	전체 %	여 N	남 N
일주일 1회	14.3	1		82.0	37	13	-	-	-
일주일 2회	28.6	2		16.4	9	1	-	-	-
일주일 3회	42.9	1	2	1.6	1	-	-	-	-
일주일 4회	14.2	1	-	-	-	-	-	-	-
한 달 1회	-	-	-	-	-	-	64.2	50	20
한 달 2회	-	-	-	-	-	-	32.1	29	6
한 달 3회	-	-	-	-	-	-	2.8	2	1
한 달 4회	-	-	-	-	-	-	0.9	1	
계	100	5	2	100	47	14	99.1	8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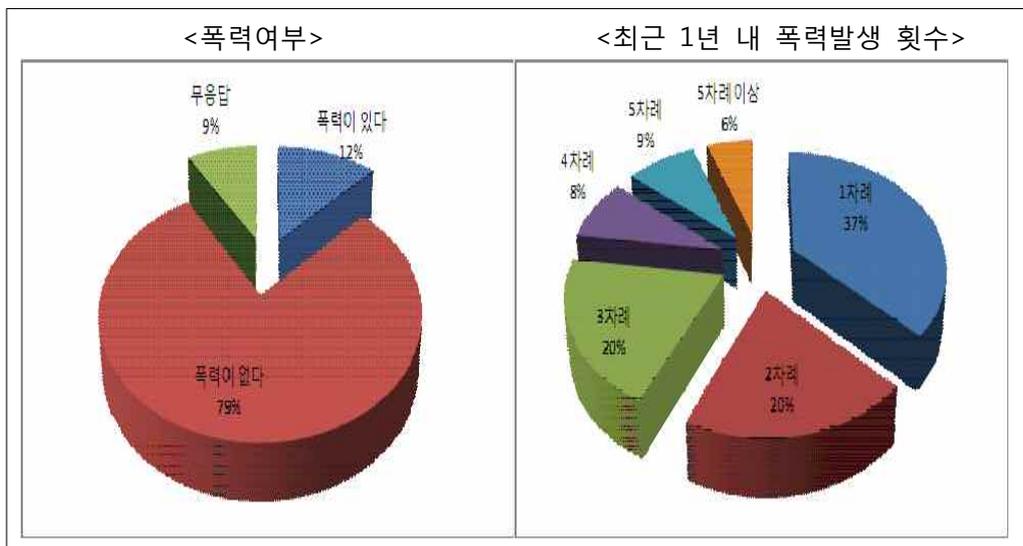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부부싸움 도중 무력적인 폭력발생 여부에 대하여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2%이며, 최근 1년 사이 1회 정도의 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폭력에 대하여 배우자의 응답자들의 폭력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고함 63.2%, 다음으로 욕박지르기 10.5%, 물건부수기 5.3%, 자녀체벌 5.3%, 따귀 3.5%, 주먹질 3.5%, 자해 1.8%, 기타 1.8%, 무응답 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에 있어 중요한 관점은 자녀

들에게 폭력 대물림, 가해 남성에 대한 중독, 폭력의 심화,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 해체, 지역사회에 있어 다른 여성과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25> 부부싸움에 있어 폭력 유무와 빈도



⑦ 부부 갈등 유형

부부 갈등의 유형에 대하여 부모 부양, 제사에 대한 갈등은 비교적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가족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갈등에 있어서는 생활방식, 생활습관, 자녀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사 및 육아분담, 가계경비 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 내 갈등 유형은 당사자 간의 갈등과 자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평균값을 살펴보면 부부 갈등의 경험에 있어 대부분 크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49> 유형에 따른 부부 갈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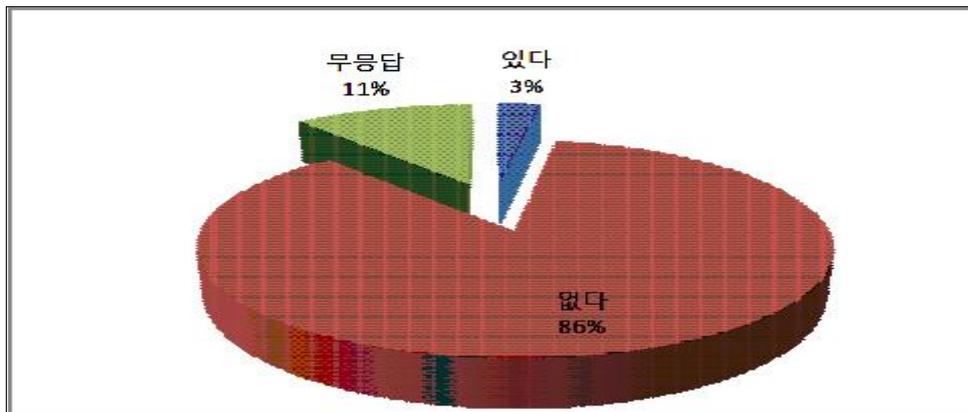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부양	제사	배우자 가족 관계	나의 가족 관계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자녀	경제	가사 분담	가계비 지출	평균
매우 자주 경험	1.3	2.2	2.3	1.7	5.4	5.3	2.9	5.4	3.7	4.1	3.43
자주경험	2.2	2.0	3.7	2.2	13.1	13.9	11.1	10.7	10.5	9.8	7.92
보통	14.4	14.2	27.9	26.8	32.7	34.0	36.4	38.6	31.6	35.1	29.2
거의 경험 없음	27.0	28.1	23.7	24.8	17.6	22.2	21.7	20.5	21.6	23.3	23.1
전혀 경험 없음	38.5	38.3	24.8	28.3	15.7	8.7	13.5	11.5	15.9	13.1	20.8
무응답	16.6	15.2	17.6	16.2	15.5	15.9	14.4	13.3	16.7	14.6	15.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⑧ 부부 갈등 해결 방법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기관 이용 여부에 대하여 86.1%가 시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84.5%, 남성은 91.8%로 나타났다.

<그림 26> 상담시설 이용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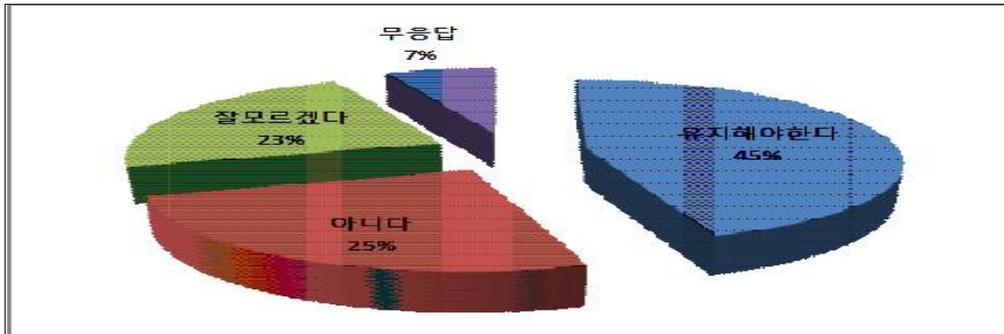


4) 결혼에 대한 가치관

① 부부관계 유지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가족 해체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결혼 생활 유지에 대하여 유지해야한다고 44.9%가 응답을 하였으며, 아니다 25.5%, 잘 모르겠다 22.9% 응답을 함으로써 갈등에 있어 가족해체로 전개 될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혼인관계 지속 여부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혼인관계 지속에 대하여 53.6%가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0> 성별에 따른 혼인관계 지속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여		남	
	N	%	N	%
지속해야한다	143	39.5	63	64.9
지속하지 않는다	103	28.5	14	14.4
잘 모르겠다	91	25.1	14	14.4
무응답	25	6.9	6	6.3
계	362	100	97	100

다음으로 가족관계가 심각한 갈등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녀문제, 가족 실망,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녀문제, 가족 실망,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아직 사회적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경제적인 자립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할 경우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 자녀가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하나 남성과 여성이 갖는 가치관의 일부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1> 부부 관계 유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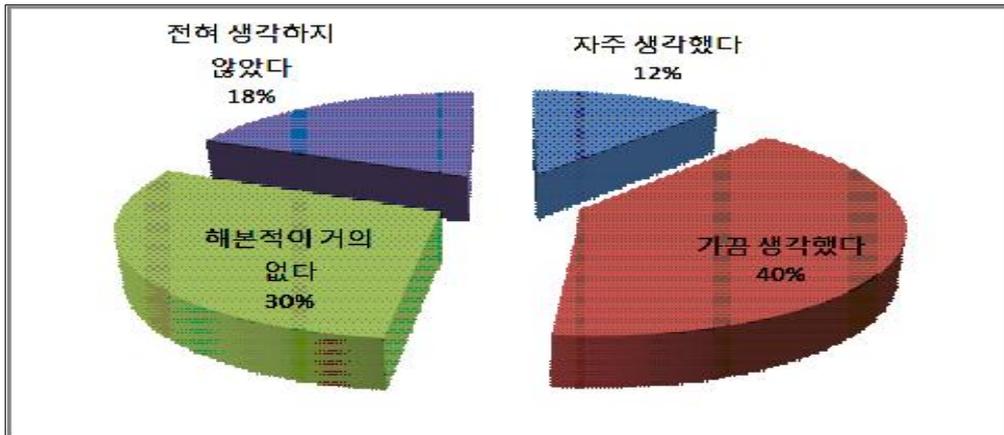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성별	
	N	%	N	%	여%	남%
주변시선	35	10.3	7	2.3	11.1	7.7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67	19.8	62	20.2	20.3	17.9
혼자 사는 경제적 곤란함	21	6.2	9	2.9	6.1	6.4
혼자 양육하기 어려워서	23	6.8	35	11.4	6.1	9.0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66	19.5	27	8.8	18.5	23.1
자식 때문에	105	31.0	123	40.1	31.4	29.5
사회생활 제약	9	2.7	26	8.5	3.1	1.3
기타	13	3.7	18	5.8	3.4	5.1
계	339	100	307	100	100	100

지금까지 이혼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가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1%로 나타났으며, 자주 있다가 11.1%로 10쌍 가운데 1쌍은 자주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이혼 고려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 가끔 고려하였다 45.5%, 자주 고려하였다 12.9%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가끔 고려하였다 20.7%, 자주 고려하였다 7.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이혼에 대한 생각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이혼 고려 여부



<표52> 이혼 고려 정도

(단위 : %)

구분	여	남
자주 있다	12.9	7.6
가끔 있다	45.5	20.7
거의 없다	28.1	34.7
전혀 없다	13.5	37.0
계	100	100

그러나 문제는 앞서 가족관계와 부부간의 갈등 해결 등에 있어 서로 협조하고 지지하는 원만한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이혼을 고려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은 일상과 희망의 격차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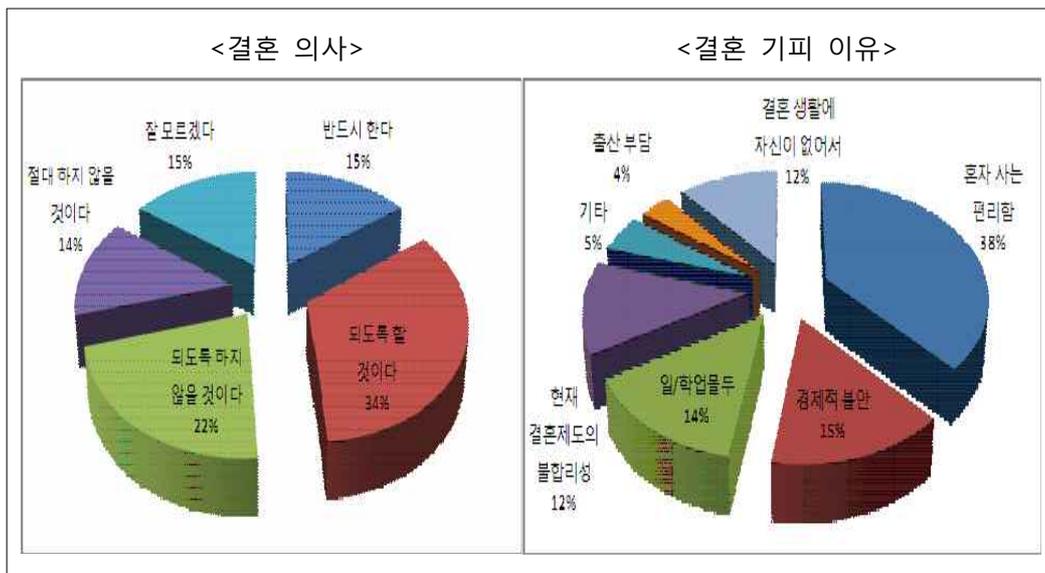
② 결혼에 대한 가치관

현재 미혼이라면 결혼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반드시 한다 15.2%, 되

도록 할 것이다 33.6%,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22.0%,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13.8%, 잘 모르겠다. 15.4%로 나타남에 따라 결혼에 대한 필수라는 의식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반면 결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35.8%로 나타남에 따라 단독가구의 증가와 만혼과 결혼 기피 현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37.9%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안정이 되지 않아서 14.7%, 일/학업 등에 몰두해보고 싶어서 14.2%, 현재의 결혼제도가 불편해서 12.6%,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11.6%, 기타 5.3%, 자녀 출산의 부담 3.7%로 나타남에 따라 부부로 가족을 형성해서 다중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보다 혼자 사는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9> 결혼 의사와 기피 이유



그러나 이를 성별에 따라 응답자 의견을 분석하면 여성의 경우 결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1%로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1명만이 반드시 결혼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3%가 결혼

을 반드시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3> 성별에 따른 결혼 의사

(단위 : %)

구분	여	남
반드시 하겠다	10.1	33.3
되도록 하겠다	31.3	42.0
되도록 하지 않겠다	25.3	9.9
하고 싶지 않다	16.7	3.7
잘 모르겠다	16.6	11.1
계	100	100

<표54> 성별에 따른 결혼 기피 사유

(단위 : %)

구분	여	남
일/학업에 몰두	14.7	11.1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11.7	11.1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41.7	14.8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	1.8	14.9
경제적 불안정	12.3	29.6
현재의 결혼 제도 불만	14.1	3.7
기타	3.7	14.8
계	100	100

5) 가족 가치관

① 인지하는 가족의 개념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 63.6%, 피로 맺어진 사람 24.2%로 사랑과 혈연을 중요한 가족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5> 가족에 대한 정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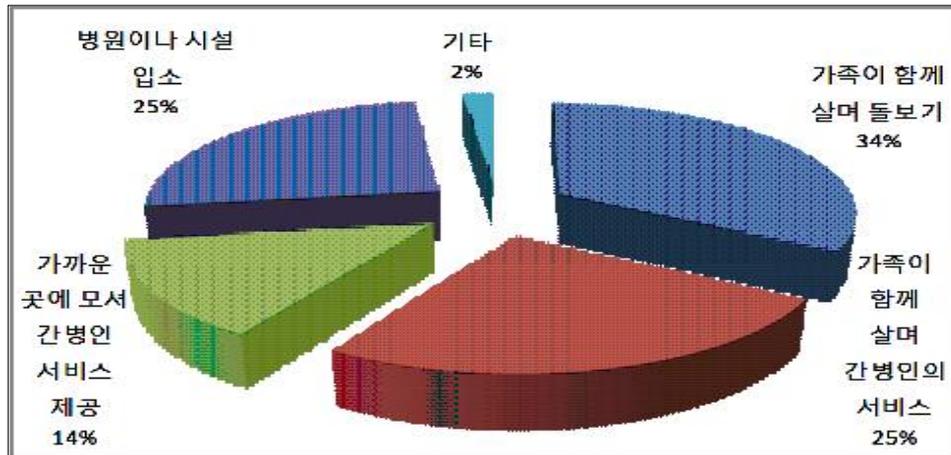
구분	전체	비율		
	N	전체	여	남
피로 맺어진 사람	111	24.2	23.2	27.8
서로 사랑하는 사람	292	63.6	63.8	62.9
같은 성씨	4	0.9	0.6	2.1
함께 거주하는 사람	36	7.8	8.6	5.2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사람	7	1.5	1.7	1.0
기타	6	1.3	1.4	1.0
무응답	3	0.7	0.7	
계	456	99.3	100	100

② 부양문제

향후 부양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현재 가정에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계시거나 향후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하여 33.5%가 가족이 함께 살며 돌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간병인의 서비스 받기, 병원이나 시설에 모시기, 가까운 곳에 모셔 가족이나 간병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족이 함께 살며 부양한다는 것은 독립/분거 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에서 육지부의 특

성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돌봄의 공공서비스로 인한 요양보호제도 등의 홍보 확대에 따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0> 향후 부양 방법



성별에 따라 가족 부양에 대한 의견은 여성의 경우 가족이 함께 살며 간병인 서비스(27.9%)가 가장 높은 응답을 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족이 함께 살면 가족이 간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8.3%를 차지함에 따라 남성의 경우 돌봄을 가족내부에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③ 가족 관련 가치관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과 양육, 비혼, 재혼의 필요성, 딩크족, 입양, 육아 공동 부담, 동등한 가족부양의무, 남자의 홀벌이와 여성의 가사 전담, 시대 우선 문화, 노후를 위한 자녀여부, 결혼과 출산 의무, 자녀에게 대리 만족, 자녀 양육을 위한 직장 포기, 가족 간호를 위한 직장 포기 여부, 부모 자녀관계를 최우선, 어려운 일에 있어 가족 지지 여부, 동거, 비혼모 등에 대한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각각 응답은 다음 표와 같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혼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 많으나 재혼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향후 결혼 의사를 묻는 문항에 있어 독신을 선호하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

DINK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여러 명의 자녀와 달리 한명의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동육아와 공동 가족 부양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되고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 돌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응답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56> 가족 관련 가치관(1)

(단위 : %)

구분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무응답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26.6	26.1	29.2	10.7	2.2	5.2
비혼	17.4	34.2	24.6	11.8	6.8	5.2
재혼의 필요성	5.0	15.7	30.9	24.6	17.0	6.8
무자녀(DINK족)	8.9	18.3	23.3	20.5	22.7	6.3
입양	17.2	29.4	22.4	12.4	12.4	6.1
공동 육아	56.2	19.8	12.2	3.9	2.6	5.2
공동 가족 부양	42.7	27.7	15.3	5.4	2.8	6.1
남성 홀벌이 여성 가사전담	2.8	10.2	19.4	27.9	33.1	6.5
결혼 후 시댁 우선	2.4	13.9	23.5	28.5	25.1	6.5
노후대비로서 자녀	8.1	14.4	24.8	29.4	17.6	5.7
결혼과 출산 의무	16.3	17.6	28.5	18.7	13.1	5.7
자녀에게 대리 만족	14.8	25.9	23.1	18.3	12.9	5.0
자녀 양육을 위한 직장포기	9.4	26.6	27.9	18.5	11.5	6.1
가족 간호를 위한 직장포기	12.0	30.3	26.6	16.3	8.9	5.9
부부관계<부모관계 우선	6.5	14.4	29.2	26.8	17.2	5.9
어려운 일에 가족 친척의 지지	22.7	27.0	27.0	12.4	5.2	5.7
혼전 동거	7.8	23.7	23.3	19.6	19.8	5.7
비혼모	3.7	14.6	18.5	25.5	31.6	6.1

우선 앞서 돌봄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뚜렷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성에 비하여 남성들이 비교적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재혼 역시 남성이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역시 연계하여 출산의 중요성을 남성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물음에 있어 공동 부양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적극적인 응답을 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여성에게 가계부양에 대한 관습을 그대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57> 가족 관련 가치관(2)

(단위 : %)

구분	비혼도 좋다		재혼이 필요하다		부부공동 가족부양		남자바깥일 여자집안일		결혼과 출산의무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매우 그렇다	21.4	7.4	4.8	7.4	49.1	32.3	3.6	1.1	15.6	23.4
그렇다	40.8	19.1	12.0	34.1	27.8	35.5	8.6	19.4	16.6	26.6
보통	24.6	30.9	29.9	44.7	13.6	25.8	19.3	25.8	31.0	27.7
그렇지 않다	9.1	24.5	30.8	10.6	5.9	5.4	27.7	37.6	21.8	12.7
전혀 그렇지 않다	4.1	18.1	22.5	3.2	3.6	1.0	40.8	16.1	15.0	9.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가족간호 역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직장을 포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역시 여성들에게 돌봄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뿌리 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혼인에 대한 가치관으로 비혼모와 혼전동거에 대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인 제약으로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를

남성들이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58> 가족 관련 가치관(3)

(단위 : %)

구분	자녀양육과 직장포기		가족간호와 직장포기		혼전동거		비혼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매우 그렇다	10.1	9.7	11.5	17.0	8.8	6.4	4.4	2.2
그렇다	30.8	19.3	32.8	29.8	26.9	19.1	16.6	11.8
보통	28.1	35.5	27.8	29.8	23.6	28.7	19.2	21.5
그렇지 않다	18.6	23.7	17.5	17.0	18.3	29.8	25.5	33.3
전혀 그렇지 않다	12.4	11.8	10.4	6.4	22.4	16.0	34.3	31.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 노후 생활

①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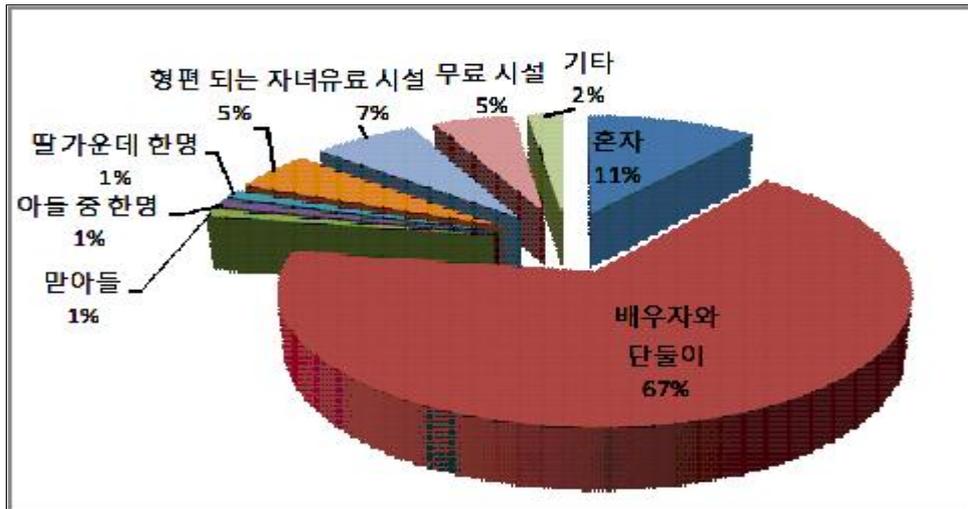
성별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하여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남녀 평균 67.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이 53.6%, 개인연금 14.1%, 공무원 연금 11.7%, 예금/적금 11.7%, 퇴직금 2.4%, 기타 3.9%, 부동산 2.1%, 주식/채권 0.6% 등으로 나타났다.

② 노후 동반자와 생활

향후 노후 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하여 배우자와 단들이 살고 싶다가 전체 응답자의 6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혼자, 시설, 자녀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돌볼 가족이 생겼을 경우 돌본다는 의식과 향후 나의 노후 생활은 상반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그러나 성별에 따라 노후를 보내고 싶은 동반자에 있어 근소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높고 시설 입소를 꺼리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오히려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9> 노후 희망 가구원(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혼자	12.1	6.2
배우자와 단둘이	64.0	77.3
자녀	7.9	10.2
시설입소	13.8	4.2
기타	2.2	2.1
계	100	100

또한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43.1%는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 29.8%, 자원봉사 15.6%, 외국어/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학습 6.1%, 가사 또는 손자녀 돌보기 2.5%, 기타 1.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에서 취미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오히려 세대 간의 전이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식 등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누기보다 오히려 경제활동을 선호함으로써 경제활동과 개인의 취미활동이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희망 노후 생활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7.7%인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과 취미활동을 제외하면 두드러지는 여가 활동을 희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60> 노후 희망 여가 생활(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지속적인 경제활동	28.4	35.1
외국어/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7.7	-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활동	42.1	46.8
자원봉사	16.1	13.8
가사 또는 손자녀돌보기	3.2	-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1.1	2.1
기타	1.4	2.1
계	100	99.9

③ 독거노인 정책

독거노인 정책에 대하여 경제자립지원이 38.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취업지원 30.4%, 노인전문병원/요양시설 확대 13.1%, 여가시설 확대 6.2%, 간병/요양서비스 확대 6.0%,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2.7%, 노인우대 할인제도 확대 2.4, 기타 0.7%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서 희망 노후생활과 달리 경제자립지원과 취업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취업과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오히려 취업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1> 독거노인 정책(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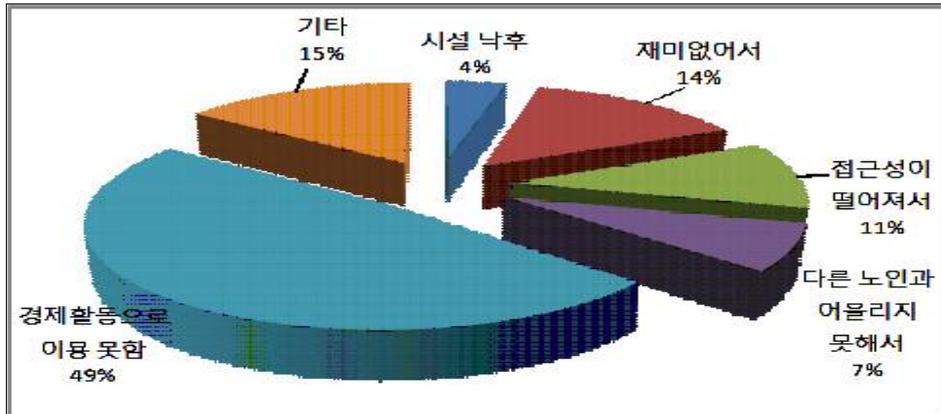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여	남
기본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40.0	33.3
일할 수 있는 취업지원	28.2	38.6
아픈 노인을 위한 간병서비스	6.7	3.1
노인 전문병원/요양시설확대	12.7	14.6
여가시설 확대	6.2	6.3
노인우대 할인제도 확대	2.3	3.1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3.1	1.0
기타	0.8	
계	100	100

④ 경로당 이용 여부

현재 가정에 어르신이 계신 경우 경로당 이용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32.9%가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5.7%이며, 남성은 51.7%로 경제적인 곤란함이 여가활동의 제약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주 지역의 정서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도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개선점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선 53.3%, 접근성 15.7%, 시설 개선 13.6%, 식사 제공 8.7%, 저렴한 이용료 5.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62> 경로당 개선 사항(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시설 개선	12.1	20.5
프로그램	55.1	45.4
접근 용이성	17.2	9.1
저렴한 이용료	3.5	11.4
식사제공	8.1	11.3
기타	4.0	2.3
계	100	100

위의 표를 통해 성별에 따라 경로당 이용에 있어 개선점으로 남성은 식사제공에 대하여 여성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응답을 함에 따라 남성들의 경우 향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요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⑤ 상속

유산 상속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4.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사회 환원 25.3%, 자녀에게만 12.4%, 사회 환원 2.9%, 배우자에게만 2.7%, 기타 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생각이 남성에 비하여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63> 상속 방법(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자녀에게만 상속	14.1	6.3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	51.9	62.1
배우자에게만 상속	2.3	4.2
사회 환원	2.9	3.2
가족과 사회 환원	25.6	24.2
기타	3.2	-
계	100	100

⑥ 부모와의 만남과 지원

부모와 만나는 날에 대하여 제사(기일)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

족모임, 친지결혼, 친지초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 개인의 관심사 들어드리기, 집안일, 병원에 모셔가기 등은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 함께 여행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단위 여행의 패턴에 있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자녀위주의 유형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64> 부모님 지원¹²⁾

(단위 : %)

구분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거의 없음	전혀 없음	무응답
경제적인 지원	5.9	6.3	45.1	24.6	7.6	10.5
개인 관심사 들어드리기	3.9	19.8	47.5	11.5	5.7	11.5
집안일(청소/빨래/식사)	1.3	7.6	38.6	30.7	10.0	11.8
병원 모셔가기	3.9	8.5	37.9	27.2	11.8	10.7
함께 여행가기	0.7	1.1	20.5	48.1	17.9	11.8
평균	3.1	8.7	37.9	28.4	10.6	11.3

7) 자녀양육

① 미취학 자녀

a. 미취학 자녀 보육 방법

미취학 자녀 가운데 첫째 자녀의 보육방법에 대하여 응답자의 60%가 시설에 보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16.2%, 자녀의 부모 13.2%, 조부모나 친지 5.9%, 학원 2.9%, 베이비시터나 이웃사람 1.5%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 역시 보육시설이 67.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녀의 부

12) 성별에 따른 격차가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모 13.8%, 유치원 10.3%, 조부모나 친지 6.9%, 학원 1.3%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역시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응답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돌봄의 공공화가 부분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65> 미취학 자녀 돌봄 형태

(단위 : %)

구분	첫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전적으로 부모가 돌봄	13.2	13.8	13.6
부모의 가족, 친척, 인척	5.9	6.9	18.2
파출부, 가정부, 이웃	1.5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등)	60.3	67.2	54.6
유치원	16.2	10.4	9.1
학원	2.9	1.7	4.5
계	100	100	100

b. 자녀 여부와 출산 희망 여부

현재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기타 32.6%, 산모 고령 19.1%, 양육 및 교육비 부담 19.1%, 부부 애정만으로 충분해서 11.2%, 건강상의 이유 9.0%, 일과 자녀 돌봄 양립의 어려움 6.7%, 혼자 육아 부담으로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출산 여부에 대한 생각에 있어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낳을 계획이 있다 33.1%,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9.1% 순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자녀가 없는 응답자만을 다시 분석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9명이 자녀가 없으며, 없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19.4%로 이유를 교차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남성응답자와 달리 육아와 업무, 건강 등의 이유가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6> 자녀가 없는 이유(성별)

(단위 : 명,%)

구분	고령	양육비 부담	업무에 지장	혼자 책임지는 육아	건강상 이유	부부의 애정이 우선	기타	전체
여	15 (20.6)	15 (20.6)	6 (8.2)	2 (2.7)	8 (11.0)	5 (6.8)	22 (30.1)	73 (100)
남	2 (12.5)	2 (12.5)	0	0	0	5 (31.3)	7 (43.7)	16 (100)
계	17 (19.1)	17 (19.1)	6 (6.7)	2 (2.3)	8 (9.0)	10 (11.2)	29 (32.6)	89 (100)

향후 더 낳게 되는 경우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1명으로 64.8%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명 21.6%, 3명 6.8%, 4명 2.3%, 5명 이상 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67> 향후 출산 자녀수(성별)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여	42 (67.8)	16 (25.8)	3 (4.8)	1 (1.6)	0 (0.0)	62 (70.5)
남	15 (57.7)	3 (11.5)	3 (11.5)	1 (3.9)	4 (15.4)	26 (29.5)
계	57 (64.8)	19 (21.6)	6 (6.8)	2 (2.3)	4 (4.5)	88 (100)

소득에 따라 자녀 출산 욕구를 교차분석하면 월 소득이 100~200만원 가구가 출산 욕구가 가장 높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출산에 대한 욕구는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8> 향후 출산 지원시 자녀 출산 여부(소득별)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계
100만원 미만	13	25	21	59 (22.9)
100~200만원	43	43	16	102 (39.5)
200~300만원	14	23	4	41 (15.9)
300~400만원	3	10	4	17 (6.6)
400~500만원	2	9		11 (4.3)
소득없음	9	14	5	28 (10.8)
전체	84 (32.6)	124 (48.1)	50 (19.3)	258 (100)

또 행정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가운데 60.6%가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69> 향후 출산 지원시 자녀 출산 여부(성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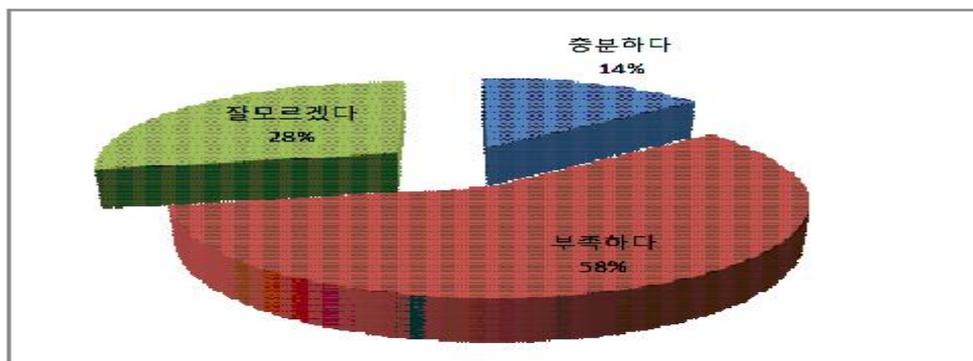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전체
여	67 (30.0)	113 (50.7)	43 (19.3)	223 (80.2)
남	25 (45.5)	20 (36.3)	10 (18.2)	55 (19.8)
계	92 (33.1)	133 (47.8)	53 (19.1)	278 (100)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61.6%, 남성 전체 응답자의 56.7%로 여성의 경우 출산 지원 정책과 자녀 출산이 비교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미취학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57.7%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출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시설의 증가를 희망하는 것은 보육교사 대비 보육 아동의 숫자를 OECD 수준¹³⁾으로 향상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 경우 보육시설의 총량에서는 현재 적정수준을 크게 넘어선 상황으로 오히려 보육시설의 수를 확장하기보다 보육시설의 유형을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현재 보육시설의 적정성



또한 자녀 유무에 따라 보육시설 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현황을 잘 모르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역시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8.8%를 차지하고 있다.

13) 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에 따르면 2006년 보육교사의 경우 OECD 평균 교사 1명당 13.9명을 전담하고 있다. 가장 아동 전담이 많은 나라는 Mexico 28.1명이며,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19.6명, United Kingdom(Includes only general programmes in upper secondary education), Chile 1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browse.oecdbookshop.org/oecd/pdfs/browseit/9608041E.PDF>)

<표70> 자녀에 따른 보육시설 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충분하다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자녀 없음	4 (12.1)	24 (72.7)	5 (15.2)	33 (11.4)
1명	6 (12.5)	32 (66.7)	10 (20.8)	48 (16.6)
2명	21 (15.2)	71 (51.5)	46 (33.3)	138 (47.8)
3명	11 (17.4)	33 (52.4)	19 (30.2)	63 (21.8)
4명이상	0	5 (71.4)	2 (28.6)	7 (2.4)
계	42 (14.5)	165 (57.1)	82 (28.4)	289 (100)

d. 긴급 상황시 아동 돌봄 방법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미취학자녀를 맡기는 곳에 대하여 응답자의 46.5%가 조부모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였으며, 친인척 14.8%, 규모가 큰 어린이 집 13%, 규모가 작은 놀이방 11.6%, 육아 경험이 있는 이웃주민 6.7%, 기타 3.9%, 집에 오는 보육모 3.5%로 나타남에 따라 1차적으로 시설에 자녀를 위탁하고 긴급사항의 발생에서는 조부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1>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이 희망하는 정책(성별)

(단위 : 명,%)

구분	수준은 프로그램	육아 휴직제 활성화	배우자 육아 휴직제 활성화	직장 보육 시설 마련	조부모/친인척 돌봄에 따른 정부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무상 보육	기타	전체
여	26 (11.4)	58 (25.5)	22 (9.7)	53 (23.4)	12 (5.3)	12 (5.3)	37 (16.3)	7 (3.1)	227 (81.1)
남	10 (18.9)	12 (22.6)	3 (5.7)	9 (17.0)	5 (9.4)	2 (3.8)	12 (22.6)	0 (0)	53 (18.9)
계	36 (12.9)	70 (25.0)	25 (8.9)	62 (22.1)	17 (6.1)	14 (5.0)	49 (17.5)	7 (2.5)	280 (100)

성별에 따라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내 보육시설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2>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이 희망하는 정책(소득별)
(단위 : 명,%)

구분	수준은 프로그램	육아 휴직제 활성화	배우자 육아 휴직제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마련	조부모/친척 돌봄에 따른 정부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무상보육	기타	전체
100만원 미만	5	16	5	13	2	4	15		60 (23.0)
100~200만원	13	32	11	18	10	4	16	3	107 (41.0)
200~300만원	8	9	3	12	1	2	4		39 (14.9)
300~400만원	1	4	1	3		1	7		17 (6.5)
400~500만원	4	1		2	2	1	1	1	12 (4.6)
소득없음	3	4	4	7	2	2	2	2	26 (10.0)
전체	34 (13.0)	66 (25.3)	24 (9.2)	55 (21.1)	17 (6.5)	14 (5.4)	45 (17.2)	6 (2.3)	261 (100)

② 취학 자녀

a. 취학 자녀의 방과후

취학자녀는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평균 58.8%가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방과후교실 18.3%,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 14.7%, 지역아동센터 4.7%, 사회복지관 0.5%, 기타 3.0%로 자녀가 방과후 활동이 조사되었다.

<표73> 취학 자녀의 방과후 활동

(단위 : %)

구분	첫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평균
학원	65.0	59.6	51.7	58.8
학교 방과후 교실	15.0	19.1	20.7	18.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0	2.9	10.4	4.7
사회복지관	1.5			0.5
다니는 곳 없음	13.0	14.0	17.2	14.7
기타	4.5	4.4		3.0
계	100	100	100	100

b. 방과후 지도 필요성

방과후 지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8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방과후 지도를 위하여 선호하는 기관으로 초등학교 51.4%, 지역아동센터 16.4%, 도서관/박물관 11.1%, 청소년문화시설 7.2%, 사설학원 5.8%, 사회복지관 2.8%, 기타 2.2%, 주민자치센터 1.9%, 종교시설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과후지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사설 학원 이용 39.1%,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33.7%, 기타 27.2%로 나타남에 따라 성적위주의 학습을 방과후 지도로 하길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과후 지도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응답자의 40.6%가 정서/사회성을 지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언어 및 독서지도 18%, 기본생활습관/안전지도 13.3%, 숙제 및 학습지도 13%, 음악/미술 등 특별활동 12.5%, 놀이지도 1.8%, 기타 0.8%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원을 선호하면 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사회성을 희망함에 따라 소자녀화에 따른 협동심, 인성 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향후 자녀에게 희망하는 가치

자녀에게 희망하는 가치에 대하여 책임감,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높은 가치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협동이나, 전통, 평등의식, 신뢰, 평화의식 등에 대하여 부모가 별로 희망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인성교육에 있어 필요한 프로그램과 접목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다양하게 함양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경쟁심에 대한 선호 가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경쟁이라는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선택되기보다 책임감 등으로 가치가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74>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치

(단위 : 명, %)

구분	성별				순위별					
	여		남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N	%	N	%
책임감	191	52.8	43	44.3	234	51	60	13.1	34	7.4
전통/관행존중	2	0.6	1	1.0	3	0.7	13	2.8	2	0.4
협동심	4	1.1	1	1.0	5	1.1	50	10.9	22	4.8
정직	47	13.0	15	15.5	62	13.5	78	17.0	67	14.7
독립심	15	4.1	9	9.3	24	5.2	31	6.9	20	4.4
평등의식	34	9.3	1	1.0	1	0.2	8	1.7	6	1.3
타인배려와 이해	2	0.6	11	11.3	45	9.8	89	19.4	84	18.3
절약정신	1	0.3	2	2.1	2	0.4	9	2.0	25	5.4
경쟁심	4	1.1			1	0.2	1	0.2	2	0.4
공경심	9	2.5	4	4.1	4	0.9	19	4.1	23	5.0
신양심	13	3.6	5	5.2	14	3.1	7	1.5	5	1.1
적극성	7	1.9	2	2.1	15	3.3	24	5.2	54	11.8
신뢰	5	1.4	2	2.1	9	2.0	17	3.7	18	3.9
평화의식	1	0.3			5	1.1	1	0.2	2	0.4
공존의식	1	0.3			1	0.2	2	0.4	14	3.1
무응답	26	7.1	1	1.0	34	7.3	50	10.9	81	17.6
계	362	100	97	100	425	92.7	409	89.1	378	82.4

④ 자녀 돌봄

자녀 돌봄에 간식/식사 등 밥 먹이기,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공부 돌봐주기, 등하교, 옷 입히기, 7세 이하 자녀 목욕시키기, 자녀교육계획세우기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로 내가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역시 여성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8.9%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쟁 심에 대한 선호 가치가 비교적 매우 낮게 나타남에 따라 경쟁 중심의 사회문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표75> 자녀 돌봄 정도

(단위 : %)

구분	거의 내가		주로 내가		부부함께		주로 배우자		거의 배우자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간식/식사 준비, 먹이기	51.5	1.3	27.5	7.9	19.2	28.9	1.0	48.7	0.7	13.2
함께 놀아주기	28.5	13.3	29.2	53.3	38.4	-	2.8	26.7	1.1	26.7
아플 때 간병	33.8	1.3	29.2	6.7	34.9	49.3	1.4	37.3	0.7	5.3
숙제/공부 돌봐주기	33.7	-	40.1	8.0	22.9	34.7	2.5	50.7	0.7	6.7
등하교 도와주기	33.0	2.8	31.5	13.9	29.6	36.1	5.6	40.3	0.4	6.9
옷 입히기	37.7	1.4	37.7	-	23.1	-	1.2	-	0.4	-
7세 이하 목욕	33.8	1.5	31.5	9.1	28.8	37.9	5.4	42.4	0.5	9.1
자녀 교육 계획세우기	27.3	2.8	28.8		41.6	54.2	1.5	36.1	0.7	6.9
평균	34.9	3.1	32.0	14.1	29.8	30.1	2.7	35.3	0.7	9.4

⑤ 자녀를 위한 양육 부담

자녀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대학교육까지는 딸과 아들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대학, 대학원, 결혼비용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부모로부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6> 자녀 양육비 부담 정도

(단위 : %)

구분	아들			딸		
	전적으로 부모책임	일부 부모책임	책임 없음	전적으로 부모책임	일부 부모책임	책임 없음
대학 교육비	58.1	40.1	1.1	56.9	41.6	1.6
대학원 교육비	19.5	61.8	18.7	16.9	62.9	20.1
미취업 자녀 용돈	25.3	52.6	22.1	23.6	52.1	24.3
결혼 준비비용	10.3	77.8	12.0	9.6	79.2	11.2
결혼시 자녀 집/전세마련	9.1	71.5	19.4	5.4	64.0	30.6
결혼한 자녀 생활비	1.1	9.4	89.4	0.6	8.5	90.9

이를 다시 응답자의 성별로 분석을 하게 되면 남성응답자의 경우 여성응답자와 달리 교육에 있어서는 전적인 책임과 함께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들의 학비에 대하여 낮은 비율이기는 해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나타남에 따라 대학 이상 상급학교 학비 등에 대한 자녀 스스로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

<표77> 20세 이상 자녀 양육비용

(단위 : %)

구분	아들 대학교육		딸 대학교육		아들 결혼비용		딸 결혼비용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전적으로 부모책임	56.7	66.3	54.6	65.2	9.2	13.9	8.6	13.0
일부 부모책임	41.9	33.7	43.4	34.8	77.9	77.2	78.7	81.2
부모 책임 없음	1.4		2.0		12.9	8.9	12.7	5.8

학력에 따른 아들 양육 부담에 대하여 딸과 일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78> 학력에 따른 자녀 양육

(단위 : 명)

구분	딸 대학교육			아들 대학교육			아들 결혼비용			딸 결혼비용		
	전적으로	일부	책임 없음	전적으로	일부	책임 없음	전적으로	일부	책임 없음	전적으로	일부	책임 없음
중졸이하	6	4	2	10	4	1	1	13	1	1	7	3
고졸	66	47	1	74	51	2	14	94	14	10	90	9
전문대졸	51	36	2	64	38	1	11	78	8	9	71	9
대졸	52	38	0	57	44	0	8	74	17	8	68	13
대졸이상	5	8	0	6	9	0	2	12	1	2	11	0
계	180	133	5	211	146	4	36	271	41	30	247	34

8) 일·가정 양립

① 결혼 전·후 취업형태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결혼을 전후 취업형태에 대하여 결혼직전까지는 전일제 고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에서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가사/학업/무직의 형태가 31.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둘째에서 셋째 출산 전 역시 가사/학업/무직과 함께 전일제 고용 비율이 23.3%로 나타났다. 출산을 다 마친 후 본격적인 양육시기에 있어서는 전일제 고용이 전체 응답자의 35.1%를 차지함에 따라 결혼과 육아 다시 취업의 전형적인 M곡선을 그리고 있다.

<표79> 결혼에서 자녀 양육시기까지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구분	결혼 전	결혼~ 첫째출산 전	첫째~ 둘째출산 전	둘째~ 셋째출산 전	양육기
가사/학업/무직	12.9	31.5	34.0	23.3	20.4
무급가족종사자	4.1	11.1	9.4	8.9	7.6
자영업/고용주	13.6	12.2	13.5	15.8	14.7
전일제 고용	47.5	26.5	22.5	23.3	35.1
시간제/임시고용	7.8	6.8	5.7	2.7	8.1
기타	9.8	6.8	7.4	8.2	6.6
비해당	4.4	5.0	7.4	17.8	7.6

② 가사분담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사 분담의 정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여성 응답자의 71.7%가 본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일·가정 양립에 상반되는 것으로 여전히 가사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가사전담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분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80> 가사분담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N	%	N	%
본인	329	71.8	93	20.3
배우자	80	17.4	220	47.9
본인의 어머니	13	2.8	10	2.2
배우자의 어머니	10	2.2	11	2.4
자녀(딸)	2	0.4	37	8.1
자녀(아들)	-	-	17	3.7
기타	2	0.4	12	2.6
무응답	23	5.0	59	12.8
계	436	95	459	100

③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 있어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활력과 가족구성원에게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로 경제적인 이득까지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얼마나 집안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는 전체적으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으나 여성이 느끼는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는 대부분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1> 여성이 체감하는 가사노동 시간

(단위 : %)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1~2시간 미만	21.2	56.8	26.6	46.3	29.4	49.6
2~3시간 미만	23.2	16.7	18.7	23.5	17.4	20.2
3~5시간 미만	29.5	17.5	23.1	21.3	23.3	17.3
5시간 이상	26.1	9.0	31.6	8.9	29.9	12.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그러나 반대로 남성 배우자가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대부분 1~2시간으로 이를 배우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사노동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역할이분법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담하고 있는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 관련 화폐 환산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4개월 된 딸을 키우는 38세의 전업주부의 경우 음식 준비 및 정리 시간 3시간30분, 세탁·다림질·바느질 등 의류관리 1시간30분, 청소 및 정리 40분, 시장 보기 등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30분, 가계부 정리·은

행·관공서 일 보기 등 가정경영 30분, 미취학 자녀 보살피기 5시간, 초등생 자녀 보살피기 2시간, 배우자 보살피기 20분 등 1일 총 가사노동시간이 14시간에 해당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432만9000여 원이 된다고 발표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홈페이지).

<표82> 남성이 체감하는 가사노동 시간

(단위 : %)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본인
1~2시간 미만	44.8	67.2	41.8	46.2	29.9	46.4
2~3시간 미만	17.9	14.8	7.5	29.2	14.9	37.3
3~5시간 미만	19.4	9.9	28.3	15.4	29.8	7.5
5시간 이상	17.9	8.1	22.4	9.2	25.4	8.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또한 불규칙한 업무시간, 과중한 업무량, 과중한 집안일, 양육으로 인한 갈등, 업무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등이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크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표83> 직장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직장 생활이 가정생활에 활력을 준다	36.2	40.1	17.2	4.0	2.5	100
직업 활동으로 가족에게 인정	35.8	44.3	14.5	2.8	2.6	100
직장생활로 경제적 풍요	24.6	42.9	24.3	4.6	3.6	100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가정생활 지장	9.2	27.8	23.5	24.4	15.1	100
과중한 업무량으로 가정생활에 지장	9.2	25.2	24.9	26.4	14.3	100
집안일로 업무 지장	3.7	12.0	21.8	39.3	23.2	100
자녀 양육 등 가정일로 직장 생활 갈등	5.0	21.1	17.5	31.6	24.8	100
업무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 발생	4.8	17.9	20.6	30.7	26.0	100

그러나 이를 다시 성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면 가족생활에 있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안일과 자녀양육의 경우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18.7%, 30.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응답자는 6.2%, 11.2%로 그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4> 직장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성별)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불규칙한 업무시간 가정생활 지장	10.1	6.2	29.5	22.2	20.9	32.1	24.3	24.7	15.3	14.8
과중한 업무량 가정생활에 지장	10.1	6.2	27.6	17.3	21.3	37.0	26.1	27.2	14.9	12.3
집안일로 업무에 지장	4.9	-	13.8	6.2	23.1	17.3	34.7	54.3	23.5	22.2
자녀 양육 등 집안일로 직장 생활 갈등	6.5	-	24.0	11.3	17.9	16.3	29.4	38.8	22.1	33.8
업무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	5.5	2.5	20.3	10.1	21.5	17.7	28.1	39.2	24.6	30.4

9) 건강과 여가

①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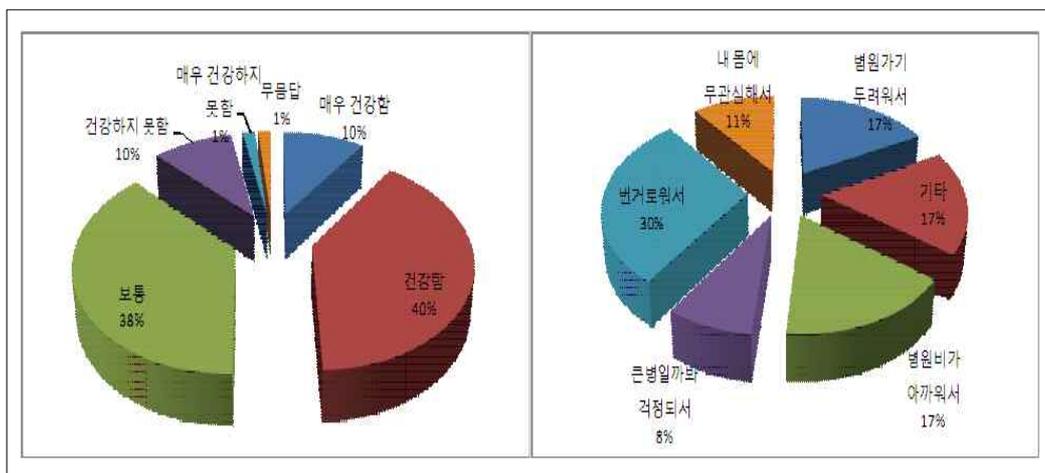
건강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39.9%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37.7%, 매우 건강하다 9.8%,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9.6%,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검진에 대하여 응답자의 52.9%가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진 받는 내용은 유방암이 전체 응답자의 22%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검진 2년에 1회, 정기검진 1년에 1회, 자궁암, 간암, 기타, 위암, 폐암 등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29.6%가 번거롭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17.5%, 기타 17.5% 병원비가 아까워서 16.6%, 내 몸에 대하여 무관심해서 10.8%, 큰 병일까 걱정되어서 8.1%로 나타났다.

<그림 34> 건강상태와 검진 받지 않는 이유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성별·연령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비교적 건강하다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응답하였다.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9.3%인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48.1%에 불과하였다. 또 보통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역시 남성은 응답자의 95.8%가 건강상태가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86.8% 수준으로 남성에 비하여 근소한 차이지만 건강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85> 성별·연령별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건강상태					
	매우 건강한편	건강한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건강하지 못한 편	
여	20대	4	6	3	1	0
	30대	11	43	48	10	1
	40대	11	70	59	20	5
	50대	6	18	25	8	1
	60대	-	2	3	1	-
	소계	32 (9.0)	139 (39.1)	138 (38.8)	40 (11.2)	7 (1.9)
남	20대	-	5	-	-	
	30대	8	12	10	1	
	40대	2	18	20	2	
	50대	3	7	5	1	
	60대	-	2	0	0	
	소계	13 (13.5)	44 (45.8)	35 (36.5)	4 (4.2)	
총계	45 (9.9)	183 (40.3)	173 (38.1)	46 (9.9)	7 (1.5)	

②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대하여 영화, 음악회, 전시관람, 스포츠 활동, 쇼핑, 외식, 관광/여행, TV시청, 컴퓨터게임 등의 정도 활동 정도에 대한 문항에 있어 TV시청을 가장 자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하면 근소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TV시청의 경우 여남 모두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스포츠 활동의 경우 남성 응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게임의 경우 여성이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지역에 맞는 가족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표86> 여가활동 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자주	자주	보통이다	자주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무응답	계
영화/음악/전시회관람	0.2	6.1	39.9	32.0	16.8	5.0	100
스포츠활동	0.9	12.0	34.9	30.3	16.8	5.1	100
쇼핑	2.2	19.2	49.9	18.5	5.0	5.2	100
외식	1.1	24.8	49.7	17.0	4.6	2.8	100
관광/여행	1.3	8.9	38.3	33.8	12.9	4.8	100
TV시청	12.2	36.2	31.8	11.1	4.6	4.1	100
컴퓨터게임	2.0	8.1	22.9	30.1	31.2	5.7	100

<표87> 여가활동 정도(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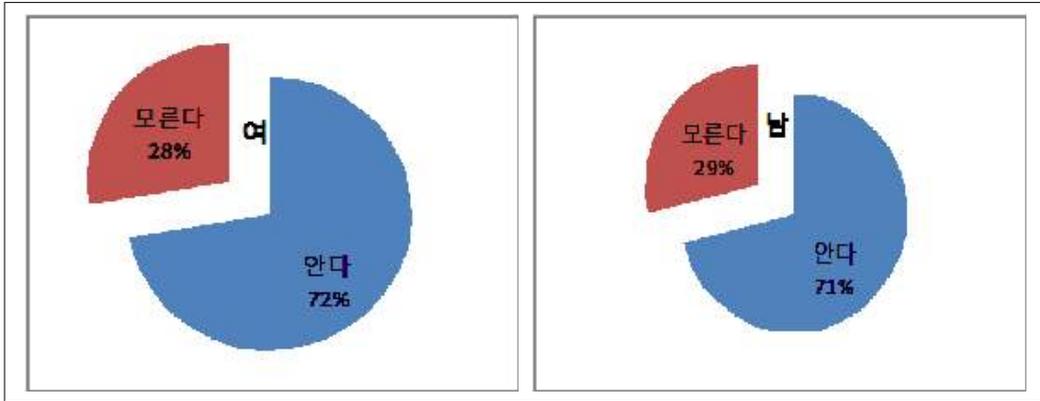
구분		영화/음악/전시회관람	스포츠활동	관광/여행	외식	쇼핑	TV시청	컴퓨터게임
매우 자주	여	0.3	0.3	1.7	1.1	2.0	13.2	2.4
	남	-	3.3	-	1.1	3.3	11.0	1.1
자주	여	6.1	10.2	8.4	23.7	20.7	37.2	8.8
	남	7.6	21.7	13.2	29.3	18.5	39.6	7.6
보통	여	41.3	34.7	38.7	51.1	51.9	33.0	22.6
	남	44.6	44.6	46.2	53.3	55.4	34.1	30.4
거의 하지 않는다	여	33.7	35.0	35.8	18.6	20.1	12.0	30.6
	남	33.7	20.7	34.1	14.1	17.4	9.9	37.0
전혀 하지 않는다	여	18.6	19.8	15.3	5.4	5.2	4.6	35.6
	남	14.1	9.8	6.6	2.2	5.4	5.5	23.9

10) 가족정책

① 가족정책 인지여부

가족정책 인지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평균 63.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35> 가족정책 인지(성별)



이를 다시 가족관련 20개 정책을 나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여성응답자와 남성응답자 사이에 알고 있는 정책이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여성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정책이 조금 많으나 보육료 지원이외 대다수의 정책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88> 인지하고 있는 가족정책(성별)

(단위 : %)

구분	보육료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무상 교육	다자녀 사랑 카드	출산 장려금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	저소득 수업료 지원	계
여	85.5	7.1	0.4	0.7	0.7	0.4	1.9	0.4	1.1	1.8	100
남	82.4	5.9	1.5	4.4	1.5	1.5	1.5	-	1.3	-	100

다음으로 가족정책 수행에 있어 만족여부에 대하여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간에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응답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5.2%에 불과한 반면 남성응답자의 경우 21.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89> 가족정책 추진에 따른 만족도(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매우 잘하고 있다	1.1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14.0	21.7
그저 그렇다	65.5	62.4
대체적으로 못하고 있다	14.1	7.2
전혀 못하고 있다	5.3	8.7
계	100	100

가족정책의 인지 경로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읍면동/시청 등 행정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나 가족정책에 전혀 관심 없다는 응답이 여성응답자는 8.5%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여성/가족 정책 추진에 있어 인지확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90> 가족정책 인지 경로(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읍면동, 시청 등 행정	17.6	6.5
인터넷 검색/홍보메일	21.8	21.7
언론(방송, 신문)매체	38.8	55.4
여성단체	5.9	1.1
기타	7.4	4.3
여성정책에 관심이 없다	8.5	11
계	100	100

② 가족정책을 위하여 시급한 부분

가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성응답자의 경우는 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성응답자의 경우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1> 가족정책을 위하여 시급한 부분 (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	25.6	39.4
관련 예산의 확대	27.4	25.5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19.4	22.3
여성 및 여성단체 협력	21.5	7.5
기타	6.1	5.3
계	100	100

③ 가족 관련 상담

아동이나 가족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가에 대하여 평균 53.8%가 희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응답자의 경우 남성응답자의 73.9%, 여성응답자의 경우 52.2%로 오히려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상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92> 가족상담 여부(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상담을 받고 싶다	47.8	26.1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	52.2	73.9
계	100	100

그러나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93>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 (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서	12.8	3.1
고가의 상담비용	7.1	-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서	29.1	35.9
상담기관 정보를 몰라서	24.5	21.9
기타	26.5	39.1
계	100	100

④ 일·가정양립 정책

가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무엇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정책들이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여성 41.5%, 남성 50.5%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여성은 평균 12.6%, 남성은 10.5%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근로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응답자의 9%가 제도들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3.4% 만이 제도가 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제도 자체가 있음에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높게 응답을 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있어 여전히 돌봄 노동의 경우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여성응답자와 남성 응답자의 빈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 동료들에게 부담되는 업무 가중을 가장 크게 꼽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상사의 눈치를 가장 많이 응답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 또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94> 일·가정 양립정책

(단위 : %)

구분		직장보육 시설	보육비 지원 제도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가족 간호제도	주5일 근무
많은도움이 된다	여	20.6	27.9	27.6	21.1	21.6	15.7	38.9
	남	26.3	33.3	27.6	27.6	26.3	25.7	40.0
도움된다	여	14.5	19.0	16.6	14.6	10.8	15.7	25.8
	남	13.2	17.9	22.4	19.7	22.4	20.3	31.3
보통	여	12.7	15.5	14.3	11.7	14.1	16.7	13.1
	남	17.1	14.1	14.5	17.1	15.8	17.6	10.0
별 도움 되지 않음	여	9.2	7.5	7.8	10.8	10.8	9.5	7.0
	남	7.9	5.1	6.6	3.9	2.6	5.4	3.8
전혀 도움 되지 않음	여	7.9	8.8	9.7	10.8	10.8	10.0	4.9
	남	-	3.8	3.9	5.3	5.3	5.4	2.5
제도있으나 사용한적 없음	여	13.6	9.3	15.2	19.2	22.1	13.3	4.9
	남	15.8	15.4	15.8	15.8	19.7	16.2	6.3
제도 없음	여	21.5	11.9	8.8	11.7	9.9	19.0	5.3
	남	19.7	10.3	9.2	10.5	7.9	9.5	6.3

<표95>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여부(성별)

(단위 : %)

구분	승진/ 승급 영향	회사 동료 에게 부담	과다한 업무	상사 눈치	해고 위협	수입이 줄어서	제도의 실효성 없어서	제도를 몰라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여	6.0	25.5	7.0	3.5	1.5	4.0	10.0	12.5	23.0	7.0	100
남	-	8.3	16.7	33.3	-	8.3	-	-	25.1	8.3	100

특히, 제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 응답자의 직업을 교차분석해본 결과 응답자의 33.3%가 서비스직이며, 사무직 21.4%, 전문직 14.3%, 기타 9.5%, 판매직 7.1%, 전업주부 4.8, 생산직 4.8%, 자영/상업 4.8%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들의 일자리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긴급/폭력서비스

여성긴급전화(1366), 노인학대예방센터(1389), 아동학대예방센터(1391), 주간보호센터, 저소득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직업훈련 등의 인지여부에 대하여 안다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는 평균 2.12%가 이용을 하였으며, 인지도는 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지와 행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96> 긴급/폭력 예방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여성)

(단위 : %)

구분	여성 긴급전화 1366	노인학대 예방센터 1389	아동학대 예방센터 1391	노인 주간보호 센터	저소득 보육료 교육비지원	저소득가정 직업훈련
이용해 본 적 있다	3.2	1.2	1.5	1.8	4.1	0.9
안다	76.5	60.1	76.8	61.2	70.9	60.6
모른다	23.5	39.9	23.2	38.8	29.1	39.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표97> 긴급/폭력 예방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남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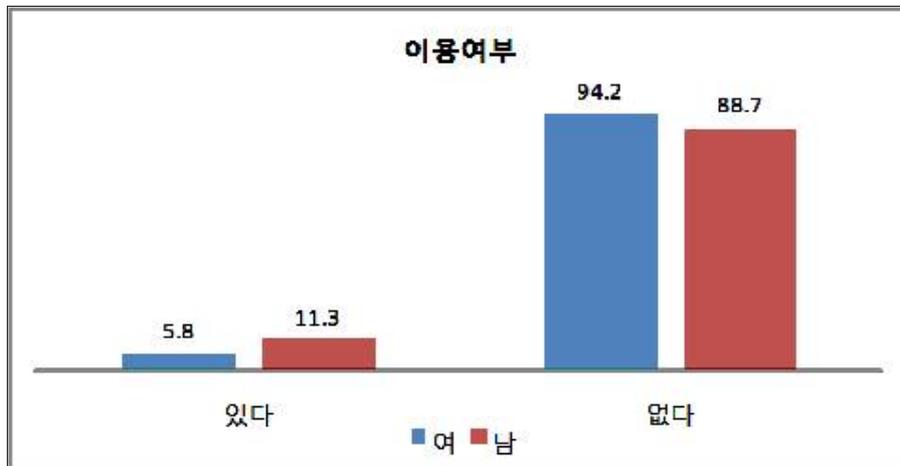
구분	여성 긴급전화 1366	노인학대 예방센터 1389	아동학대 예방센터 1391	노인 주간보호 센터	저소득 보육료 교육비지원	저소득가정 직업훈련
이용해 본 적 있다	2.2		1.1	1.1	4.3	3.2
안다	62.4	44.6	63.0	48.9	68.5	54.8
모른다	37.6	55.4	37.0	51.1	31.5	45.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여성응답자는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노인 학대예방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돌봄과 관련 인지도가 여성에 비하여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여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용 경험의 경우 여성 94.2%, 남성 88.7%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6>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여부



이용해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성은 21명으로 가족돌봄서비스 2명, 가족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4명, 가족문제해결프로그램 2명, 가족역량강화사업 1명,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3명,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3명, 노인역량강화 프로그램 1명,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5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모두 11명으로 가족돌봄 서비스 3명, 가족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2명, 가족문제 해결 프로그램 2명,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1명,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1명, 노인역량강화 프로그램 2명으로 나타났다.

⑦ 가족 해체 방지책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교육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부부교육 강화를 우선으로 꼽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상담 기관 특성화 전문화를 우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98> 가족해체 방지 대책(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교육	42.2	41.9
가족상담 기관 특성화 전문화	15.1	16.2
부부교육 강화	22.4	18.3
아동·노인 양육서비스 강화	15.6	20.4
기타	4.7	3.2
계	100	100

11) 지자체의 역할

① 여성을 위한 취업기반 구축

일자리에 있어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여성일자리 확대, 자녀를 위한 보육/방과후 시설 강화, 전문/특화 직업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9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역할(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전문화특성화 직업교육 실시	42.2	23.2
여성 일자리 확대	15.1	33.7
여성 취업 알선	22.4	8.4
자녀를 위한 보육/방과후 시설 강화	15.6	33.6
기타	4.7	1.1
계	100	100

②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정책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에 있어 지자체가 가장 우선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하여 여성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여성 인력 양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남성은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꼽았다.

<표100>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자체 관심 분야(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관련 정책 연구 강화	4.6	5.3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21.4	35.8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23.1	23.2
일자리와 연계되는 여성인력 양성	42.6	27.4
기업의 여성 채용에 따른 지원	7.4	7.4
기타	0.9	0.9
계	100	100

③ 여성건강지원 정책

지자체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는 여성암 검진 무료 실시를 꼽았으며, 남성응답자는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표101>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지자체 관심 분야(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여성 암검진 무료 실시	37.6	28.4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19.2	30.5
여성 전문병원 지정 운영	20.3	17.9
여성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9.9	4.2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11.0	15.8
기타	2.0	3.2
계	100	100

④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시책으로 모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은 취업과 창업 및 부업을 위한 직업 교육 기관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향후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102> 여성정책으로 우선 고려할 분야 (성별)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여	남	여	남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22.8	21.1	5.7	9.6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5.7	9.5	7.4	6.4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5.1	6.3	3.0	3.3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 지원			4.2	1.1
미혼모 보조 및 지원	2.3	2.1	2.1	7.4
독거 여성 노인 생활보조	2.8	7.4	9.8	7.4
여가 및 문화, 취미 활동 시설	10.9	14.7	9.3	13.8
가족 문제 관련 상담 시설	11.1	6.3	15.2	7.4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및 체육시설	20.8	16.8	14.3	10.6
취업과 창업 및 부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	16.2	13.7	25.4	30.9
여성을 위한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1.7	2.1	3.3	2.1
기타	0.6	-	0.3	-
계	100	100	100	100

⑤ 저출산 대응 정책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 시급하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는 보육료무상지원을 꼽았으며, 남성응답자의 경우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간에 선호하는 시책의 차이는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정책의 1회정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03> 출산장려에 필요한 시책(성별)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여	남	여	남
육아휴직제도 시행 및 감독 강화	21.8	21.6	13.5	11.3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급(첫째아부터)	12.5	23.7	11.9	19.6
출산시 출산용품 무상 제공	3.0	7.2	0.8	6.2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9.7	12.4	19.1	13.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3.5	12.4	7.7	1.0
보육료 무상 지원	28.2	15.5	28.2	34.0
영유아 무료 검진 서비스	3.0	4.1	4.7	5.2
불임부부 지원 확대	1.9	1.0	6.6	4.1
기타	1.4	2.1	1.1	1.1
무응답	5.0	-	6.4	4.1
계	100	100	100	100

12) 평생교육

① 교육 기관 이용시 고려 부문

평생 교육에 있어 교육을 신청하는데 가장 고려하는 부문에 대하여 응답자 모두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교육 욕구로 향후 연구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표104> 교육 신청에서 가장 고려하는 부분(성별)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여	남	여	남
교육비용	24.3	21.6	7.5	11.3
희망하는 프로그램	29.3	42.3	20.7	21.6
희망하는 교육시간	15.2	16.6	18.2	21.6
거리와 교통수단	3.3		16.0	17.6
교육받는 동안 가계 경제 문제	16.0	10.3	8.8	4.1
교육 받는 동안 아이 돌봄	4.4	1.0	8.0	8.3
원하는 프로그램의 조기 마감	2.2	1.0	4.1	-
프로그램 관련 정보 부족	1.4	1.0	6.4	10.3
기타	-		0.8	-
평생교육에 관심 없음	3.9	6.2	9.5	5.2
계	100	100	100	100

② 향후 개설 희망 교육

향후 평생교육 기관 이용시 개설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취미, 교양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5> 평생교육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성별)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여	남	여	남
취미, 교양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25.7	45.4	20.4	16.5
여성 리더십교육	14.4	6.2	11.6	4.1
여성의식교육(양성평등 등)	5.0	-	7.7	3.1
외국어 교육	18.8	15.5	10.2	15.5
정보화교육	8.6	11.3	17.4	19.6
자원봉사를 위한 전문교육	6.4	5.2	14.9	17.5
취업 또는 창업교육	18.8	14.4	8.8	15.5
기타	2.3	2.0	9.0	8.2
계	100	100	100	100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률과 연계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율이 저조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13) 사회참여

①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분야

평소에 해보고 싶은 사회활동에 대하여 문화, 취미, 학습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평생교육관련 선호 프로그램과도 동일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표106> 희망하는 사회활동 분야 (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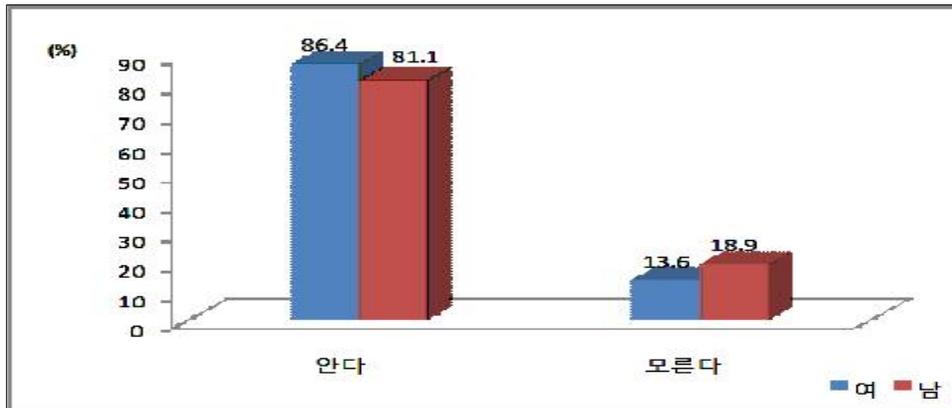
구분	여	남
자원봉사	35.1	26.1
학교 운영 등 학부모 활동	2.3	1.1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	13.9	6.5
부녀회, 자치회 등 지역사회활동	4.3	2.2
문화, 취미, 학습활동	35.7	51.1
정치(정당)활동	1.4	3.3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4.1	2.2
종교 활동	2.0	2.2
기타	1.2	5.3
계	100	100

② 여성단체 역할

제주도내 여성단체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균 83.8%가 알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7> 여성단체 인지 여부



여성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응답자 모두 여성의 고용촉진 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표107>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성별)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여	남	여	남
여성정치활동지원(후보지원, 의정감시)	5.0	6.2	3.6	2.1
여성의식교육(양성평등, 권리, 리더십 등)	18.2	20.6	21.8	13.8
여성고용촉진활동(취업, 창업 교육 등)	44.2	41.2	8.8	9.6
여성문화활동(공연, 전시, 영화제 등)	3.3	2.1	18.0	20.2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10.8	10.3	6.9	6.4
주민생활개선 운동	1.1	3.1	9.4	26.6
중앙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0.6	2.1	1.7	-
여성단체 간 연대 사업	0.3	2.1	4.1	3.2
아이 지키기 사업	6.6	3.1	7.5	8.5
여성 폭력 근절 사업	1.4	-	6.1	4.3
여성정책 감시 및 제안 활동	4.4	6.2	4.7	5.3
기타	4.1	3.0	7.4	-
계	100	100	100	100

③ 언론과 여성정책

지역 언론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48.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응답자 40.2%, 여성응답자 42.7%가 언론이 여성정책 보도에 있어 소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표108> 언론의 여성정책 관심정도(성별)

(단위 : %)

구분	여	남
매우 높은 편	2.5	3.1
높은 편	6.6	5.2
보통	48.1	51.5
낮은 편	31.5	33.0
매우 낮은 편	9.4	7.2
무응답	1.9	-
계	100	100

V.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결과와 제언

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실태 조사 결과 요약

2009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 가족형성, 부부관계, 결혼에 대한 가치관, 가족 가치관, 노후생활, 자녀양육, 일·가정 양립, 건강과 여가, 가족정책, 지자체역할, 평생교육, 사회참여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 제주시 74.1%, 서귀포시 25.9%로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주요 특성은 연령별로 20대 4.4%, 30대 31.4%, 40대 45.5%, 50대 16.8%, 60대 2.0%이다. 학력수준은 중졸 5.4%, 고졸이하 36.4%, 전문대졸 27.5%, 대졸 26.8%, 대학원졸 3.3%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 18.5%, 사무직 16.3%, 생산직 1.5%, 서비스직 20.7%, 판매직 3.9%, 관리직 2.8%, 자영·상공업 7.6%, 전문직 15.3%, 농업 4.4%, 기타 2.6%, 직업 없음 4.1%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52.9%, 3명 19.0%, 1명 16.2%, 없음 8.7%, 4명이상 2.2%로 나타났으며 가족 형태는 부부+미혼자녀(핵가족) 66.4%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부부가구 12.4%, 조부모+부모+미혼자녀(확대가족) 9.6%, 단독가구 7.6%, 조손가구 0.2%, 한부모가족 3.7%이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맞벌이가 전체 응답자의 53.8%로 나타났다.

2) 가족형성

배우자를 만나는 경로는 친구를 통해서 46.6%, 기타 30.5%, 친척소개 13.5% 등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친구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혼 당시 배우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집안, 능력, 가풍 등 3가지가 중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특히 집안의 분위기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었으며, 비슷한 수준과 분위기가 좋은 집안에 성장하고 경제적인 부분 역시 예정자가 서로 비슷한 가문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경제력, 직업 등 남성의 커리어에 중점을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경제력 다음으로 외모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비용은 본인의 저축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양가 비슷한 비용 부담 25.7%, 둘의 저축 13.1% 등으로 결혼 당시 결혼 비용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처음 거주지에 대하여 양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구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부모님 댁, 남편의 부모님 댁 가까이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혼 당시 분가를 하지 않을 경우 대체적으로 남편의 집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족 형성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 경제수준이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였으며, 결혼 비용 역시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결혼 초기 주거 선택에 있어 남자배우자의 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여전히 부부만의 공간을 구하기보다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의한 거주공간을 제공 받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부부관계

현재 부부관계는 보통이 전체 응답자의 33.2%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스럽다 24.6%, 약간 만족스럽다 22.9%로 나타났다.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0.4%가 현재 부부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41.1%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하고 챙겨주는 정도에 대하여 남성의 경우 64.8%, 여성은 50.6%가 상대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남성은 47.2%, 여성은 40.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신뢰에 있어 여성은 54.4%가 긍정적인 응답을 답한 반면 남성은 68.9%가 긍정적인 응답과 함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성 응답자의 40%를 차지함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능력에 있어 남성은 여성의 능력에 대하여 68.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성은 남성에 대하여 51.2%로 낮게 나타났다. 동반자관계에 대하여 여성은 55.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72.5%가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함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친밀하고 신뢰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녀교육문제, 생활비관리, 투자 및 재산관리는 주로 아내가 비교적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영역은 부부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명의에 대하여 여성은 58.0%가 본인의 명의로 재산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8.4%가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적금/저축, 자동차, 주택(전세포함), 땅 등 기타 부동산 등의 순이며, 남자의 경우 적금/저축, 자동차, 주택, 부동산, 주식/채권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의견 조율에 있어 의견 충돌시 29%가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의 화목 정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 응답

자의 69.6%로 비교적 가족구성원 간에 갈등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배우자와의 평소 대화정도에 대하여 자주 한다가 49.8%, 가끔 한다 39.7%, 거의 하지 않는다 10.5%로 응답자 10쌍 가운데 1쌍은 부부간의 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자녀문제 64.7%, 돈/경제와 관련된 26.1%로 자녀교육과 경제활동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평소 배우자와의 부부싸움에 대하여 싸움의 정도에 대하여 67%가 거의 싸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싸움의 정도에 대하여 자주 싸우는 부부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4회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며, 가끔 싸우는 경우는 일주일에 3회, 거의 싸우지 않는 경우는 한 달에 1회 정도로 나타났다.

부부싸움 도중 무력적인 폭력발생 여부에 대하여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12%로, 최근 1년 사이 1회 정도의 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폭력 유형에 대하여 고함 63.2%, 음박지르기 10.5%, 물건부수기 5.3%, 자녀체벌 5.3%, 따귀 3.5%, 주먹질 3.5%, 자해 1.8%, 기타 1.8%, 무응답 7%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부모 부양, 제사에 대한 갈등은 비교적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갈등에 있어서는 생활방식, 생활습관, 자녀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사 및 육아분담, 가계경비 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 내 갈등 유형은 당사자 간의 갈등과 자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상담기관 이용은 여성 13.9%, 남성 8.2%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제주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부부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산 등 대표적인 권리 부분에 있어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 갈등의 원인이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댁 문제 등 전형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부부만의 문제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4) 결혼에 대한 가치관

갈등이 생겼을 경우 결혼 생활 유지에 대하여 유지해야한다 44.9%, 아니다 25.5%, 잘 모르겠다 22.9%로 응답함에 따라 가족 갈등시 가족해체로 전개 될 수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혼인관계 지속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53.6%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가족해체에 있어 지속관계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해체의지가 비교적 높은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심각한 갈등에도 가족이 유지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유지 이유가 자녀문제, 가족 실망,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자녀문제, 가족 실망,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으로 아직은 사회적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경제적인 자립 문제가 가족해체시 우선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후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가끔 있다 40.1%, 자주 11.1%로 10쌍 가운데 1쌍은 자주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10쌍 가운데 4쌍은 한번정도 이혼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가끔 고려 45.5%, 자주 고려 12.9%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가끔 고려 20.7%, 자주 고려 7.6%로 앞서 갈등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가족 유지 의지가 조금 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혼이라면 결혼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반드시 한다 15.2%, 되도록 할 것이다 33.6%,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22.0%,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13.8%, 잘 모르겠다. 15.4%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 결혼은 필수라는 가치관과 달리 결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35.8%로 나타남에 따라 단독가구의 증가, 만혼, 결혼 기피 현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37.9%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제적 안정이 되지 않아서 14.7%, 일/학업 등에 몰두해보고 싶어서

14.2%, 현재의 결혼제도가 불편해서 12.6%,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11.6%, 기타 5.3%, 자녀 출산의 부담 3.7%로 나타남에 따라 부부로 가족을 형성함에 따라 다중의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보다 혼자 사는 것을 오히려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혼 의사 결정을 살펴보면 여성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고려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1%로 10명 가운데 1명만이 반드시 결혼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33.3%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비교적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 지속에 있어 여성응답자 남성에 비하여 지속관계를 덜 희망함에 따라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기보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서서히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5) 가족 가치관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 63.6%, 피로 맺어진 사람 24.2%로 사랑과 혈연을 중요한 가족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가정에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계시거나 향후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하여 33.5%가 가족이 함께 살며 돌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간병인의 서비스를 받기, 병원이나 시설에 모시기, 가까운 곳에 모셔 가족이나 간병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 가족 부양에 대한 의견은 여성의 경우 가족이 함께 살며 간병인 서비스(27.9%)가 가장 높은 응답을 한 반면 남성의 경우 가족이 함께 살면 가족이 간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8.3%를 차지함에 따라 남성의 경우 돌봄을 가족내부에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혼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 많으나 재혼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INK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여러 명의 자녀와 달리 한명의 자녀에게 집중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동육아와 공동 가족 부양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되고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 돌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응답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뚜렷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에 대한 물음에 있어 공동 부양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적극적인 응답을 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여성에게 가계부양에 대한 관습을 그대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녀양육 및 가족간호 역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직장을 포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역시 여성들에게 돌봄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뿌리 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혼인에 대한 가치관으로 비혼모와 혼전동거에 대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인 제약으로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를 남성들이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6) 노후 생활

응답자 평균 67.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연금 53.6%, 개인연금 14.1%, 공무원 연금 11.7%, 예금/적금 11.7%, 퇴직금 2.4%, 기타 3.9%, 부동산 2.1%, 주식/채권 0.6%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후 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가구원은 배우자와 단둘이 66.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여성응답자는 시설입소, 혼자, 자녀, 기타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응답자의 경우 자녀, 혼자, 시설입소, 기타 순으로 우선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에 대하여 운동/독서/여행 등 취미활동 43.1%, 지속적인 경제활동 29.8%, 자원봉사 15.6%, 외국어/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학습 6.1%, 가사 또는 손자녀 돌보기 2.5%, 기타 1.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희망 노후 생활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7.7%인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과 취미활동을 제외하면 두드러지는 여가 활동을 희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 정책은 경제자립지원 38.6%, 취업지원 30.4%, 노인전문병원/요양시설 확대 13.1%, 여가시설 확대 6.2%, 간병/요양서비스 확대 6.0%,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2.7%, 노인우대 할인제도 확대 2.4,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취업과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 오히려 취업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가정에 어르신이 계신 경우 경로당 이용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32.9%가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45.7%, 남성 응답자의 51.7%가 경제적인 곤란함이 여가활동의 제약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경로당에 대한 개선점에 있어서 프로그램 개선 53.3%, 접근성 15.7%, 시설 개선 13.6%, 식사 제공 8.7%, 저렴한 이용료 5.0%, 기타 3.7% 순으로 나타났다.

유산 상속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4.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사회 환원 25.3%, 자녀에게만 12.4%, 사회 환원 2.9%, 배우자에게만 2.7%, 기타 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만 상속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만나는 날에 대하여 제사(기일)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모임, 친지결혼, 친지초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 개인의 관심사 들어드리기, 집안일, 병원에 모셔가기 등은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 함께 여행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단위 여행의 패턴에 있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자녀위주의 유형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자녀양육

미취학 자녀 가운데 첫째 자녀의 보육방법에 대하여 응답자의 60%가 시설에 보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16.2%, 자녀의 부모 13.2%, 조부모나 친지 5.9%, 학원 2.9%, 베이비시터나 이웃사람 1.5%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 역시 보육시설이 67.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녀의 부모 13.8%, 유치원 10.3%, 조부모나 친지 6.9%, 학원 1.3%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역시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응답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돌봄의 공공화가 부분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기타 32.6%, 산모고령 19.1%, 양육 및 교육비 부담 19.1%, 부부 애정만으로 충분해서 11.2%, 건강상의 이유 9.0%, 일과 자녀 돌봄 양립의 어려움 6.7%, 혼자 육아 부담으로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출산 여부에 대한 생각에 있어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낳을 계획이 있다 33.1%,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9.1% 순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 할 경우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1명으로 64.8%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명 21.6%, 3명 6.8%, 4명 2.3%, 5명 이상 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응답

자의 출산에 대한 욕구는 3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가운데 60.6%가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61.6%, 남성 전체 응답자의 56.7%로 여성의 경우 출산지원 정책과 자녀 출산이 비교적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57.7%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출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시설의 증가를 희망하는 것은 보육교사 대비 보육 아동의 숫자를 OECD 수준¹⁴⁾으로 향상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미취학자녀를 맡기는 곳에 대하여 응답자의 46.5%가 조부모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였으며, 친인척 14.8%, 규모가 큰 어린이 집 13%, 규모가 작은 놀이방 11.6%, 육아 경험이 있는 이웃주민 6.7%, 기타 3.9%, 집에 오는 보육모 3.5%로 나타남에 따라 1차적으로 시설에 자녀를 위탁하고 긴급사항의 발생에서는 조부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직장내 보육시설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자녀의 방과후 활동에 대하여 평균 58.8%가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 방과후교실 18.3%, 특별히 다니는 곳 없음 14.7%, 지역아동센터 4.7%, 사회복지관 0.5%, 기타 3.0%로 자녀가 방과후 활동이 조사되었다.

방과후 지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8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방과후 지도를 위하여 선호하는 기관으로 초등학교 51.4%, 지역아동센터 16.4%, 도서관/박물관 11.1%, 청소년문화시설 7.2%, 사설학원 5.8%, 사회복지관 2.8%, 기타 2.2%,

14) 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에 따르면 2006년 보육교사의 경우 OECD 평균 교사 1명당 13.9명을 전담하고 있다. 가장 아동 전담이 많은 나라는 Mexico 28.1명이며,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19.6명, United Kingdom(Includes only general programmes in upper secondary education), Chile 1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http://browse.oecdbookshop.org/oecd/pdfs/browseit/9608041E.PDF>)

주민자치센터 1.9%, 종교시설 1.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과후지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는 사설 학원 이용 39.1%,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33.7%, 기타 27.2%로 나타남에 따라 성적위주의 학습을 방과후 지도로 하길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과후 지도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정서/사회성을 지도 40.6%, 언어 및 독서지도 18%, 기본생활습관/안전지도 13.3%, 숙제 및 학습지도 13%, 음악/미술 등 특별활동 12.5%, 놀이지도 1.8%, 기타 0.8%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원을 선호하면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정서/사회성을 희망함에 따라 소자녀화에 따른 협동심, 인성 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에게 희망하는 가치는 책임감,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높은 가치로 응답되었다.

자녀 돌봄에 간식/식사 등 밥 먹이기,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공부 돌봐주기, 등하교, 옷 입히기, 7세 이하 자녀 목욕시키기, 자녀교육계획세우기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로 여성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78.9%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대학교육까지는 딸과 아들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대학, 대학원, 결혼비용 등은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부모로부터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결혼을 전후 취업형태에 대하여 결혼직전까지는 전일제 고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에서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가사/학업/무직의 형태가 31.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둘째에서 셋째 출산 전 역시 가사/학업/무직과 함께 전일제 고용 비율이 23.3%로 나타났다. 출산을 다 마친 후 본격적인 양육시기에 있어서는 전일제 고용이 전체 응답자의 35.1%를 차

지함에 따라 결혼과 육아 다시 취업의 전형적인 M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사 분담의 정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여성 응답자의 71.7%가 본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 있어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활력과 가족구성원에게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로 경제적인 이득까지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얼마나 집안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는 전체적으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으나 여성이 느끼는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는 대부분 1~2시간 미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 배우자가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대부분 1~2시간으로 이를 배우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사노동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역할이분법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담하고 있는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규칙한 업무시간, 과중한 업무량, 과중한 집안일, 양육으로 인한 갈등, 업무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등이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크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집안일과 자녀양육의 경우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18.7%, 30.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응답자는 6.2%, 11.2%로 그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건강과 여가

건강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39.9%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37.7%, 매우 건강하다 9.8%,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9.6%,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9%가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검

진 받는 내용은 유방암이 전체 응답자의 22%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검진 2년에 1회, 정기검진 1년에 1회, 자궁암, 간암, 기타, 위암, 폐암 등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29.6%가 번거롭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17.5%, 기타 17.5% 병원비가 아까워서 16.6%, 내 몸에 대하여 무관심해서 10.8%, 큰 병일까 걱정되어서 8.1%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성별·연령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비교적 건강하다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응답하였다.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9.3%인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48.1%에 불과하였다. 또 보통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역시 남성은 응답자의 95.8%가 건강상태가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86.8% 수준으로 남성에 비하여 근소한 차이지만 건강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활동에 대하여 영화, 음악회, 전시관람, 스포츠 활동, 쇼핑, 외식, 관광/여행, TV시청, 컴퓨터게임 등의 정도 활동 정도에 대한 문항에 있어 TV시청을 가장 자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과 여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야간 프로그램 등을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삶의 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 등의 마련을 통해 가족관계에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10) 가족정책 인지

가족정책 인지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평균 63.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개 정책 가운데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여성응답

자들이 알고 있는 정책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응답자 모두 보육료 지원이외 대다수의 정책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정책 수행에 있어 만족여부에 대하여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간에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응답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5.2%에 불과한 반면 남성응답자의 경우 21.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정책의 인지 경로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 읍면동/시청 등 행정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나 가족정책에 전혀 관심없다는 여성응답자가 8.5%로 나타났다.

가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성응답자의 경우는 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의 수혜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성응답자의 경우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나 가족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가에 대하여 평균 53.8%가 희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응답자의 경우 남성응답자의 73.9%, 여성응답자의 경우 52.2%로 오히려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상담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무엇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정책들이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여성 41.5%, 남성 50.5%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여성은 평균 12.6%, 남성은 10.5%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근로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응답자의 9%가 제도들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3.4% 만이 제도가 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제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 응답자의 직업을 교차분석해본 결과 응답자의 33.3%가 서비스직이며, 사무직 21.4%, 전문직 14.3%, 기타 9.5%, 판매직 7.1%, 전업주부 4.8, 생산직 4.8%, 자영/상업 4.8%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들의 일자리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 노인학대예방센터(1389), 아동학대예방센터(1391), 주간보호센터, 저소득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직업훈련 등의 인지여부에 대하여 안다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는 평균 2.12%가 이용을 하였으며, 인지도는 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지와 행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성응답자는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돌봄과 관련 인지도가 여성에 비하여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용 경험의 경우 여성 94.2%, 남성 88.7%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해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성은 21명으로 가족돌봄서비스 2명, 가족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4명, 가족문제해결프로그램 2명, 가족역량강화사업 1명,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3명,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3명, 노인역량강화 프로그램 1명,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5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모두 11명으로 가족돌봄 서비스 3명, 가족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2명, 가족문제 해결 프로그램 2명,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1명,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1명, 노인역량강화 프로그램 2명으로 나타났다.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교육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부부교육 강화를 우선으로 꼽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상담기관 특성화 전문화를 우선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가족양립 또는 가족친화 경영, 가족친화 정책 등 체감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여성상담기관 및 여성폭력 예방 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수혜자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1) 지자체의 역할

일자리에 있어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여성일자리 확대, 자녀를 위한 보육/방과후 시설 강화, 전문/특화 직업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에 있어 지자체가 가장 우선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하여 여성은 일자리와 연계되는 여성 인력 양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남성은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꼽았다.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는 여성암 검진 무료 실시를 꼽았으며, 남성응답자는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시책으로 모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은 취업과 창업 및 부업을 위한 직업 교육 기관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향후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 시급하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는 보육료 무상지원을 꼽았으며, 남성응답자의 경우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응답자와 여성응답자간에 선호하는 시책의 차이는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정책의 1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정책 요구로 저소득가정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가장 선호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한부모가구가 곧 저소득가구와 연결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우선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손자녀 가구 및 소년소녀가정과 함께 연계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업능력 관련 욕구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의 특성상 제조업의 발굴 보다 서비스 업종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

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우선 연계될 필요가 있다.

12) 평생교육

평생 교육에 있어 교육을 신청하는데 가장 고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응답자 모두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교육 욕구로 향후 연구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평생교육 기관 이용시 개설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취미, 교양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률과 연계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율이 저조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13) 사회참여

평소에 해보고 싶은 사회활동에 대하여 문화, 취미, 학습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평생교육관련 선호 프로그램과도 동일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내 여성단체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평균 83.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응답자 모두 여성의 고용촉진 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다.

지역 언론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48.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응답자 40.2%, 여성응답자 42.7%가 언론이 여성정책 보도에 있어 소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 제언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의 가치나 문화 구조 등 많은 면이 빠르게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 참여에 따른 돌봄 공백 등 다른 양상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실태를 파악하여 제주의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정책의 근본 기저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여 가족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가족의 돌봄을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가족의 건강과 여가활동의 증진, 가족의 삶의 질과 노후 생활 보장, 가족정책에 있어 계층간 차이를 줄이는 것 또한 정책 수립에 있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가족정책 수립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족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관계는 부부간의 공동 결정과 함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등 여성의 공헌이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족 정책의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의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돌봄의 경감이 체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돌봄의 경감은 가족 규모의 축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단독가구 증가 등 돌봄의 공백과 기능의 약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결혼 기피와 만혼 등으로 가족의 기능 가운데 중요

한 재생산의 기능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응답자들 역시 출산장려금지원 등 일회적이 정책이 출산으로 유입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출산 이후 양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정서적인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의 생애 주기¹⁵⁾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의 추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 형성기, 유아기 가족, 학령기 가족, 청소년기 가족, 확대가족,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 등 가족의 발달주기별 서비스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 돌봄을 위한 돌봄에 종사하는 가족의 쉼(休)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15) 가족주기에 따른 가족 발달과정(유영주 외, 1960, 재인용 및 내용 재구성)

부부만의 시기 (Married couple)	아내, 남편	-서로 만족하는 결혼생활 -임신과 부모됨 적응 -친족관계 형성 기간
자녀출산 및 양육기 (Child-bearing & rearing)	아내-어머니 남편-아버지 영아기 자녀	-자녀 출산과 적응 -영아 발달 -부모, 영아 중심의 가족 형성
학령전기 (Preschool age)	아내-어머니 남편-아버지 딸-자녀 아들-형제	-성장 자극·촉진을 위한 취학전 아동 돌봄 -부모 에너지 소모와 사생활 축소
학동기 (School age)	아내-어머니 남편-아버지 딸-자매 아들-형제	-학동기 아동을 위한 가족 공동체 형성 -아동의 교육 성취
청소년기 (Teen age)	아내-어머니 남편-아버지 딸-자매 아들-형제	-자녀의 성숙한 청소년기, 돌봄 경감 부담 해소 -성숙한 부모로서의 자실과 능력
진수기 (Launching period)	아내-어머니-할머니 남편-아버지-할아버지 딸-자매-숙모 아들-형제-삼촌	-적절한 의식, 사회 도움으로 대학입학, 군입대, 취직, 결혼 등 직면 -지지기반으로서의 가정 기능 유지
중년기 (Middle aged parents)	아내-어머니-할머니 남편-아버지-할아버지	-결혼관계 다시 초점 -신·구세대 친족 결속력 필요/유지
노년기 (Aging family members)	과부, 홀아비 아내-어머니-할머니 남편-아버지-할아버지	-은퇴적응 -배우자 사망 혹은 혼자 남기 -가족 해체, 가족 종말 적응

가 있다. 즉, 요양보호제도, 가족간호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은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휴가 프로그램 등이 마련 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여가가 TV시청으로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부부 여가 프로그램, 부모자녀 여가 프로그램, 노년기 부부 여가 프로그램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5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의 추진을 제언한다.

첫째,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 전환 프로그램으로 문화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여성 의식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의식 변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의식전환 수준으로 남성의 인식이 제고될 때 출산과 돌봄의 문제,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가 형성 될 수 있다.

둘째, 아동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출산장려금과 다른 아동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교육비 부담에서 확장 중산층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까지 확대 양육비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원어민교사, 국공립확대, 방과후교실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사교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 돌봄을 위한 인프라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요양보호제도 시행으로 돌봄의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 노인의 특성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건장

관리 프로그램, 일자리 등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제주도내 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상자의 발굴과 함께 서비스 수혜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의 확대 등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 가족 여가 프로그램을 추진해야한다. 현재 43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취미 중심의 평일 낮 프로그램으로 수혜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저녁,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 운영과 함께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족정책이 총괄 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가족지원계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점검할 수도 있으며, 가족정책을 발굴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생산 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언하였다. 소득보전과 고용지원, 시설 중심 등 소극적인 가족 정책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의 변화가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저출산, 가족해체, 고령화 등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정옥 외(2009), 「건강가정론」, 창지사.
- 문현아(2005), “국가는 가족정책을 여성주의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여성이론 통권 제13호(2005. 겨울), pp10-33.
- 변화순·백경희·김현주(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조은희(2003).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최윤정(2004).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송수진·이현의·이화정·조혜경(2007), 「2007 충북 가족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여성한국사회 연구회(1994),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1994.10.7 90년대 가족연구 제4회 심포지엄 자료집
- 이미원 외(2005), 「대구 여성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구광역시.
- 이진숙(2002), “한국 가족 정책의 현실과 전망-범주별 정책 분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제22집.
-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 외(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정영태 외(2007),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각년도, 주요통계.

조경욱·박재규·한승주(2005), 「전라북도 가족실태 조사 2005」. 전북발전연구원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 각년도.

허남순 외(2006), 「2006년 강원도 가족실태 조사」.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OECD. 2008. <http://browse.oecdbookshop.org/oecd/pdfs/browseit/9608041E.PDF>

인터넷 검색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net>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경기도 홈페이지 <http://portal.gg.go.kr>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www.cb21.net>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jeonnam.go.kr>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yeongbuk.go.kr>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인터넷 한국일보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6/e20>

09062 317391393760.htm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실태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를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 정책연구기관으로써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개별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파악한 개별가족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의 체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쪼록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4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향진

연구책임 :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초빙연구원
☎ 064-726-6210 FAX 064-726-7410

거주지	시 읍면동		응답자성별	①여	②남
연 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학 령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졸
직 업	①전업주부 ②사무직 ③생산직 ④서비스직 ⑤판매직 ⑥ 관리직 ⑦자영·상공업 ⑧전문직 ⑨농사 ⑩직업없음 ⑪기타(구체적:)				
월평균소득	①100만원미만 ②100~200만원 미만		③200~300만원 미만 ④300~400만원미만 ⑤400~500만원 미만 ⑥소득없음		
자 녀	①없음	②1명	③2명	④3명	⑤4명이상
가족형태	①혼자(단독가구) ②부부만산대(부부가구)		③부부+미혼자녀(핵가족) ④조부모+부부+미혼자녀(확대가족)		
가족경제활동	①홀벌이 ②맞벌이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 관한 문항으로 V를 하여 주시고 ()안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주십시오

I. 부부관계와 관련된 사항

1. 현재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별거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2. 귀하는 언제 처음 결혼하셨습니까? _____ 년도 _____ 월
3. 귀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이혼 및 재혼의 경우 첫 번째 결혼을 결정할 때를 말합니다)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척소개
④ 친구(미팅, 소개팅 포함) ⑤ 전문중매인 ⑥ 결혼정보회사
⑦ 인터넷 ⑧ 기타(구체적_____)
4. 결혼 당시 귀하의 집안과 배우자의 집안의 수준(교육, 경제, 문화 수준 등 전반적인 면)은 어떠했습니까?
① 배우자의 집안이 훨씬 더 높았다 ② 배우자의 집안수준이 약간 더 높았다
③ 비슷했다 ④ 나의 집안수준이 약간 더 높았다
⑤ 나의 집안수준이 훨씬 더 높았다
5. 귀하는 결혼 당시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무엇입니까?(2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장남여부 ② 경제력 ③ 직업 ④ 나이
⑤ 학력 ⑥ 종교 ⑦ 외모 ⑧ 출신지역
⑨ 사랑 ⑩ 건강 ⑪ 기타(구체적_____)
6. 귀하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의 집안 특성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무엇입니까?(2개까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결혼 후 부양문제 ② 배우자 부모 생존여부 ③ 집안의 경제수준 ④ 집안의 분위기
⑤ 집안의 사회적 지위 ⑥ 집안의 종교 ⑦ 고려하지 않음 ⑧ 기타(구체적_____)
7. 결혼 당시 결혼 비용은 주로 어떻게 충당하였습니까?(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본인 저축 ② 배우자 저축 ③ 둘의 저축이 비슷하게
④ 본인의 빚/대출 ⑤ 배우자의 빚/대출 ⑥ 시집/본가의 지원
⑦ 친정/처가의 지원 ⑧ 양쪽 가족이 비슷하게 ⑨ 기타(구체적_____)
8. 결혼 직후 귀하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① 아내의 부모님 댁 ② 남편의 부모님댁 ③ 아내의 부모님 댁 가까이
④ 남편의 부모님 댁 가까이 ⑤ 양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⑥ 기타(구체적_____)

9.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의 일반적인 생활 등 전반적인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약간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10. 다음 내용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 V 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잘 챙겨주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부부는 상대방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					
나/배우자는 상대방의 능력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준다					
나/배우자는 서로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					

11. 귀댁에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주로 누가 결정하는 편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 V 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남편이 주로	아내가 주로	부부공동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비해당
자녀 교육문제					
배우자의 직장 문제					
거주지 결정					
생활비 관리					
투자 및 재산 관리					
가족 여가 활동/여행 장소 결정					
시댁/외가댁 방문					
부모님 용돈					

12. 귀하의 재산 중 귀하의 명의로 된 것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13번 문항으로)

12-1 다음에서 귀하의 명의로 된 것(공동명의 포함)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주택(전세 포함) ② 땅(토지) 등 기타 부동산 ③ 적금, 저축
 ④ 승용차 등 자동차 ⑤ 주식, 채권 등 ⑥ 골프 등 단체 회원권
 ⑦ 기타(구체적 _____)

13. 귀하와 배우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 ① 거의 나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린다 ② 비교적 나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는 편이 많다
 ③ 나의 의견이 통할 때와 배우자의 의견이 통할 때가 반반이다
 ④ 비교적 배우자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는 편이 많다 ⑤ 거의 배우자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린다
 ⑥ 주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서 결정하고 있다

20. 귀하께서는 부부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결혼 생활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20-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20-1번 문항으로)

20-1.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를 든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주변의 시선 ② 부모, 형제 등 주변 사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③ 경제적으로 혼자살기 힘들어서 ④ 혼자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⑤ 이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⑥ 자식 때문에
⑦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해서 ⑧ 기타(구체적 _____)

21. 귀하는 혹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혼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22. 현재 배우자가 없거나 만약 미혼이라면 귀하는 장래에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반드시 할 것이다 ② 되도록이면 할 것이다
③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22-1번 문항으로) ④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22-1번 문항으로)
⑤ 잘 모르겠다

22-1. 귀하께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학업에 몰두하고 싶어서 ② 결혼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③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④ 자녀 출산의 부담 때문에
⑤ 경제적으로 인정되지 못해서 ⑥ 현재 결혼제도가 싫어서
⑦ 기타(구체적 _____)

II. 가족에 대한 가치관 부문

23. 귀하는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 ① 피로 맺어진 사람 ② 서로 사랑하는 사람 ③ 같은 성씨
④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 ⑤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된 사람 ⑥ 기타(구체적 _____)

24. 귀하 가정에 혹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가 계시거나 향후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부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가족이 함께 살며 돌보기 ② 가족이 함께 살며 간병인의 서비스를 받기
③ 가까운 곳에 모셔 가족이나 간병인 서비스 제공 ④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시기
⑤ 기타(구체적 _____)

IV. 자녀 부문

35. 귀댁에는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36번 문항으로) ③ 모두 취학(41번 문항으로)

↓

구분	나이	보육방법
첫째		
둘째		
셋째		

보육방법 보기	
① 자녀의 부모(전적으로 부모가 돌보는 경우)	② 부모의 가족, 친척, 인척
③ 파출부, 가정부, 이웃사람	
④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등)	⑤ 유치원
⑥ 학원	⑦ 기타(구체적_____)

36. 귀하께서 아직 자녀가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이가 많아서 ② 자녀 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되어서
 ③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④ 혼자서 육이를 책임져야 하므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부부의 애정만으로도 충분해서
 ⑦ 기타(구체적_____)

37. 향후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귀하는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_____명) ② 아니다 ③ 생각해본 적 없다

38. 귀하께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② 부족하다 ③ 잘 모르겠다

39. 만약 귀하의 가정에 갑자기 일이 생겨 낮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어디에 맡기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부모 ② 친인척 ③ 집에 오는 보육모
 ④ 육아경험이 있는 이웃주민 ⑤ 규모가 큰 어린이집 ⑥ 규모가 작은 놀이방
 ⑦ 기타(구체적_____)

40. 귀하께서 만약 2개월 미만의 이동이 있는 기혼 여성으로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 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③ 배우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④ 직장보육시설 마련 ⑤ 조부모, 친인척 등 보육모 이용에 따른 정부 지원
 ⑥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⑦ 보육료 전액 무상 제공 ⑧ 기타(구체적_____)

46. 귀댁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일은 주로 어떻게 분담을 하고 계십니까?

구분	거의 내가	주로 내가	부부가함께	주로 배우자가	거의 배우자가
간식, 식사 준비와 밥 먹이기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 공부 돌봐주기					
어린이집, 학교 등하교 시켜주기					
옷입히기					
(7세 이하의 경우) 목욕시켜주기					
자녀를 위한 교육계획 세우기					

47. 귀하께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들과 딸의 경우로 구분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아들의 경우			딸의 경우		
	부모가 전적으로	부모가 일부책임	부모 책임 없음	부모가 전적으로	부모가 일부책임	부모 책임 없음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자녀의 용돈						
결혼준비 비용						
결혼 당시 자녀의 집 전세미련						
결혼한 자녀의 생활비						

V. 일과 가정 부문

48. 귀하께서는 다음 시기에 일이나 직업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시기	보기
1) 결혼 직전 :	① 가사/학업/무직 ② 무급가족종사(무보수 가족 일 도움) ③ 자영업/고용주 ④ 전일제 고용 ⑤ 시간제/임시고용 ⑥ 기타(구체적 _____) ⑦ 비해당
2) 결혼 - 첫째 출산 전 :	
3) 첫째 - 둘째 출산 전 :	
4) 둘째 - 셋째 출산 전 :	
5) 출산 후 자녀 양육 :	

49. 귀댁에서 집안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가장 많이 하는 분 _____
 ②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분 _____

보기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본인의 어머니	④ 배우자의 어머니	⑤ 딸	
⑥ 아들	⑦ 파출부나 가정부	⑧ 기타(구체적 _____)	⑨ 비해당		

50. 현재 취업상태라면 일은 귀하의 가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직업활동으로 가정생활에 활력을 준다					
직업활동으로 가족구성원에게 인정받고 있다					
직업활동으로 가정생활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업무시간이 불규칙적이라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다					
집안일이 많아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재능양육 등 가정일로 직장생활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업무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					

VI. 건강과 여가

51. 현재 귀하의 건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한 편이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2. 귀하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① 예(52-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52-2번 문항으로)

52-1. 정기적으로 어떤 검진을 받고 계십니까?(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여주십시오)

- ① 유방암 ② 간암 ③ 자궁암
 ④ 폐암 ⑤ 위암 ⑥ 정기검진(1년 1회)
 ⑦ 정기검진(2년에 1회) ⑧ 기타(구체적 _____)

52-2. 정기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② 병원비가 아까워서 ③ 큰 병일까봐 걱정되어서
 ④ 귀찮아서 ⑤ 내 몸에 대하여 무관심해서 ⑥ 기타(구체적 _____)

53. 귀하는 평소 가족과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하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한다	매우 자주한다
영화, 음악회, 전시회 관람					
스포츠활동					
쇼핑					
외식					
관광여행					
TV 시청					
컴퓨터게임					

54. 귀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약간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VII. 가족정책

55. 귀하는 가족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① 예(55-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56번 문항으로)

55-1. 귀하께서 알고 있는 가족관련 정책이나 기관을 모두 표시하여주십시오

- ① 보육료지원 ② 건강장기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불임가족지원 정책
④ 아이돌보미제도 ⑤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⑥ 임신부 출산전 진료비지원
⑦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⑧ 무상보육 ⑨ 다자녀사랑카드
⑩ 출산장려금지원 ⑪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⑫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
⑬ 영아장애아 보육시설확대 ⑭ 이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⑮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
⑯ 저소득 가정 수업료 지원 ⑰ 여성폭력 예방사업 ⑱ 피해여성 보호 사업
⑲ 모/부자 사업 ⑳ 기타(구체적_____)

55-2.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이 잘 수행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못하고 있다 ⑤ 매우 못하고 있다

56.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 ① 읍면동, 시청 등 행정기관 ② 인터넷 검색/홍보메일링서비스 ③ 언론(방송, 신문매체를 통해
④ 여성단체를 통해 ⑤ 기타(구체적_____) ⑥ 여성·가족정책에 관심이 없다

57.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 관련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체장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 ② 관련 예산의 확대 ③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④ 여성 및 여성단체 협력 ⑤ 기타(구체적_____)

58. 귀하께서는 가족 문제나 아동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58-1번 문항으로)

58-1. 귀하께서 상담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까봐 ② 상담 비용이 고가여서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④ 상담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⑤ 기타(구체적_____)

59. 귀하께서 만약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다음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문항	많이 도움된다	도움된다	보통이다	별도움 되지않는다	전혀 도움 되지않는다	제도가 있지만 사용한적 없다 (61-1번 문항으로)	제도자체가 없다
직장보육 시설							
보육비 지원 제도							
출산 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육아 휴직 제도							
가족간호제도							
주5일제도							

59-1. 제도가 있으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승진·승급에 영향을 줄까봐 ② 회사 동료에게 부담 줄까봐 ③ 일이 너무 많아서
 ④ 상사의 눈치 때문에 ⑤ 해고 당할까봐 ⑥ 수입이 줄어서
 ⑦ 제도 자체가 효과가 없어서 ⑧ 제도를 자체를 몰라서 ⑨ 사용할필요가 없어서
 ⑩ 기타(구체적 _____)

60. 귀하는 다음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문항	이용해 본적이 있다	안다	모른다
가정폭력 발생시 여성긴급전화(☎1366)나 가정폭력 상담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센터(☎1389)는 24시간 위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1391)는 아동학대 예방 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낮 시간 동안 노인주간보호 센터는 노인을 보호해준다			
저소득 가정 자녀의 보육료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이 있다			

61. 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61-1번 문항으로) ② 없다

61-1.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가족돌봄 서비스 ② 가족 친화문화 조성 프로그램 ③ 가족문제 해결 프로그램
 ④ 가족 역량강화 사업 ⑤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⑥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⑦ 노인역량강화 프로그램 ⑧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⑩ 기타(구체적 _____)

62. 귀하께서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한 가족문화정착 교육 ② 가족상담기관 특성화 전문화 ③ 부부교육 강화
 ④ 아동·노인 양육 서비스 강화 ⑤ 기타(구체적_____)

63. 귀하께서는 여성의 취업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특화 직업교육실시 ② 여성 일자리 확대 ③ 여성 취업 알선
 ④ 자녀를 위한 보육·방과후 시설 강화 ⑤ 기타(구체적_____)

64. 귀하께서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정책 연구 강화 ②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③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④ 일자리와 연계되는 여성인력 양성
 ⑤ 기업의 여성 채용시 지원 ⑥ 기타(구체적_____)

65. 귀하께서는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여성암 검진 무료 실시 ②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③ 여성전문 병원 지정 운영 ④ 여성노인 건강 체계적 관리
 ⑤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⑥ 기타(구체적_____)

66. 귀하께서는 현재 제주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_____

- 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③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⑤ 미혼모 보조 및 지원
 ⑦ 여가 및 문화, 취미 활동 시설
 ⑨ 여성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및 체육시설
 ⑪ 여성을 위한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2순위)_____

- ② 가정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④ 성매매 예방 및 탈 성매매 지원
 ⑥ 독거 여성 노인 생활보조
 ⑧ 가족 문제 관련 상담 시설
 ⑩ 취업과 창업 및 부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
 ⑫ 기타(구체적_____)

67. 귀하께서는 평소에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분야가 있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원봉사 활동 ② 학교운영 등 학부모 활동 ③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
- ④ 부녀회, 자치회 등 지역활동 ⑤ 문화, 취미, 학습활동 ⑥ 정치(정당)활동
- ⑦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⑧ 종교활동 ⑨ 기타(구체적_____)

68. 귀하께서는 평생교육 기관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 | |
|---------------------|--------------------------|
| 1순위)_____ | 2순위)_____ |
| ① 비용 문제 | ② 희망하는 프로그램 |
| ③ 희망하는 교육 시간 | ④ 거리와 교통수단 |
| ⑤ 교육 받는 동안 가계 경제 문제 | ⑥ 교육 받는 동안 아이 돌봐줄 방법 |
| ⑦ 원하는 프로그램의 조기 마감 | ⑧ 프로그램이 어디서 제공되는지 알지 못하다 |
| ⑨ 이용할 생각이 없다 | ⑩ 기타(구체적_____) |

69. 귀하께서는 향후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 | | |
|------------------|----------------|------------------|
| 1순위)_____ | 2순위)_____ | |
| ① 취미, 교양 및 문화 관련 | ② 여성리더십교육 | ③ 여성의식교육(양성평등 등) |
| ④ 외국어 교육 | ⑤ 정보화 교육 | ⑥ 자원봉사를 위한 전문교육 |
| ⑦ 취업 혹은 창업 교육 | ⑧ 기타(구체적_____) | |

70. 귀하께서는 현재 제주도에 여성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1. 귀하께서는 현재 제주도의 여성단체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 | |
|--------------------------|----------------------------|
| 1순위)_____ | 2순위)_____ |
| ① 여성정치활동 지원(후보지원, 의정감시) | ② 여성의식 교육(양성평등, 권리, 리더십 등) |
| ③ 여성고용촉진활동(취업·창업 교육 등) | ④ 여성문화활동(공연, 전시, 영화제 등) |
| 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 ⑥ 주민생활개선운동 |
| ⑦ 중앙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 ⑧ 여성단체 간 연대 사업 |

- ⑨ 아이 지키기 사업
- ⑩ 여성폭력 근절 사업
- ⑪ 여성정책 감시 및 제안 활동
- ⑫ 기타(구체적_____)

72.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저출산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순위)_____ | 2순위)_____ |
| ① 육아휴직제도 시행 및 감독 강화 | ②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 지급(첫째아부터) |
| ③ 출산시 출산용품 무상 제공 | ④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 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⑥ 보육료 무상 지원 |
| ⑦ 영유아 무료 검진 서비스 | ⑧ 불임부부 지원 확대 |
| ⑨ 기타(구체적_____) | |

73. 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지역여성의 문제점이나 여성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편
- ② 높은 편
- ③ 보통
- ④ 낮은 편
- ⑤ 매우 낮은 편

♣ 오랜 시간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공동연구	김 혜 숙	제주대학교 교수
	강 경 숙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인쇄일 / 2009. 7.

발행일 / 2009. 7.

발행인 / 유 덕 상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시 청사2로 8(도남동)

Tel. 064)726-0500(대)

인쇄처 / 제주콤(064-726-1771)

ISBN 978-89-6010-097-8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